



1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1호

(루게 435)



◆◆◆◆◆◆◆◆◆◆ 차 례 ◆◆◆◆◆◆◆◆◆◆

신년사.....	4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자.....	9
설날의 축원.....	11
만민이 드리는 노래.....	13
향토성 따라 한생을 살리.....	14
김정일 각하께 영광을.....	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시.....	15
아끼시는 마음.....	16
흐르는 날과 날마다.....	25
시중호반의 새벽.....	26
언제나 생각하는 마음.....	27
전진하는 문학대오의 기수가 되겠다.....	28
새해, 새 결심.....	28
진군 하는 대오에 힘찬 노래를!.....	29
나의 집.....	30
우리는 혁명의 전위.....	31
세월.....	32

전환의 해	46
복수자의 맹세	55
영화실효투쟁을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56
여기로 오라!.....	60
나는 강선사람	61
신념	62
동화의 특성과 동화적인 이야기	67
더 높은곳으로	74
전국 방송극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77
조국의 지도를 두고	78

김일성
신 년 사
1984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번영하는 조국의 력사우에 또다시 창조와 건설의 한해를 빛나게 장식하고 희망찬 새해 198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신심도 드높이 새해의 첫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미제와 군사파쇼분자들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적자주권과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궁지와 영예를 떨치며 우리 민족의 룡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83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인민들의 양양된 정치적열의와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축원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3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창건 35돐경축행사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일본새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온 사회에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양양을 일으켰습니다.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장과 남포갑문 건설장, 간석지건설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연을 정복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능력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 있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1984년은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해이며 올해에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제2차 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5개지구전선의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남포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의 5개전선건설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은 석탄공업입니다.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식량이며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모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석탄을 넉넉히 생산보장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증산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많은 안주지구탄광들과 순천지구, 강동지구, 북부지구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모든 탄광들에서 박토와 굴진을 앞세우고 경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기관들은 석탄생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조직하며 전국이 달라붙어 탄광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탄광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며 각급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들은 탄부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전력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올해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 하여 만부하로 돌리고 그 효율을 높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새로운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북창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 확장공사를 다그쳐 빨리 끝내며 위원발전소와 태천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안주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새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 연료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책제철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현대적인 금속가공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철강재와 2차금속가공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늘이며 유색금속가공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련소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제련실수율을 높여 지금 있는 제련소들에서 유색금속생산을 적극 늘이며 단천제련

소 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가공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유색금속가공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질 좋은 유색금속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재와 유색금속 생산을 빨리 늘이려면 광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광업부문에서는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철소와 제강소, 제련소들에 쇠돌과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을 원만히 대주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건설부문 로동계급앞에는 5개지구전선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남포감문건설과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선후차를 가려 건설을 집중적으로 하며 건설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앞선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건설의 질을 높이고 건설대상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는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5개지구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긴장한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수송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합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기관차와 화차생산을 높이고 철길을 보강하며 철도전기화와 새 철길 건설공사를 적극 다그쳐 수송능력을 빨리 높여야 하며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의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한두해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과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려면 경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장과 곡산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일용품과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경공업제품의 질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를 많이 갱신하여 경공업공장들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도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공급하는것입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물고기잡이전투를 적극적으로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잡은 물고기를 허실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변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시비량을 더 늘이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고기와 알, 파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집체적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옳게 배합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고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기 제 8차전원회의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세계정세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긴장상태는 극도로 격화되고있으며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적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앞에는 적들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결히 지키며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오늘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향도적가치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건결히 옹호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하겠습니까.

우리는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정세가 복잡하고 반혁명의 발악책동이 강화될수록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온갖 장애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의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과 악랄한 도발책동을 날카롭게 주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경계근무를 강화하여 적들의 침략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 하며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당조직들과 지휘관, 정치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잘하고 새 교육년도 훈련과제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본신헌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군사기술적준비를 더 잘 갖추며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까.

사회안전원들은 적들의 간첩, 파괴암해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채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후방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겠습니까.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여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무력증강 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오늘 세계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지만 대세는 더욱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적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자

오늘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신심도 드높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통같이 단결되어있으며 온 사회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불타는 지향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참으로 지금 우리 나라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앙양의 시기에 처하여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이 벅찬 현실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위업의 완성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종자를 현실속에서 찾아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처럼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제공하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의 장엄한 현실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 잡고 그 종자를 기초로 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며 현실속에서 자라나고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성격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창작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현실속에 직접 뛰어들어 군중과 같이 살며 일하며 호흡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탁상우에서는 배울수도 익힐수도 없는 다방면적인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리해와 사랑을 받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그것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만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을 종합적으로 체험할수 있고 따라서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의 벅찬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야 하며 현실에 몸을 꼭 잠그어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현실을 체험해야 할 대상은 5개지구전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7개년계획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순천지구, 청진지구, 함흥지구, 안주지구, 남포지구 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총돌격전을 벌려 매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힘을 넣고있는 이 지구들의 중요건설대상들을 얼마나 빨리 다그치는가 하는데 따라서 강철고지, 전력고지, 석탄고지, 화학고지, 천고지를 비롯한 중요고지점령과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우리 인민이 힘을 집중하여 5개지구전선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때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될것이다.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미 5개지구전선들에서는 충성의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 드높이 눈부신 건설성파가 이룩되고있다.

작가들은 응당 우리 시대의 거대한 숨결이 약동하고있는 중요건설대상들에 신들메를 든든히 하고 뛰어들어야 하며 여기에서 우리의 근로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진실히 반영한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현실속에 침투하는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더욱 튼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체험하고 창작적사색을 깊이 하여야 한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현실속에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옳게 가려보고 자기들의 작품에서 시대와 현실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천명할수 있다.

아무리 잘 아는 현실,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생활도 높은 정치적인목으로 옳게 분석하고 일반화하여 형상적으로 다시 가공하지 않고서는 좋은 작품을 써낼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혁명적사변들로 가득찬 우리의 현실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옳바르게 파악하고 훌륭하게 그려내야 할것이다.

생활과 현실을 떠나 순수 탁상문학을 해서는 작가의 창작적재능이 꽃필수 없으며 그러한 작가에게는 일찍 창작적 로쇠가 오며 열정이 식어지고 환상이 나래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하게 위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명심하고 현실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생활의 결면만을 훑어 보고 취재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경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을 체험하여야 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현실을 깊이 체험하지 않고 취재나 해가지고서는 혁명이 심화발전하고 있는 오늘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각오와 미학정서적수준에 상응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은 철학적사색이 깊고 형상이 풍부하며 품위있고 여운이 있는 문학작품들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문학작품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는 생

활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놓여있는 근본적인것, 근원적인것까지 예술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의 날로 높아 가는 미학정서적요구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해 내기 위해서도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거대하게 굵어치고있는 시대의 흐름밖에서 한갓 손재간에 의거하여 작품을 만드느것과 같은 창작태도는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작가의 자세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한계단 높이 추켜세우며 그의 사상미학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게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모든 작가들이 우리의 장엄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성격과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생동하게 반영한다면 우리가 창조한 형상들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생활의 길동무가 될것이며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모든 전투장들에서 위훈의 불씨로, 투쟁의 기수로, 전진의 나팔수로 될것이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문학은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에 굳건히 서있게 될것이며 우리 작가들은 이 전초선을 지켜 선 초병으로서의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것이다.

작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들이다.

모든 작가들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현실속에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창작적목표를 가지고 깊이 침투하여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당의 작가로서의 혁명적본분과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설날의 축원

동기춘

한해 세월
삼백예순다섯번 아침에도
해가 가고 해가 오는
설날의 이 아침

한겨울 눈속에서
가꾸고 피운 꽃
꽃에서도 꽃을 골라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 우리러
꽃바구니를 엮어 드리는
뜨거운 한 마음

아, 가슴에 그득한 정
말로는 다 아뢰일수 없이
그 마음
애오라지 꽃에 담을 때

젖어 오르는 생각이어
한해를 돌이키고
다시금 다시금
지나온 해와 달을 걸어라

막막하던 세월에도 설은 있어서
그날이면
실에 췌 메주콩을 얼켜서
아이들의 빈손에 쥐어주고
늙은 부모 오래 사시라고
무릎꿇고 기원하던 그 설은
눈물 고이던 젊은 날

백두산에서 장설을 밟으시며
짓밟힌 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우리 장군님 혈전만리를 걸으실 제
설인사 한번 변변히 차리지 못했던 일에
가슴속에 아프게도 있었거니

마음에도 꽃이 피던 해방의 강산
기쁨의 파도우에 떠오르는
새해 새날의 태양을 마중하며
온 나라가 꽃다발을 안고
백두의 20 성상 조국을 찾아주신 장군님께
만수무강하시라 뜨거운 축원
삼가 드리던 못잊을 감격이어

참으로
이 땅에 오는 설날은
수령님을 생각하는 날
온 나라가 수령님을 생각하는 날

참으로
우리 인민의 설날은
눈물이 나도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나는
기쁨의 명절로 되었어라

효성이 지극하면
눈우에서 꽃을 구한다는 옛말은
하고싶어도
조상대대 바칠곳 없던
우리 인민의 마음이었던가

오, 꽃이어
그것은 봄여름에만 피던것

반만년의 어느 갈피에
겨울에도 한겨울
려염집창가에 피어 왔던가

오, 꽃이여
토지를 받은 그해 설날에도
공화국이 서던 그해 설날에도
전쟁을 이긴 근해 설날에도
봄처럼 여름처럼
꽃은 수령님 우러러 만발했거니

수령님 베푸신 은정
하늘이 되고
강산이 되고

수령님 고매한 덕망이
해빛이 되고
생명수 되고

걸으신 발머리
넘으신 령
찾으신 트랙

자옥자옥 그 자옥우에
조선이 소리치며 일어서고
인민의 행복이 파도쳐 왔거니

받드는 마음 피는 꽃에
어찌 겨울이 따로 있으랴
아, 설날은
눈속에서 꽃이 피는
축원의 명절

꽃에서도 꽃을 골라
꽃바구니를 엮으며
설날의 이 아침

하나같이 사무치는 생각

지난해도
검덕의 높은 마루에 오르시여
《80년대속도》창조의 모범으로 내세우시며
인민을 위한 이런 일이라면
하늘끝엔들 못가겠는가
기쁘시여
먼길의 피로를 잊으시던 수령님이시여

수령님 천만년 높이 모시고 따를
변치 않을 신념의 뿌리우에
눈서리 내리고 흑한이 아우성친들
어찌 충성의 꽃 만발하지 않으랴

진정
이 땅에 오는 설날은
축원의 꽃이 피고
충성의 꽃이 피어
흰눈우에 꽃바다 설레는
경사로운 날이여라

우리 수령님대에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가슴아픈 민족의 분렬도 끝을 내고
3대혁명의 폭풍치는 진군으로
온 세계 자주화를 다그칠 불타는 마음
이 아침 간절히 담아

끝없는 세월에 끝없이
로송이 억년 푸르듯이
어버이수령님 만수무강하시라
깨끗한 흰눈우에 고이 피운
축원의 꽃바구니를 안고
온 나라가 큰절을 드리여라

만민이 드리는 노래

김성환

천만가닥
억만가닥
광채로운 해살을 뿌리며
새해아침
첫 해돋이 노을이 펼쳐집니다

삶의 기쁨이 한껏 망울 터친
락원의 이 강산
창조의 거창한 숨결이 차흐르는
영광의 이 땅에
빛발치는 찬연한 저 해살

하얀 실구름 스쳐 가는
층 높은 창광거리 밝은 창가에서
은룡덕마루에 새로 일떠선
선광장의 휘넓은 기계바다에서
저 해살 우러르면

아,
걱정에 부푸는 가슴들에
행복에 설레는 마음들에
숭엄히 안겨오는 거룩하신 영상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며
조선의 미래를 가꿔 가시며
시대와 세기우에 뿌리시는 제 해살은
향도의 빛발
사랑의 빛발

그 빛발아래
격랑치는 날바다 한복판을 가르며
갑문언제가 줄기차게 뻗어 가고

자동화의 붉고 푸른 신호등 번쩍이는
용해장에 쇠물이 사뭇쳐 흐릅니다

그 빛발 안고
인생의 값높은 존엄을 펼치며
사람마다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청춘의 기쁨에 넘쳐
아름다운 희망을 꽃피웁니다

아, 주체의 혈통 만대에 이으시며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래일을 펼쳐가시는
은혜로운 향도의 태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겨주신 그 해살 그리도 광휘롭기에
조선의 영광
누리에 빛을 뿌리고
받아안은 그 해살 이리도 파사롭기에
우리의 행복
만민의 념원속에 꽃피거니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온 세상이 우러러 부르는 흠모의 노래
중국땅 장장 수만리
환영의 꽃보라속에 울리던 축원의 노래

인류가 것처럼 따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이 땅, 이 인민의 공지는
자주의 한길따라 가는 세계의 미래입니다
주체시대의 행복입니다

우러를수록
가슴젖어 오는 뜨거움
천만가닥 억만가닥
만민의 가슴에 비쳐드는
저 해살 안고 사는 고마움

광채로운 저 해살따라 천만리
영광도 시련도 그 빛발속에 안고 헤치며
혁명의 수천만리 가고가면
눈앞에 다가서는 리상의 언덕
자주화된 새 세상

아, 저 해살 안고 한껏 밝아진
설명절의 이 아침
친애하는 그이를 더 잘 모실
인민의 소원 인류의 념원
거리의 축등마다 눈부시고
행복의 창가마다 빛나거니

그 소원 그 념원으로
이해의 설날은 새벽부터
저 멀리 눈 덮인 산정에선
선광장의 마광기 동음소리 기세차고
직기바다를 누벼가는 방직공의 구슬땀이
비단필에 꽃수로 새겨집니다

창조의 희열로 쇠물이 끓고
혁신의 노래높이 언제가 솟는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벗들의 찬탄의 목소리
지구의 방방곡곡으로 퍼져 갑니다

새해 첫 아침
눈부신 저 해살의 광망속에서
만민이 드리는 축원의 마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가사

향도성 따라 한생을 살리

김경기

아침에도 한밤에도 마음속에 솟는 별은
나의 삶에 빛을 주는 향도의 밝은 별
아, 향도의 밝은 별

눈비속을 헤쳐가도 그 별빛 안고 가고
세상끝에 있다 해도 그 별빛 향해 살리

아, 그 별빛 향해 살리

태양만을 따라 도는 하늘의 못별처럼
한빛으로 한뜻으로 향도성 지켜돌리
아, 향도성 지켜 돌리

김정일각하께 영광을

부바까르 까마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주체의 위업을 빛내여 가시며
세기적인 변혁으로 역사를 수놓으시여라
당신께서 조선을 위하여 쌓으신 공적 영원불멸
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싸우시는 앞길에 영원
한 승리가 펼쳐져있거늘

당신의 덕망 한없이 고결하고 훌륭하며
당신의 뛰어난 재능 세계가 알고있나니
당신의 위업 위대하고 숭고하여라
당신의 이름 영원할 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천세만세 길이 빛나라

(필자는 세네갈 시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시

불란야나 쏘노

비범하신 예지로 걸음걸음 빛내이시며
사람들을 일깨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분
여기 조선에 계시나니

우리는 당신을 모시고
자주시대에 사는 영예를 간직하며
당신께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노라
조선과 세계가 해야 할 일을
밝혀주시는 당신께

만민의 흠모와 존경을 받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영원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신을 우러러모시웁니다

당신을 우러르며

여기 조선으로 달려온 우리
당신께서 높이 드신 향도의 손길따라
모두다 걸음 맞춰 나아가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께선 위대하신 **김정일**원수님의
높으신 뜻 이으시였거늘
당신께서 나아가시는 길우에 승리만이 빛날것입
니다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 공보 및
선전부 부부장)

아끼시는 마음

박 현

지방산업총국장 주학민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작히며 특별렬차의 승강대로 올랐다. 지방에 출장 나가있던 그는 뜻밖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달려온 길이었다. 잠시후면 그이를 만나뵙게 된다는 감격과 함께 짜릿한 흥분이 전신을 휩쌌다. 그이께서 현지도차로 내려오셨을 때 총국산하공장들에서 해결 받으려고 하는 문제들을 종합하여 도당을 통해 올리고 줄곧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있었지만 이렇게 친히 불러주실줄은 생각도 못했다.

승업한 분위기에 잠긴 렬차안의 집무실이 가까와 올수록 그는 긴장해졌다.

6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고비에서 총돌격하는 전국의 대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느라 분초를 쪼개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다. 얼마나 많은 거창한 사업들을 그이께서 밀고나가고계시는가.

그렇수록 자기에게 돌려주시는 시간의 귀중함을 더 무겁게 느끼며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총국장동무요?》

검소하신 옷차림으로 차창옆에 반쯤 몸을 돌리고 서계시던 그이께서는 조용히 인사를 받으시였다.

순간 주학민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의 얼굴에 엮은 그늘이 비껴계신것이였다. 도에 내려오시여 처음 만나뵈웠을 때 환하게 웃으시며 수고한다고 손잡아주시던 그이께서 지금은 주학민을 맞이하고나서도 여전히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차창밖으로 눈길을 주고계시였다. 정갈하게 꾸려진 역사옆으로 어딘가 멀리 바라 보고계시였다. 주학민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 그가 생각했던것과는 전혀 다른 일때문에 부르셨다는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이의 뒤에 선 도당책임비서도 수행한 중앙의 간부들도 가법치 않은 안색들이였다.

차안에는 침묵이 드리웠다.

주학민은 렬차가 달리는 동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래도록 그렇게 서시여 깊은 사색에 잠겨 계셨다는것을 느끼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여 좌파에 앉으시였다.

말씀을 하고싶지 않으신듯 응접탁우에 쌓인 문건들을 잠시 바라보시였다. 이제까지 이어 오

시던 사색의 답을 거기에서 찾으시려는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이번에 검덕지구를 다녀오는 길이요. 거기 가서 갯에도 들어 가보고 로동자들의 생활과 생산정형도 료해하여 보았소.》

그이께서는 연필을 집어드시며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자면 무엇보다 집을 잘 지어주어야 하오.

이번에 보니 주택구역이 도시 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건설되였소. 그러나 집이란 결모양만 미끈해서는 안됩니다. 가구비품이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엌세간과 일용품들이 풍족치 못해서 로동자들이 불편을 느끼고있었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따로 임무를 주려고 평소에 일을 잘하던 이곳 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 서운병동무를 찾았습니다. 만나본지 하도 오래되기도 하여…》

검덕의 주택문제와 그이의 흐려진 안색이 무슨 관련이 있는것인지 얼른 짐작이 안가 도내 건설부문사업을 더듬으며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던 주학민은 서운병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거운 사색에 잠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줄은 천만뜻밖이였다.

《그런데 그 동무가 두달전에 해임되였다는 보고를 들었소. 년로하고… 또 과오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연필을 만지작이시다 문건우에 꼭 눌러놓으시며 고개들 드시고 주학민을 바라보시였다.

《책임비서동무에게서 이야기 들었지만 그 공장에 지도검열사업을 책임지고 나갔던 동무의 말을 직접 듣고싶소. 더구나 동무는 그 공장 출신이고 지배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니 한번 만나보자고 불렀소.

그래 총국장동무, 정말 서운병동무가 지배인의 직책을 감당할수 없게 되였소?》

그이의 안광에 날카로운 빛이 번쩍 달리였다.

주학민은 얼른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한사람의 운명에 대해 그이께서 얼마나 깊이 심려하시는가를 잘 알기에, 지금의 이 어두운 안색이 그때문이라는것을 알기에 더구나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이의 물으심에 침묵을 지키고만 있을 수 없었다.

《네, 생산을 계속 정상화하지 못하는데다가 공장에서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한 독단으로 하여… 그리고 본인이 해임은 요청하기도 하여… 그래서 저도 그렇게 판단한후 상급당에 보고하여 해임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대답을 올리고 머리를 숙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충성의 전투를 벌리는 도내 공장실태에 무척 만족해하셨다는 그이께 해임된 한 지배인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게 그지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결 가라앉으신 어조로 말씀하셨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십시오.》

주학민은 떠들떠들 말씀드리였다.

《금년초부터 수지일용품공장이 생산에서 편파성이 심하여 지배인동무는 여러번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아 지배인이 늙어서 일을 제끼지 못하고 몽겐다는 말이 돌기 시작 했습니다. 그는 도내 많은 지배인중에서 제일 년로한 지배인이였습니다.》

그무렵, 공장에서는 기본 생산소재인 비닐판을 미는 대형압작로라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고안 문제가 제기되였다.

전동기를 갱신하여 로라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것이 그 기본문제였다. 기술일꾼들은 반대하였다. 그렇게 하면 생산능력은 당분간 높일수 있으나 기대를 혹사하게 되며 진동계수가 달라져 기계 기초가 흔들리고 자칫하면 로라를 파손시킬수 있다는것을 밝혀내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 모든 과학적론증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면생산에 급급한 그는 달라진 진동계수에 맞춰 기초를 보강할수 있다는 숙련공의 주장만을 믿고 독단으로 회전속도를 높일것을 지시했다. 무엇이든 내밀면 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였고 또 실제 서운병은 그렇게 일을 제껴왔던것이다. 기술집단이 예견했던대로 사고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났다.

지나치게 부하를 받은 로라의 축이 휘여 무리오작을 내었을뿐더러 화재까지 일어났다.

숙련공은 회전속도가 높아질 경우의 열량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것이다.

《대형로라가 파손되어 작은 로라들까지 비닐판을 밀지 못하게 된 공장에서는 생산전반이 정지되었습니다… 사고심의회에서 서운병동무는 자기가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기술을 무시하고 주먹치기로 내밀기만 했다고 솔직히 비판했습니다.

엄중한 후과에 대해 국가앞에 책임도 지고 또 이제 는 나이가 많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여 지배인 사업을 감당할수 없으니 자리를 내놓겠다고 거듭 제기했습니다.》

주학민은 더 말씀드릴수 없었다.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색이 더 흐려지시며 피로와하시는 빛이 어리기때문이었다.

그는 서운병의 파오를 덜어서 말할수 없는 자신의 립장이 안타까왔다.

공장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 문제를 취급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파손된 기대앞에서 젊은 기사장이 제머리를 그러쥐며 통탄하게 한 완고한 서운병같은 경우는 드물어 그이께 사태를 그대로 보고 드릴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상하지 않았소?》

《기대공이 하나 중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더니 천천히 거니시다 또다시 창가에 가 서시였다. 주학민은 그이께서 자기를 직접 부르실 때 그래도 무인가 다른 내용의 보고가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고계셨다는것을 느꼈다. 그이께서는 아무리 믿고싶지 않으시나 명백한 사실앞에 더는 어쩔수 없으시여 피로와하시는 모습이시였다.

《나는 수령님께서 서운병동무를 두고 하시던 이야기를 언제나 잊을수 없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밖으로 눈길을 주신채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일시적후퇴가 방금 끝난후 수령님께서 이번 이곳을 지나게 되시였소. 도처에 폭탄구멍이가 패이고 집들이 불탔고 공장은 시켜면 폐허로 변하고 굴뚝만 남은 때였소, 숲죽은 산업지구를 보시는 수령님께서 가슴이 아프시였소. 공장을 다시 건설하고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바로잡아나갈 일로 수령님께서 생각이 무거우시였소. 그런데 뜻밖에도 폐허밖에 없는 이 지구의 한구석에서 작은 공장이 돌아가는것을 보게 되시였소.

지금으로 말하면 공장이라기보다 자그마한 제작 소라고나 할가. 그러나 폭탄구멍이와 녹썬고 찌그러진 철판들만 널린 그속에서도 기대들을 알쭉히 갖춰 놓고 생산하고있었소. 무너지다 만 공장벽에 붙여 토끼를 쌓아지은 집 문에는 창유리까지 달려 있고… 수령님께서 너무 반갑고 또 놀랍기도 하시여 도대체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는가, 어디서 난 기대들인가 물으시였소. 그러자 한 작업복을 입은 그 공장지배인이 후퇴가 시작되자 전동기와 기본설비들을 산속깊이 파묻고 주요한것은 분해하여 등에 지고서 초산까지 갔

다가 돌아와 다시 차려놓고 일을 시작했노라고 보고드리었소.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그을 부둥켜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소.

《고맙소, 고맙소. 동무야말로 나라의 참된 주인이요.》

그 동무가 바로 서운병동무였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벌써 쓸모없는 사람으로, 뒤떨어진 사람으로 되었던말이요. 무거운 설비를 지고 수백리 후퇴길을 갔다온 서운병동무가, 하긴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소.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로쇠해버린단 말이요?》

그이의 음성은 아픔과 노기와 피로움이 뒤섞여 떨리시었다.

《지금 그 동무가 무엇을 하고있소?》

《해임 된후... 그 공장에서... 로동하고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금 놀라시는 기색이시었다.

《그 공장이라... 그 공장이라...》

조용히 되뇌이시던 그이께서는 창가에서 돌아서시며 물으시었다.

《현재 그 공장의 생산정형은 어떻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수지일용품공장의 생산을 더 증대하여야 하오. 제품의 가지수도 늘이고 인민들에게 갖가지 필수품을 넉넉히 보내주어야 하겠소. 총국장동무, 우리 같이 나가보지 않겠소? 지배인도 없어 그동안 걸린것이 많을텐데 한번 둘러보는것이 어떻소.》

주학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현지에서 생산문제를 의논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기뻐하나 한편 사고를 냈던곳에 그이를 모시게 된다는 자책감으로 얼른 대답을 올릴수없었다. 두달전에 있던 사고현장이라 이제는 다 복구되어 흔적을 찾을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이께서 거기에 가 서시면 당시의 전경을 그려보며 더 가슴 아파하실것이 아닌가.

그렇수록 그런 뜨거운 민심을 저버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심려를 끼친 서운병이 원망스러웠다.

두달전, 새까맣게 연기에 그슬린 사고현장과 기사들의 의견, 막대한 오작피해액을 보고 격분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될수록 서운병의 과오를 적게 볼수 없겠는가, 참작할 여지가 없겠는가 하는 심정이였다....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시내길을 달리였다. 네거리 로타리를 돌아 다리를 지나서 도시변두리에 자리 잡은 공장에 이르자 이미 련락이 되어있어 배치된지 1년밖에 안되는 젊은 당비서가 정문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맞이하였다.

이른새벽 고요속에 엷은 안개가 공장구내에 낮게 깔려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문앞에 서시여 주위를 빙 돌아보시었다. 규모있게 들어선 직장 건물들이 뽀얀 안개속에 어렴풋이 드러나 보이고 가로 수가 설령거리는 포장한 길이 가로세로 뻗어간 구내는 공장이라기보다 잠깨지 않은 깨끗한 거리의 한구획 같았다.

《내가 꼭 10년만에 찾아왔는데 그사이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소. 옛날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만. 안개가 끼서 그런가.》

변모된 공장의 모습을 보시자 그이께서는 무겁던 기분이 한결 덜리시는듯 안색이 가벼워지시여 말씀하시었다.

가로수들에서 참새들이 재재거릴뿐 구내에는 인적기가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원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소풍이나 하시듯 책임비서와 주학민, 공장 당비서를 이끄시고 천천히 구내길을 걷기 시작하시었다.

《그사이 건설을 많이 했소. 공장을 참 잘 꾸렸소. 이것은 언제 지었소?》

그이께서는 대형구호판을 지나 첫번 맞다들린 건물앞에서 물으시었다.

《한 5년 되었습니다.》

당비서가 대답올렸다.

《정성들여 미장한것이 알뜰한 살림집같구만. 국가계획에 물려서 한거요?》

《지방자재를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건설했습니다.》

《잘했소. 모든 공장들이 우만 쳐다보지 말고 여기서처럼 일하면 국가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번듯하게 꾸릴수 있을텐데.》

그이께서는 새벽대기속에 싸늘해 진 차거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잠시 바람벽을 만져 보시다가 걸음을 옮기시었다.

《문화회관도 새로 지었구만, 크지는 않아도 아담하고 깨끗하오. 앞에 못까지 파놓고. 그러니 로동자들이 공장에 정이 들게 되었소. 목욕탕이 있지, 탁아소, 유치원이 있지, 없는데 없지 않소.》

《네, 전지배인이 욕심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주학민은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시든 그의 모습을 보며 서운병에 대해 그렇게 말해주는 당비서가 고마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감상하시듯 잠시 문화회관을 바라보시다 그 옆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저것은 무슨 직장이요?》

《로라직장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못하여 두 달전에...》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공장으로 찾아오셨는지 통모르고 있는 젊은 당비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다 책임비서와 주학민의 얼굴을 보고는 말끝을 흐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묵묵히 그쪽을 바라 보시다가 가보고싶지 않으신듯 반대쪽으로 발길을 돌리시었다.

한동안 말없이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새로 들어선 직장들사이에 끼워 별로 초라해보이는 창고 같은 작은 건물앞에 멈춰서시었다.

그것은 공장의 옛모습이 남아있는 단 하나의 남은 건물이었다.

《여기가 바로 10년전에 내가 서운병동무를 처음 만났던곳이요.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도 인상깊었기때문에 만나고싶어 들렀댔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감회깊이 말씀하시거나서 그때의 일이 기억에 새롭게 살아오시는듯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안으로 들어서시었다.

겉모양과 달리 알뜰하게 정리된 기대들이 줄지어 서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오?》

《서운병동무가 신입공들에게 수완성작업을 가르칩니다.》

《아, 윤병동무가 일하는곳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결 눈길이 부드러워지시며 작업장을 둘러보시다가 작업대우에 놓인 줄칼을 집어드시었다.

《그런데 비서동무, 어떻게 윤병동무가 여기서 일합니까. 그래도 지배인으로 오래 있던곳인데 남들 보기도 그렇고 괴롭지 않겠소.》

《본인이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해임된후 당위원회에 찾아와 파오에 대하여 뼈아프게 자기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 공장에서 자기의 파오를 씻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파오를 씻겠다...》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찌르신듯 그이께서는 얼굴빛을 흐리시었다.

밖으로 나오시여셔도 어쩐지 그곳을 떠나고싶지 않으신듯 다시 돌아보시었다.

무언가 복받치는것을 묵새기시려 묵묵히 구내길 옆 공지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규모있게 늘어선 키 큰 나무들이 가벼이 부는 바람에 설렁거리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깊은 사색에 잠기시여 이슬 맺힌 나무잎사귀들에서 눈길우 떼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나직이 말씀하셨다.

《하긴 떠날래야 떠날수 없을테지... 한생을 여기서 땀을 바쳤으니...》

그이께서 로라직장에 가보지 않으실 의향이라는것으로 안도의 숨이 조금 나가던 주학민은 그 말씀을 듣자 속이 몽클했다. 지배인에 대한 처리에서 무언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이의 뜻을 어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새삼스레 공원처럼 우거진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것 역시 서운병이 지배인으로 있던 수십년동안에 심고 자라온 나무들이었다.

《충국장동무, 동무는 언제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소?》

친애하든 지도자동지께서는 문득 물으시었다.

《정전직후입니다. 20여년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운병동무밑에서 일을 배웠겠소... 그렇다! 그러면 동무는 윤병동무의 우단점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겠구만.》

《네, 어떤 때 좀 과격하고 거칠기는 해도 뒤가 없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학민은 문득 로동생활이 처음 시작된 20여년전 일이 떠올랐다.

그는 애송이 꼬마로 입대했다가 전쟁을 마치고 학창시절의 꿈을 고스란히 안고 고향도시로 돌아온 그는 이 초라한 직장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배우는것이 수완성작업반의 줄칼질이다. 앞뒤로 손이 끝없이 오가는 단순하고 권태로운 줄칼질, 이것을 보고 로동의 희열이라고 하는가, 그때 젊은 기분에 시줄이나 쓰던 그는 속이 울컥 하여 줄칼을 내던지고 벌렁 땅바닥에 드러 누웠다. 자기가 어디에 와있는가 생각하니 기가 막혀 눈을 감았다.

그런데 문가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쿵 육중한 중량물은 내려놓았다.

시답지 않게 눈을 찌긔이 뜬 그는 어마어마하게 옆에 놓인 거무스레한 전동기의 동체를 보았다. 그결에 웃동을 벗어던진 지배인이 숨차 헐떡이며 서있었다.

근육이 울근불근 드러난 지배인의 억대우 같은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있었다. 주학민이라면 땅땸도 못할 전동기를 지배인이 혼자 메고 왔던것 이다.

드러누워있는 주학민의 거슬린 모양과 내동탱이 친 줄칼을 일별한 서운병은 진한 눈썹이 꿈틀하고 일어섰다. 금시 불호령이 터질듯했다. 지배인의 성미가 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갓 들어온 건달기가 있는 신입로동자들을 혼썰내는것을 보기도 했던 주학민은 격노한 지배인의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는 부스스 일이나 머리를 숙이었다.

그런데 먹살이라도 당장 잡아챌듯하던 지배인은 나딩구는 줄칼을 집어들더니 뜻밖에 조용히 말했다.

《하늘로 날고싶은가. 좋지, 허지만 먼저 땅에 발을 든든히 붙여야 하는거야.》

그리고 더 꾸지람을 앓고 돌아서 썩썩 그가 하던 줄칼질을 하기 시작했다. 주학민은 지배인의 나직한 소리가 벼락치듯 하는 고향보다 더 무서웠다. 지배인의 잔등에서는 여전히 땀이 흐르고 있었다. 송골송골 솟은 땀방울들이 합쳐서 주르르 내리다가는 멈춰지고 그다음에는 등골으로 락수물처럼 흘렀다. 구리빛으로 탄 잔등이 땀에 젖어 번들거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힘을 줄 때마다 역센 근육이 불끈불끈 살아났다.

잠시 지배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주학민은 전쟁참가자노라고 으시댔던 자기가 이 장대한 사나이에 비하면 아직 철부지라는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없이 썩썩 줄칼질하는 지배인이 한없이 돋보이며 친근감마저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채말했다.

지배인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더니 줄칼을 내주었다. 그러나 인차 가지 않고 뒤에 서서 그가 줄칼질하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돼. 다리를 비스듬히 벌디디고 옷몸의 힘을 두팔에 주면서 힘있게 밀어야지.》

말은 범상했으나 가슴속깊이 스며든 지배인에 대한 친근감으로 하여 주학민은 깊은 뜻을 받아 안는것 같았다.

그것은 주학민이 로동하는 자세를 처음 배운 것이었다.

《그래 그다음엔 어떻게 되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학민이 요약하여 말씀드린 사연을 들으시고나서 서운병에 대해 새로운 무엇을 더 알고싶으신듯 다우쳐물으셨다.

《몇달후에 벽찬 건설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저의 소원대로 청년돌격대에 보내주었습니다. 직장장이 반대하는것을 누르고 손수 추천하여...

저는 거기 가서 중대장으로 일하다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요. 동무에게 생활의 첫걸음을 옮겨 이끌어준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 ...

그러니까 동무가 더 잘 도왔어야지. 기술로나 실무로나 앞선 지도일군이 되었는데 왜 도와주지 못하고 파오를 범하게 했소. 이따금 만나 결함을 깨우쳐줄수 있지 않았소.》

차근차근 타일러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주학민은 가슴이 뜨끔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신이 옛 지배인앞에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 아니 그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군이라 하여 믿어주시는 그 높은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었는가. 이제껏 다난한 사업들에 몰려 의식조차도 못했던것이 그이의 이 말씀을 듣자 순식간에 살아났다.

《물론 늙으면 고집이 세지오. 그러나 남의 말은 안들어도 각별한 사이인 동무가 진정으로 하는 충고는 들었을것이 아니요. 그래 몇번이나 만나보았소?》

주학민은 자책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기관일군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도내에는 이미 수많은 공장들, 기업소들, 각종 규모의 생산협동조합들이 있었다. 그는 그 많은 대상의 지배인들, 기사장들과 사업하게 되었다. 서운병지배인은 날과 밤 있게 일을 제끼는 이 젊은 총국일군이 자기가 한때 꾸지람했고 그다음 돌격대로 추천하여 보낸 청년이라는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간직하고있던 주학민은 처음 그것이 조금 서운하였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다.

과거보다 현재는 몇십배 복잡하고 벅찬 시절이였고 사는 보람도 있는 때였으니, 그는 시간이 바빠 단돌이 앉아 각근히 이야기들 나눌 기회를 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서운병은 차차 회의장에서 때로는 평가, 때로는 추궁을 받는 수많은 지배인들, 기사장 들중의 한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몇년후에는 이름도 잊고 그저 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으로만 표상에 남았다. 지도검열사업을 책임지고 공장으로 내려갈 때에야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저주저하며 입을 못벌리는 주학민의 모습에서 순간에 모든것을 깨달으신듯 공장구내로 눈길을 돌리시며 물으시었다.

《그래 한번도 담화가 없었던말이요?》

《사고심의할 때에야 겨우...》

《사고심의라… 무데기도 불러다 따지고 추궁하는 그거야 담화가 아니지. 그래 여하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날은 무슨 이야기를 했소?》

주학민은 이번에도 역시 말씀드릴수 없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서들을 따지면서 하도 바쁘게 사람들을 번갈아 불러 들었으니 기억에 남아있을리 없었다.

인상에 남은것은 오래간만에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옛 지배인의 모습이 20년전 땀에 젖어 번들거리던 구리빛의 역센 체구와 교차되면서 20년을 가져다주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뭐라 표현할수 없는 서글픈 생각과 파오로 인한 고민으로 하여 채빛으로 흐려진 서운병의 눈을 보는 괴로움 그리고 어차피 이미 결말이 결정되어있는 답답한 담화를 빨리 끝내고싶은 초조감뿐이었다.

밖에서는 그외에도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테지.

사고의 원인, 기술일군들을 무시한 독단, 책임한 제…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딱딱한 실무적인 처리요.》

그이께서는 대답을 오래 기다릴것도 없다고 생각하신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총국장동무, 지도일군이 되면 생활의 보통류리도 외면하고 살아가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소? 아니요. 지도일군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뜨겁게 대하고 그 생활류리를 혁명적의리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개념으로 리해하고 체현해야 하는것이요.》

그이의 목소리는 차차 엄해져갔다.

무엇인가 더 주학민에게 말씀하려다 마시고 천천히 나무들 사이로 걸기 시작하셨다. 아침이슬에 추근해진 땀이 그이의 발밑에서 다지워지는듯이 보였다.

주학민은 더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아 머리를 숙이였다. 마음을 녹잡히기 어려우신듯 그이께서 걸음을 옮기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사업에 대한 회오로 고개들 들수 없었다.

《그래 해임된후 윤병동무가 고민하지는 않았소?》

잠이 말없이 거닐기만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비서를 돌아보시며 물으셨다.

《별로 나타나지 않는곳에서 일하기때문에…》

당비서의 대답에는 시원스레 말씀드리지 못하는 송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렇지만 일은 성실하게 하고있습니다. 실패했던 그 창의고안을 완성하려고 공장에서 살다싶이 합니다.》

《사고를 났던 거기에 또 손을 댔단말이요?》

《예, 사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로라의 압착능력을 높이는 그 한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운병동무도 내밀어 보았던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 윤병동무가 기본고리를 쥐긴 쥐였군. 그래 기술자들은 붙여주었소?》

총국장동무는 열을 방지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네, 집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문제의 출로를 찾았습니다. 가속기식 공기팽각장치를 만들어 붙이자는것입니다. 가는 판에 바늘귀 같은 구멍을 두줄로 뚫고 거기로 찬공기를 뿜어주는것입니다.》

서운병동무가 착안해냈습니다.》

《윤병동무가? 그럼 앞이 내다보인다는 소리겠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음이 초조해지시는듯 숨을 길게 내쉬시며 물으시였다.

《네, 조금만 더 연구하면 완성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라문제가 풀려서 생산이 앞으로 계속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젊은 당비서를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우신듯 걸음을 멈추시고 뒤집을 지으시며 로라직장쪽으로 눈길을 돌리셨다.

《윤병동무가 착안했단말이지, 윤병동무가. 그러느라니 오죽 고심했겠소… 나는 윤병동무가 그러리라고 믿었소. 어떤 초소에서든 변심 모르고 일할 당원이라고… 총국장동무, 동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당비서의 말을 들으며 주학민은 깜짝 놀랐다. 강관압연기에서 팽각수를 사용하는것과는 달리 비닐판로라에서는 물을 쓸수 없다는 한가지 생각에만 매달린 그는 다른 방도를 찾을념을 앓고 기술자들이 제기한 새 설비 공급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것이다.

《그럼 모르고있었던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색이 근엄하여 지시였다. 잠시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떨구고 선 주학민을 바라보시였다.

《가는 판에 바늘귀같은 구멍을 뚫은 팽각장치! 총국장동무, 아마 기술자인 동무가 머리를 썼더라면 이런것은 쉽게 착안해냈을거요. 서운병동무를 도우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하여 사고도 만나게 했을거요.》

동무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소? 서운병동무처럼 생산에 대해 안타까와하고 책임지려는 립장이 없었기때문이요.

생산이야 몇달 더 애를 먹건 말건 우에다 설비를 제기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기때문이요. 서운병동무가 그때 왜 내밀었겠소. 동무가 이것을 생각해본적이 있소? 동무는 그의 파오만 보았지 량심은 못보았소. 그가 왜 기술집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겠는가. 그가 모든것을 각오하고 하지 많으면 안되었던 그 깊은 심정을 조금이라도 파 보았더라면 티없이 맑은 당원의 량심을 보았을 거요. 그래 그가 지배인으로서 책임을 다지고 자리를 내놓겠다고 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았소? 공장을 이렇게 꾸리느라 아글타글 애쓰며 고생한 그가, 이 공장 매 건물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손자취가 남아있는 윤병동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말이요.》

주학민은 눈앞이 아찔했다.

그이 앞에 선 지금에야 자신이 저지른 파오가 얼마나 엄중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깨달으며 발밑의 땅이 꺼지는것 같았다.

《물론 그는 파오를 범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오. 그러나 윤병동무는 우리 당의 30년력사에서 핵심으로 살아온 당원이요. 동무가 어릴 때에 그는 산업국유화법령을 지켜 싸웠고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쉽지 않은 길을 변심 모르는 충성심으로 수령님을 모시고 걸어온 사람이요...》

비록 파오는 범했어도 그 량심은 파오보다 백배로 귀중한거요. 더럽혀진 량심은 건질수 없어도 파오는 시정할수 있는거요.

그래 우리가 파오때문에 그 깨끗한 량심마저 보지 말아야 하겠소. 동무가 공부를 했기에, 그보다 아는것이 더 있다고 해서 혁명의 선배들에 대해 그렇게 대해야 하겠소. 동무도 언젠가는 늙소.

동무보다 더 배운 사람이 동무의 사업을 지도하게 되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데 동무와 같이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의리에 대해 말할수 있겠소.》

《친애하든 지도자동지, 제가...》

주학민은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지 못한채 입을 열었으나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옆에 선 도당책임비서도 주학민 못지않은 깊은 회오에 잠겨있었다.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습니다. 서운병동무문제를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동무들의 결심에 나도 동감이요.

윤병동무가 지금 60이 좀 넘었을것이요. 그러나 아직 10년, 20년은 더 일할수 있을것이요. 하

긴 지금도 지배인의 심정으로 생산을 걱정하고 있지 않소. 지금의 노력을 어찌 자기 파오를 씻으려는 개인적인 결의에서 온것이라고만 보겠소.

당비서동무, 로라직장으로 갑시다. 윤병동무가 착안한 랭각장치를 나도 보고싶소.》

그이께서는 당비서의 등을 밀며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앞장서 몇걸음 걸으시다가 말뚝처럼 선 주학민을 돌아보시었다.

《동무도 갑시다. 동무도 제눈으로 윤병동무가 해놓은 일을 보는것이 좋겠소. 그래야 돕지 않겠소.》

학민은 초연히 고개를 떨군채 그이의 뒤를 따랐다.

가시는 길에 그이께서는 문득 생각이 나신듯 당비서에게 물으시었다.

《지배인동무 건강이 요새 어떻소.》

《그저 그런대로...》

당비서는 얼버무렸다.

《병원에 가오?》

《그전에는 좀 가기도 하던것이 요사이에는 아무리 권고해도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끝을 맺지 못하는 당비서의 말을 들으시며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었다.

《파오를 범하고 무슨 체면에 하는 심정이겠지.》 그이를 따라 넓은 로라직장에 들어선 주학민은 더 걸음을 옮길 용기가 없었다.

한가운데 비스듬히 놓여있는 번들번들 윤기나게 닦은 기대오톨의 작업대우에 서운병이 허리를 꺾어부정하고 마주 서있었다. 랭각장치가 분명한 기구를 해체해 놓고 부속 하나를 열심히 연마하고있었다. 펍 정밀한 일인듯 부드러운 연마마지로 조심조심 축을 닦다가는 마이크로메타로 치수를 재보군했다. 밤을 새워 눈에 피발이 서고 터슬터슬해진 엄지손가락은 천오래기로 감았다. 이제는 눈도 전과 같지 않은지 정밀한 치수를 헛볼가 이마살을 모으고 눈금에 정신을 집중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움직이실 줄 모르고 그가 눈금보는 모양을 보시고계시었다. 주학민은 그이의 안광에 한없이 따뜻한 정이 어리는것을 느끼었다. 수령님께 충직한 당원, 로쇠를 이기려 애쓰며 한생을 살고있는 이런 당원에 대한 자부심이 그이의 얼굴에 비끼고있었다. 하지만 그이의 안색은 다시금 흐려지셨다.

주학민은 인차 그 까닭을 깨달았다.

서운병은 그사이 펍 수척해진것이였다.

눈이 꺼져 들고 새 주름살이 이마에 깊이 패어진 컴컴한 얼굴에는 그늘이 짙어있었다.

주학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달라진 서운병에게서 옛모습을 찾아보시고 계신다는것을 감촉했다.

당비서가 급한 걸음으로 옆에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배인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습니다. 지배인동지를 보러 오셨습니다.》

서운병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다가 당비서가 가리키는 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이 눈에 어린 순간 그의 손에서 마이크로메타가 떨어졌다.

그는 저고리앞섰으로 두손을 흠치며 황망히 달려나왔다. 그러다 무춤 못박힌듯 멈춰섰다. 천천히 머리를 숙이였다. 깊이 떨군채 깔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두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으시며 머리를 들게 했을 때 서운병의 주름진 볼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눈에도 물기가 어리시였다.

《보고싶어서 왔는데 왜 이럽니까.》

그동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을 잘 꾸리고 로라능력을 높이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대견하신 어조로 말씀하시고나서 랭각장치를 어떻게 완성해 가려는가 물으시였다. 서운병은 눈물을 흠치며 설명하여 드리였다. 주학민은 몇마디 듣지 않고서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되어있다는것을 느끼였다.

기대우에는 기름때묻은 두툼한 마분지로 뚜껑을 씌운 책이 놓여있었다.

《기술공학》

주학민은 기계적으로 그 속표지를 읽었다. 이제는 아득한 옛날로 생각되는 대학시절, 머리회숙한 로교수의 강의를 받으며 공부하던 책이였다.

시험과 실습과 노래로 즐겁던 대학시절이 지나 학교를 떠나기전에 해묵은 교과서들을 정리하면서 첫머리공부가 왜 그리 힘들었던가고 다시 펼쳐 보며 머리쥐어 뜯던 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던 책이였다. 서운병에게도 역시 지금이 어려운 고비인듯 군데군데 색연필로 밑줄을 긋고 또 그은 책장들이 벌써 보풀이 일어있었다.

깊은 밤 기대옆에서 작업등밑에 책을 바싹 들여 대고 남모르게 교과서를 읽었을 서운병의 모습을 그리며 주학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교과서를 들고 굳어진듯 선 주학민에게 눈길이 미치였다. 주학민은 뜨겁게 치솟아 오르는것을 억제하며 교과서를 내렸다.

그이께서는 어지러운 손가락자리들이 드문이 난 낡은 책장을 천천히 번지시였다. 폐지마다 복잡한 공식과 법칙들을 독파해 나가느라 기울인 서운병의 노력의 자취를 헤아려 보시는듯 손길이 가볍지 않으시였다.

《공부를 하는군...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는 그사이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기술을 무시하고 독단을 부리다가... 그만...》

서운병은 머리를 떨구고 말끝을 맺지 못했다.

《다 알고있습니다. 하느라면 과오도 범할수 있을데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잘못은 깨닫고 이렇게 배우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윤병동무가 공부를 하는것이 제일 기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이제는 기술을 모르고서는 일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병동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병치료는 왜 안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무라시듯 말씀하시였다.

《너무 무리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축났습니다. 후퇴시기 다친 허리 상처가 또 도졌지요.》

그이께서는 서운병의 허리를 어루만져보셨다. 무엇인가 더듬어지시는듯 손길이 멈춰지더니 일순 찌르는듯한 아픔이 눈길로 달리시였다.

《붕대를 감고 나와 일하다니... 이렇게 무리하면 무쇠인들 견디겠습니까.》

그이의 목소리가 갈리시였다.

《전 일없습니다. 전...》

《수령님께서 동무 이야기를 이따금 하십니다. 우리 당의 첫 당원들에 대하여, 그때부터 같이 걸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자주 추억하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운병의 허리에 서 손을 떼지 않으신채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제 동무가 한 일을 말씀드리면 수령님께서 기뻐하실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을 혹사한 동무를 보시면 몹시 가슴아파하실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얼마나 동무를 아끼고 계시는지 압니까.》

서운병은 눈물이 더 뜨겁게 흘러내리였다.

《지배인동무, 10년전보다 늙었습니다.

이제는 더 늙지 마시오. 늙지 마시오.

마음을 젊게 가지면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전이나 다름없는 마음으로 공장의 주인이 되어 일을 잘해주십시오. 옆에서 다 도와줄겁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혁명작업이 있습니다.

병치료를 하십시오. 꼭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네... 병원에 가겠습니다.》

서운병은 눈물을 흘치였다.

《당비서동무, 이제부터 지배인동무의 건강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책임지고 돌보시오... 자, 내가 여기서 너무 지체한것 같소. 하긴 이렇게 늦어지는 시간은 하루에 열두번 있어도 싫지 않겠소.

하지만 저쪽에서 일이 기다리니 어찌겠소. 다시 만납시다.

그때에는 건강한 지배인동무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제까지의 어둡던 그들이 흔적없이 사라진 밝은 안색으로 서운병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알지 마시오. 오늘중으로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차에 오르시던 그이께서는 옆에 머리를 숙이고 선 주학민에게 눈길이 머무시었다.

엄하기는 하나 자애로운 빛이 서린 눈길이었었다.

《주학민동무, 나는 동무가 오늘의 교훈을 가볍게 잊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오.

동무가 제기한 설비는 필요한것들이니 다 해결해주겠소. 하지만 동무는 기계설비보다 사람을 먼저 볼줄 알아야 하오. 그렇지 못한 일군은 가슴에 피가 끓을줄 모르고 격식과 틀에 얽매인 기계처럼 되어버리오.

차거운 기계로 된다는것은 얼마나 슬픈일이요 지배인동무를 잘 도와주시오. 그것이 참다운 혁명적의리이며 동지애라는것을 잊지 마오.》

그이께서는 눈물에 젖어있는 주학민의 손도 가볍게 잡아주시었다.

해빛이 비치고 차차 걷히는 안개속에 더 정갈하게 드러난 구내길로 그이의 승용차가 사라진

뒤도 주학민은 오래도록 서있었다. 이제야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어째서 여기까지 더리고 오셨는지 그이의 뜻이 헤아려졌다. 자신의 그릇된 관점과 처사를 그이께서는 얼마나 준절하게 타일러주셨는가.

이윽고 그의 발길은 저도 모르게 공장의 옛 건물, 수완성작업반으로 향해졌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이 닿았던 줄칼을 집어들고 생각에 잠기었다. 언제 그가 이 줄칼을 손에서 놓았던가. 언제 여기에 다시 와보았던가. 떠난후 근 20년만이 아닌가.

왜선지 지배인을 마감으로 만났던 그 《담화》가 다시 떠올랐다. 그때 자기의 거북함, 어서 끝내버리려고 서둘던 조바심...

자신은 얼마나 가혹하게 사람들을 대했던가.

성실한 한 당원이 그토록 뼈아픈 번민을 남모르게 이기며 고된 밤을 새우게 하고서도 한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이따금 앓는다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늙은 지배인 이라고만 여겼지 준엄한 시절에 입은 상처로 괴로와하는 로병사인줄은 알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가 해임을 요청했을 때 늙고 병든 서운병에게는 차라리 그것이 편안한 길이라고, 늙은 사람이 물러나고 새 사람이 그자리에 서는 것은 당연한 리치라고만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문득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지배인, 20여년전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던 지배인이 그때처럼 뒤에 서있었다. 비록 늙었어도 당원의 량심만은 로쇠를 모른 그가 생활의 교사로 뒤에 서있었다.

그는 가책으로 가슴 헤집어져 서운병의 눈을 마주볼수 없었다.

과연 지배인이, 아니 생활이 그를 용서하고 믿어줄것인가.

순간 그는 문건이나 전화가 아니라 사람들속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그것을 깨우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념려와 우애가 담긴 말씀이 마디마디 귀전에 생생히 울려 오며 새출발의 용기를 가지게 하였다.

흐르는 날과 날마다

김종원

다는 헤아릴수 없구나
흐르는 날과 날마다
인민 위해 하시는 일
산과 같아
펼치면 대양과 같아

나라의 크고 작은 천만가지 일
그이의 사색에서 시작되어
그이의 손길에서 열매로 익어
내 다 헤아릴길 없는것인가

백두의 밀림속을 걸으면
우리 가는 답사의 길 앞서
먼저 그이께서 새기신 자욱이 있고
갈매기 춤추는 바다초소에 가면
작은 배로 헤치신 그 배길도 있구나

내가 올린 한편의 작은 시도
밤 밝혀 다 보아주시여
가슴엔 기쁨이 샘처럼 넘치는데
이 아침엔 또 불안개 차거운
갑문언제우에 서계시니
뜨거운 이 마음엔 감격이 넘치고

가을이 무르익은 포전길을 걸으면
처녀분조장은 외우더라
그이의 손길이
여기 시험포전의 흙을 비비셨다고
명중탄 들썩우는 사격장을 찾으면
머리 희끗한 장령은 말하더라
그이께서 이 좌지에서 시범사격을 하시였다고

구름우에 빛나는 창조물을 우러르면
눈시울 뜨겁게 어려와라
로동계급의 금별메달

인민의 땀과 지혜
세상에 빛내주시는 그이의 사랑

진정, 불러 기쁨넘치는 한소절의 노래
이미 그이께서 들어주신것이여라
행복에 겨워 내 여는 창문
애들의 문양고운 꽃옷
이미 그이께서
살피시고 골라주신것이여라

아, 끝이 없으시여라
우리의 지도자동지께서
인민 위해 하시는 일
나라 위해 하시는 일

어이 다 말하랴
이 땅 한가득
그이 하시는 일로 차고
그이 바치시는 시간속에
백년세월이 당겨지는데

정녕 그이 하시는 일
꽃피는 우리 생활의 전부
마중오는 황홀한 래일
이 땅 이 세상에
열매맺고 전진하는 모든것이거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흐르는 날과 날마다
천만가지 일 인민 위해 바치시기에
그이 자욱따라 80 년대의 기적
시기의 상상봉에 나래치는것이구나
억만가지 일 나라 위해 다 바치시기에
세상 으뜸의 공산주의락원
우리는 남먼저 마중하는것이구나

시중호반의 새벽

구희철

하얗게 물안개 떠올라선
서서히 걷히는 물결우에
호수가의 휴양각들
고요히 비끼는 시중호반

미리 안개속 어디선가
풀뜬던 송아지 영각소리
감싼 숲새들의 지저귀
물위로 방울방울 굴러가는 새벽

새별은 사라졌건만
단하나 날 새도록 꺼질줄 모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계신
휴양각 창가의 밝은 불빛

현지도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
단 하루밤만이라도 쉬여가시라고
간절한 마음들이
시중호 휴양각에 모시였건만

쉬어서 가시는 이 한밤조차
호수가를 인민의 휴양지로 꾸리실
그 한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버이수령님 바라시는대로
시중호휴양지를 꾸리자고
휴식터도 하나하나 짙어가시며
이렇게 맞으시는 새벽이어서

불빛을 바라보는 내 마음
갑절 더 뜨거움에 젖고
바라보며 생각하니
눈길은 더더욱 후더워져라

좋은 휴양소의 이 한밤은
먼길의 피로를 풀며 보낼수 있으시련만
문 열면 호수가에 번뜩이며 꼬리치는
살진 잉어도 낚을수 있으시련만

오, 자연의 아름다운 이 모든것
즐기셔야 할 그 모든 기쁨
인민에게 다 안겨주시며
먼 후날로 휴식을 미루시는 지도자동지!

불빛은 꺼질줄 모르고 빛나고
내 마음은 불빛따라 달리고
뜨거운 맘, 목메이는 생각
걸음을 못 옮기게 하는 호반의 새벽이여

어제는 우리 수령님
오늘은 우리 지도자동지
대를 이어가며 꾸려주시는
사랑의 호수 시중호반이여!
너는 얼마나 더 아름다와질것인가

설레이라 시중호여!
천년만년 먼먼 래일까지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이 닿은 너의
기슭
변하고 또 변할 그날을
기쁨속에 그려보고 안아 보며

안개는 걷히고
해는 떠오르고
그래도 나는 호반을 걷는다
그 불빛 못잇을 그 불빛!
친애하는 그이의 모습처럼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줄 몰라서

언제나 생각하는 마음

김 선

내 어린시절
작은 그릇에 쌀밥이 차례졌을 때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더라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나?
어머니는 나의 머리 쓰다듬어주며 대답했더라
-오늘은 너의 생일이란다
그러자 어린 오빠 투덜대는 말
-씨, 오늘이 내 생일이면 좋겠네
어머니는 그때 가늘게 한숨지으며
내 작은 그릇의 쌀밥 한술갈 떠서
어린 오빠의 죽그릇에 얹어주었더라

눈내리는 겨울
내 몽당치마 빨고
오빠의 단벌옷도 빨아 기울 때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더라
-어머니
나랑, 오빠랑 어디에 가나?
그때 어머니는 눈물 머금고 대답했더라
-래일은 설명절이란다

설날아침
나와 오빠한테만 차례진 쌀밥
우리 오누이만 빨아다 린 옷 입었을 때
현옷 걸치고 갱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두고
술뭇들고 눈물짓는 어머니에겐
나는 물었더라
-아버지와 어머니
생일날도 없고 명절날도 없나?
어머니는 시름겨워 대답했더라

-앞으로 잘살게 되면
그때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생일날이 생기고
명절날도 생긴단다

아, 그 부모님들 오늘 이 세상에 없고
나는 행복한 가정의 세아이 어머니되었으려라
명절날 세아이 똑같이 선물을 받아안고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고맙습니다!
밝은 방에 모신 초상화에 인사드릴 때
아, 이 가슴에 넘쳐나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고마움이여

고운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날이 생일이고 명절이라 생각한 우리들에게
날마다가 명절인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시고
정녕 참된 기쁨을 안겨주신
어머니당의 넓은 품이여

나는 너무도 쉽게 올라섰구나
이 세상 가장 높은 사랑의 높이에
내 언제나 받아안은 사랑의 높이에
내 충성의 높이 너무도 따라서지 못했구나

아, 평범한 날에 받아안은 사랑 너무도 높아
평범한 날에도 내 생각 이리도 깊어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랑의 높이는 언제나 저 태양의 빛발속에 있구나

전진하는 문학대오의 기수가 되겠다

리수립

새해를 맞으며 마음속깊이 생각하게 되는것은 어떻게 하면 당의 문예리론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모든 과학리론일군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저는 올해에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해설선전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미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활동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려낼수 있는 총서 《불멸의 력사》형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저는 이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 사상과 리론을 해설하는 글로써 훌륭히 완성하여 내놓겠습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들어잡고 충성으로 부르

는 불멸의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이 명작들의 불후의 사상예술적내용을 해설선전하는데 너무나도 한 일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거대한 문학사적 의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한 책을 금년안으로 완성하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은 전진하는 문학대오의 기수가 되여야 하겠다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시문학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폭과 서정과 무게를 가진 작품으로 완성될 때 당의 의도를 옹계 구현할수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넓은 진폭과 서정성, 철학성을 결합한 혁명적서정시를 탐구하는 방향에서 우리 시문학실천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겠습니다.

할일이 많은만큼 새해의 나날을 더욱 긴장하고 완강한 사색과 노력속에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당의 신임과 배려속에 살며 일하는 저의 심장의 맹세입니다.

새해, 새 결심

문동식

새해

새 결심

새 출발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고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시인으로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어떻게 빛내일것인가?

조국은 해마다 그 자랑스런 로정우에 전변과 위훈의 탑을 세워놓고 력사에 빛내입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진하며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속도는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적인것입니다. 이 약동하는 조국의 품속에서 당의 자양을 한껏 흡수하며 자라난 시인, 그는 마땅히 당의 목소리로 읊고 노래하는 당의 아들, 당의 시인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당이 바라고 부르는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제일먼저 달려가는 충성의 전위, 시인의 하루하

루가 그런 충성의 열정으로 불탈 때 빛나는 조국에 한줄기 빛이라도 보탬을 줄것입니다.

새해 1984년은 우리 당 제 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 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올 해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축적해나가며 현실속에서 사색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저는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르시는 5개지구전선에서 충성의 전투를 벌리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영웅적투쟁과 양양된 사상감정을 노래한 전투적이며 서정적인 시작품들을 힘껏 창작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속에서 기량제고 학습도 생활체험도 시적탐구도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 어제날 로동자였던 저를 시인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답하겠다는것을 굳게 마음 다지게 됩니다.

진군 하는 대오에 힘찬 노래를!

류민호

새해는 벽찬 우리 시대 문학의 전진운동에 발걸음을 맞추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몇배 더 분발해야 할 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는 저에게는 우리 당의 작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빛내여 나아가는가 영영 락오자가 되고 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앞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저의 가슴은 충성의 한길에 창작적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어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작가라는 높은 영예를 빛내여 나갈 굳은 결심으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작가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해놓은 일이 없는 제가 작가로서의 새해 창작결의를 지면에 발표한다는것자체가 어찌 보면 도리에 어긋나는것 같은 감이 듭니다.

하기에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항용 그러하듯이 저도 남들이 1시간 일하면 2~3시간씩 더 얻어내어 못한 일을 봉창하고싶은 욕망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새로운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은 무겁고 방대합니다. 온 나라가 장엄한 진군을 시작한 이 아침 저의 심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진군하는 대오에 힘찬 노래를 안겨주리라! 우리 인민의 걸음발에 힘이 되는 그런 전투적인 가사를 더 많이 창작하여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안겨줌으로써 저의 본분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이해에는 정녕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의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만을 안고 의리를 지킬줄 모르는 그런 전사, 그런 작가가 결코 되지 않기 위하여 쓰고 또 쓰며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새 가극창작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더욱 뜨거운 충성심으로 불 타게 하며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나의 집

최창근

부채살 햇빛
줄줄이 무늬짜고
구슬꺾미 별천지
여울치는 창가

내 식구 열쌍의 눈
부시도록 반겨주는
저 구름밑 푸른 로대
밝은 창이 열리면

옛말속 그 집인가
꿈속의 그 집인가
불수룩 황홀하여
눈앞이 흐려 오는 집

이 집이 나의 보금자리 아니던가
불빛이 안개처럼 퍼져 흐르는
호젓한 강기슭을 거닐며
생각 깊어라
차레진 행복이 너무나 아름답아서
열백번 다시 쳐다보는
아, 화력발전소로동자의 불밝은 집이여!

우리 수령님
땅위에 행복의 뿌리인양
만년초석으로
지심깊이 터 닦아주시고

우리 수령님

보석기둥 숲처럼 세워
하늘닿도록
은빛지붕 없어주시고

우리 수령님
집들이 전에 먼저 오시여
이사올 식솔들을 헤아리시여
일만가지 세간살이 차려주신 집

그때문에, 그때문에
하늘높이 번쩍거리는 나의 집을
온 세상이 다 쳐다보라고
나는 제이름 석자 문패대신
심장의 글발 새겨 모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녀가신 집》

아, 우리 수령님 어버이로 모신
나의 집
우리의 집
락원의 거리여

공산주의 먼먼 미래에도
빛을 잃지 말라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세상의 모든 빛을 다 담아, 사랑을 담아
《창광거리》라는 밝은 이름지어
해와 별 가까이에 높이 세워주셨나니
아, 나의 집, 우리의 거리여...

우리는 혁명의 전위

차명문

탄광이라 광산
공장이라 제철소
풍년나락 가꾸는 전야이라
높은 어획고를 다루는 포구마을
그 어디나 서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원
젊음에 넘치는 숫된 청년, 애어린 처녀

먹은 나이 없어
부모들도 아직은 마음 못놓을 우리
배움의 전당에서 마음껏 배웠길래
그 고마움에
보답할 결의만이 넘치는 우리

아버이수령님 펼치신
3대혁명소조운동
첫걸음을 떼는 그날에 벌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를 두고
《혁명전위》, 《투쟁의 기수》라 불러주셨어라

3대혁명소조운동의 첫기슭을 떠나
기나긴 10년세월 오늘까지
교대와 교대를 이어가며
그 어느때 어느 순간에도 잊어본적 없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우리 마음의 의지이고
진할줄 모르는 힘의 원천, 투지의 샘터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어
부닥치는 난관도 웃으며 맞서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벗이 되고 힘이 되나니

기적이 나래치는 생산전투장마다에서
우리는 창조와 혁신의 불씨로 타오르나니

버림받아 썰물에 떠가던 부산물도
옥으로 걷어들일 줄 아는 알뜰한 살림꾼
제철소 구내벌에 훔날려가던 폐열도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병원
아니 온 마을에 사랑의 열로 돌려
거리를 일신시킨 미더운 주인
자력갱생 간고분투속에
조국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가는
우리의 주인된 틈틈한 모습들
그것은 과연 당중앙의 사랑이 키워준 보람
한없는 믿음이 낳은 자랑찬 열매가 아니더냐

이렇듯 우리 젊은 나이에
당이 준 영예와 보람 마음껏 펼치며
더 바란것 없었거니
있다면 오직 한마음
죽어서도 사랑의 품에서만은 떠나지 않으려던
김박명, 서옥순, 김형찬, 문영숙
그들처럼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영원한것
그네들처럼 죽어서도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것

진정 그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는 로동계급의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날로 튼성하는 조국의 찬란한 력사우에
영광으로 빛나는 이름, 영원한 청춘
오, 우리는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

《거 <영미향>이라 있잖아요. 아름다운 향기가 영원히 풍긴다는 <영미향> 말이에요. 처마밑에 물고기를 대롱대롱 매여단 그 큰 점방 옆집이에요. 아름다운 향기가 영원히 풍긴다는 <영미향> 말이에요.》

《영미향, 영미향.》

장선생은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버릇처럼 손가락끝으로 내리슬며 생각을 굴렸다. 분명 처마밑에 동으로 만든 물고기를 달아맨 검은색 벽돌집이 오씨네 둘째 아들의 전당포라는것은 기억에 생생했다. 그러나 그앞에서 늘 검정개 몇마리가 다가서는 거리지뎌들을 삼키려는듯 으르렁대던것은 생각나도 그 옆집에 《영미향》이란 아담한 차집이 있고 또 그 차집의 소월이라는 예쁜 하녀가 아침 일찍 문턱을 앞치마자락으로 툭툭 털며 《뜨끈뜨끈 한 차를 드세요. 네, 값죽은 홍차를 들랴요. 훈훈한 차, 웃음을 안겨줄 차를 들랴요.》라고 웨쳐 대던 생각은 나지 않았다.

몇번 곱씹어 외워 대는 현씨댁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현실처럼 눈앞에 그럴듯한 환각을 안겨주나 량심적으로 말하면 정말 생각나지 않았다.

《뭐? 몰랴요. 아유 거 발이 외씨같이 곱다고 했는데. 또 남들보다 덧이 하나가 웃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 박속갈다구두 했다우.》

현씨댁은 눈방울만 데룩데룩 굴리는 장선생이 어이 없다는듯이 자기 덧이까지 내보이려고 입을 뻐쭉 거렸다. 마치 북천향에서 《영미향》을 모르는것은 밥을 먹고도 쌀알을 못보았다고 한것 같이...

말하기 지쳐버렸는지, 아니면 자기를 몰라본다고 성이 났는지 현씨댁은 입은 다물어버렸다. 처음엔 그래도 쪼글쪼글 주름이 간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더 말할 의향이 아직 있다는듯 머뭇머뭇하더니 몇분후엔 《푸-푸-》 하고 입술을 내쉬며 깊은 잠에 폴아떨어졌다.

장선생은 저도 모르게 걸상밑에 데룽데룽 매달려 차바퀴의 진동과 함께 두르르 떠는 현씨댁의 자그마한 《외씨》 같다는 발을 보았다. 언젠가 그 발때문에 애처로운 눈물로 옷자락을 적셨고 또 언젠가엔 그 발때문에 미인으로 불리웠을 그 작디작은 발, 벌써 기억속에서도 아득히 사라졌던 그 《종발》을 보는 장선생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후, 세월이 세월이지, 벌써 세대가 바뀌지 않았는가? 봉건유습이 낳은 마지막 유물도 멀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속에 옛말로만 남을것이다.)

그러노라니 자연 마음이 서글퍼진다.

갇은 풍상속에 자그만치 반세기가 흘렀지.

북천향에서 십년을 자란 내가 유명했다는 《영미향》을 몰라본다고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늙었으니, 이젠 누가 나를 알아보겠나. 기억조차 못할테지...

얼결에 창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니 수십년전, 어슴푸레 기억속에나 살아남아있는 큰아버지 모습이 방불해와서 장선생은 헛기침을 뉘번 하고는 창밖에로 시선을 보냈다.

얼어붙은 창문안 유리에 비오듯 물방울이 줄줄 흐르는것을 보니 밖의 날씨가 퍼그나 차보였다.

북방의 봄이란 얼마나 늦게 오는지... 여우도 추워서 눈물 흘린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핵핵 뒤로 물러가는 벌거숭이 나무들 사이로 무연히 펼쳐진 무평벌이 보이는데 여기저기 희끗희끗한 눈더미들이 쌓인 멀리 뻗어간 외통길에서는 번들번들한 언땡이 차거운 해빛을 반사하여 반짝인다.

가로세로 줄간 땡기발들엔 거뭇거뭇한 두엄무지들이 솟아났는데 거기에서 피여오르는 흰 김은 철과 유리로 완전히 외부와 인연이 끊어진 이 차칸안에도 마치 구수한 봄의 훈향을 실어다 주는것 같았다.

덜커덩, 차가 철교를 넘어서느라고 들지는 바람에 자그마한 창탁우에 세워놓았던 담배꽂이 펄쩍 뛰어서 발밑에 곤두박질해 떨어진다.

《에이, 발을 좀 치우구려.》

《애구, 방금 잠이 들었는데. 에이 또...》

현씨댁은 《외씨》 같은 발을 움츠리며 웅알거린다. 벌써 잠이 든지 한시간도 넘었겠는데...

장선생의 생각은 또 멀리 흘러가는 산발을 타고 굴러간다.

어디를 보나 낮익은 땅이고 또 낯설은 땅이었다.

아직 벼단키보다 작을 때 부모를 따라 이 산설고물선 이국땅에 첫발을 들이밀고 만주광야에 안다녀 본곳이 어디메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무평벌을 가면서도 어머니 입에서 땅이 없다는 하소연을 귀따갑게 들어왔고 누렇게 익어 일렁대는 벼이삭에 눈이 찔려 피발까지 돋혔건만 쌀이 없어 밥을 못해준단 눈물젖은 걱정을 속상하게 들어오면서 뭐가 된지 잘 모르다가 그해 부모를 따라 용림시에 이사와서야 모든 세상만사가 확 한눈에 알려지듯 말귀를 알아 듣게 되지 않았던가...

(용림시, 용림시라.)

장선생은 부랴부랴 주머니를 뒤졌다.

주머니에서 네귀 접은 깨끗한 종이장이 장선생의 손에 대이어 기분 좋게 빨각거린다.

장선생은 수십번 펴보고 넣어 두었던 종이장을 눈앞에 다시 펴들고 돈보기를 걸었다.

《장일환선생, 본월 초칠일 용림역에서 기쁜 상봉을 기다림 옛 친우 민영아.》

《영아, 민영아. 정말… 정녕, 영아란말인가?! 인젠 백발이 성성하겠는데. 어데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응?!》

가슴쓰린 애수가 온몸을 휩싸며 주르르 눈물이 흘러 떨어져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놓는다.

(아니, 이거 장일환이가… 내가 아니고 또 다른 장일환이가 아닌지, 북천향에 산 사람치고 동성동본이 얼마나 많게…)

차를 타고가는 이 순간에도 모든것이 일장춘몽처럼 깨여질듯한 위구를 느끼면서도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게 인간이 아니겠는가?

장선생은 혼자 두런두런 중얼거리다 한숨만 폭 내린다.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는데, 어떻게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러나 생각할수록 그리움이 한가슴에 차고넘쳐 흘러가버린 소시적일이 어제일인듯 끝없는 회포를 자아내며 머리속에 확연히 안겨온다.

《애야, 애야, 어서 일어나렴. 아버지가 삿잡박에 나가셨다. 응.》

《아직두 캄캄한데요, 어머니.》

일환이는 온몸을 휩싼 랭기로 하여 으스스 소름을 치며 누데기이불속에서 기어나왔다.

창밖은 먹물을 뿌려 놓은듯 캄캄하였다. 어머니가 웅크린 잔등에 씌워주는 덧저고리를 끼여 입고 나섰던 일환이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넘겨다 본다.

깜박이는 등잔불에 반쯤 가리워진 어머니의 누르꾸레한 얼굴은 더 여위여 보였고 눈두덩이는 부석부석했다.

《또 밤을 새워 망을 가신 모양이지?》

일환이의 작은 가슴은 근심으로 젖어올랐다. 일환이는 나이에 비하여 썸이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살벌한 천지를 살길 찾아 다니다나니 고생속에 얻은것이 남다른 궁냥이었다. 밥그릇을 쥐고 앉으면 부모 밥그릇 걱정부터 하는 그였다.

밖을 나서니 살을 에이는듯한 랭기가 폐부를 찢러 처도 모르게 두어번 기침을 하고나서 일환이는 문지방에 세워놓은 멜대를 잡았다.

《거 놔두고 이거나 들거라.》

멜대보다 키가 작은 일환이는 그래도 제가 남자노라고 멜대를 쥐려다가 아버지의 말에 손을 움츠려 뜨리고 아버지가 넘겨주는 작은 남비를 받아들였다.

(오늘부터 나도 일을 한다. 이 떡을 구워 판 돈으로 어머니 약도 지어오고 또 정미소 집 영아처럼 학교도 가고…)

꿀묵길에 나서니 여기저기에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린다. 아마 아침 음식을 팔러 장에 나가는 사람들인것 같다. 멀리 북천향으로 통한 길어구에서 가로 등불이 새벽잠에 취한듯 꺼벅꺼벅 줄고있다.

《싸구려. 싸구려.》

어둠속 어디선가 콩물장사아바이의 노래가락이 쌀쌀한 새벽대기를 뚫고 날아온다.

《아버지, 여기서 팔면 안돼요?》

마음이 조급해 난 일환이는 묵묵히 걸음을 재촉하는 아버지 뒤를 쫓아 가며 물었다.

《안돼, 사람이 많아가지.》

아버지의 무뚝뚝한 대답에 일환이는 달음박질하여 그를 앞서려 했으나 또 뒤떨어진다.

일환이의 자그마한 몸집은 아버지의 커다란 그림자속에 폭 잠겨 보이지 않는다.

안개 자욱한 거리는 희뵤히 밝아왔다. 여기저기 총총한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침침히 드리운 안개속을 뚫지 못하고 무겁게 드리워 이 옛도시를 연기속에 몰아넣는다. 아침 러객을 싣고 달리는 인력거군들의 자지러진 기침소리가 가슴쓰리게 안겨온다.

《자, 지짐떡이요. 뜨끈뜨끈합네다. 찰지짐이지요.》

아버지는 자그마한 늦점시에 구워내는 지짐떡들을 주어담으며 석싹한 소리로 사람들을 부른다.

나무로 만든 밥상을 삿삿 닦던 일환이는 흘금흘금 늦점시를 넘겨다본다.

흰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찬 지짐떡은 노랑게 잘도 굵혔다. 고소한 냄새에 취한듯 머리가 뻗해지고 배에서는 련속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들린다,

(야, 참 맛있겠지. 아버지는 왜서 나에게 먹여 보라는 말 한마디 없었가. 난 어제저녁에 죽물 한 국자를 마셨을뿐인데 …)

일환이는 혹시나 하여 흰김서린 아버지 얼굴을 지켜보았다. 목란불연기에 그을은 입귀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흰수건을 둘러쓴 머리에서는 김이 물물 나는데 아버지는 떡굽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 여보, 두개만 주구려. 얼마? 응 10전이요.》

아버지를 넘겨보던 일환이는 그 말소리에 정신이 쫄쩍 들어 밥상우에 물건들을 부랴부랴 주어놓는다. 물, 저가락, 간장…

배고프던 생각도 어디로 썩 달아나 버리고 일환이는 신바람이 났다.

《이제 떡을 판 돈으로 너를 학교에 보내주마.》

어제 학교가는 애들이 부러워 명칭히 썼던 일환이의 손을 이끌고 정미소로 가며 어머니가 하던 말이 또 귀전에서 울려온다.

(그래 꼭 학교에 갈테야!)

북천향어구는 굵은 죽가마처럼 온통 들끓었다.

《뽀비 뽀비.》

옆에 앉은 군고구마 파는 늙은이의 풍구짓는 소리.

《혼돈, 혼돈이요.》

쇠국가마를 걸고 다니며 철렁철렁 방울 울리는 혼돈장사아바이의 웨침.

《자, 콩나물 사구레. 두부도 생신합네다.》

이 아침에 벌써 수십리 수레길을 걸어온듯한 농촌 아낙네들의 자지러진 목청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아침시장의 소란스런 음향속에서 해가 서서히 떠오른다. 여기저기는 일군들로 붐빈다. 길옆의 검은 문짝들도 하나둘 열린다.

《경경.》

방금 열어놓은 문짝틈으로 송아지만큼한 개 몇마리가 달려나오더니 아침달리기를 하는듯 장거리를 뚫다 달리다가 장군들한테 덮쳐든다.

《에구머니나. 이 팔죽, 애고 이를 어찌나.》

황소울음이 터지는듯한 고함소리.

덴갑을 한 장군들의 비명소리. 장엔 소란한 기운이 한껏 서렸다.

《에이 돌아가자. 저놈의 전당포!》 아버지는 한껏 달아오른 남비를 들어내려놓고는 손가락을 훌훌 분다. 남비에서 굶다만 떡이 뽀지직뽀지직 익고있다.

시장기에 다리땀이 매시시해진 일환이는 펄쩍 저앉았던 돌맹이우에서 간신히 엉덩이를 뺐다.

《아버지, 그걸 하나 마저 팔자요.》

《안돼. 저놈의 개 등쌀에. 예끼.》

아버지는 반나마 남은 떡반죽소랭이를 멜대광주리에 주어담고 속상하여 두덜거린다. 일환이는 애잡짤한 애수에 잠겼다. 학교에 갈 돈들이 다 날아나는 것 같아 마음이 서글펐다.

《경경.》

돌연 검둥개 한마리가 두귀를 빨죽 세우고 눈에 불을 켜고 일환이의 저고리앞섶을 물려고 덮친다. 짹 벌려진 입새로 빨건 허바닥이 땅에 대일듯 날름 거린다.

《아버지! 아버지!》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아버지가 돌아서며 멜대를 빼내어 휘두른다. 그통에 어느결에 열려진 남비에서 떡냄새를 맡았던지 검둥개는 닥침 한입에 주어 삼키고서는 미친듯이 달려가 대문안에 사라졌다.

《아버지 빨리 가자요! 네 빨리!》

《내 저놈들을, 너 빨리 집에 가봐라. 어머니가 기다릴테니.》

아버지의 석심한 목소리는 낮아도 가슴을 빠개고 나오듯이 거세쳤다. 일환이는 아버지가 쥐여주는 떡반죽소랭이를 마지못해 쥐고 애원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예구, 아주버니. 그놈과 해봐도 쓸데없어요. 빨리 가자요.》

《똥, 더러운 자식들, 개까지 주인행세를 하니.》

옆에 앉았던 장군들도 욕설을 퍼부었다.

《으하하. 거러지! 거러지!》

일환이는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머리를 쳐들었다. 어느새 활짝 열어놓은 검은 문짝안에서 뽀죽한 모자를 쓴 똥보아가가 이쪽을 보며 손벽치는것이 보였고 그옆에 싯누런 상판을 한 령감이 긴 곰방대를 빨면서 메스껍게 웃는것이 보였다.

《예구, 이놈의 세상. 어서 잡세다.》

언젠가 정미소에서 똥똥목을 익힌 아저씨가 아버지를 잡아끈다.

《에이, 가난이 원쑤고, 나라 잃은게 죄지요. 사람을 업수이...똥!》

아버지는 말을 맺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아니, 저 집은 오씨네 둘째아들의 전당포라우. 그 큰 아들녀석은 관청에서 현감노릇을 하는데 지금은 일본놈을 등에 업고 약담배장사까지 한다지유. 예구.》

고구마를 팔던 로인의 하소연속에 사람들은 혀를 골골 찬다.

《애, 빨리 가거라!》

일환이는 아버지의 낮으나 탄력있는 말소리들 듣고는 아버지와 아저씨를 뒤에 남긴채 집으로 달려갔다. 언제나 아버지의 말이라면 추호의 드림도 없는 그였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그놈들에게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니? 빨리! 빨리!)

일환이는 달려가면서 근심으로 뉘뉘는 작은 가슴에 떡소랭이를 꼭 끌어안았다. .

《일환아, 너 왜 그러니? 응.》

삼작밖에 나섰던 영아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일환이를 보고 놀라 물어댄다.

아마 학교에 가려고 나섰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일환이 말을 들은 영아는 학교가는것도 잊은듯 소랭이를 받아 창고문어귀에 뿌리듯이 내던지고는 일환이의 손을 잡고 땀다 달렸다.

뒤에서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야 아버지를 구원할것만 같았다.

여느때 같으면 한식경이나 걸어야 닿을수 있던 곳이지만 눈깜박할 사이에 달려왔다.

《어데 있니, 어데. 응?》

영아는 조금히 물었다. 아침장이 거의 끝날무렵이므로 다른때 같으면 허전했을 장터엔 오늘은 웬일인지 여기저기 한줄금씩 모여선 사람들이 뭔가 쑥덕거리며 웃고있었다. 지척에 보이는 전당포앞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몰려서 엉덩이를 매대에 둘러대고 멀리 큰 길을 바라보는게 한눈에 안겨왔다.

전당포 검은 문짝안에는 뚱뚱한 녀석도, 늙다리도 보이지 않고 말라췌이 점원 하나가 길다란 얼굴에 안나오는 웃음을 띠우고 련속 주절대는것이 보였는데 방금까지 제세상처럼 날뛰던 개들은 서리 맞은 수탉처럼 매대옆에서 꺽꺽 앓음소리까지 내고있었다.

《아니, 너의 아버지는? 응?》

일환이는 복천장으로 통하는 큰 길로 허겁지겁 걸아가는 아버지를 발견하였다.

《아버지!》

《아저씨!》

일환이와 영아는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의 두손을 잡고 부르짖었다. 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듯 큰길에서 시선을 떼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저분이 저분이...》

아버지는 말을 맺지 못하고 손을 들어 큰길을 가리켰다. 큰 길에는 어디론가 분망히 오가는 사람들도 보일뿐이었다.

일환이는 언제나 메말랐던 아버지의 눈가가 축축히 젖어드느것을 의아하여 바라보았다.

《정말 용수다. 꼼짝 못하고 숨어버렸군. 그놈의 두상이.》

《예구, 정말 장수예요. 다시는 그 개들의 성화를 안받게 됐수다.》

《장하이, 장해.》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드는중 일환이는 아버지가 마치 그 무슨 세상의 철리를 깨닫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몇마디 말만 되뇌이는것을 보았다.

《겹내지 말고 싸우면 놈들이 어찌지 못한다. 민족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음. 그렇지, 놈들은 우리가 겹을 내니까 더 업수이여졌더랬지. 그래 그렇지 말구... 아니, 어디에서 오신 위인이신가...》

아버지의 황홀경에 잠긴 말을 듣는 일환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그 무슨 든든한 축이 자리잡는것만 같았다.

《아, 어느분이신가? 나도 한번 봐왔으면 응! 영아야 우리 함께 달려가보자. 응.》

일환이는 영아의 손을 잡고 날아가듯 달렸다. 길옆에 뻗어져서 서있는 오동나무가지에 얼굴이 굽히는것도 머리에 켜던 험망한 밀집모자가 바람에 휘달려가는것도 알지 못했다.

일환이는 몇백보 상거한곳에서 검은색 학생복을 정히 입은 중학생 한분이 동무들속에서 걸어가며 뭔가 통쾌하게 이야기하는것을 보았다.

《일환아, 인젠 돌아가자. 빨리!》

문득 멈춰선 영아가 숨을 할딱이며 일환이의 걸음을 멈춰세운다.

《아니, 너 그이를 찾지 못하구두...》

《찾았어. 그분을 찾았어.》

《뭐? 어디 ...》

《그이는 사람들속에 계셔. 바로 여기...》

자기의 심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영아의 얼굴엔 기쁨이 찰찰 넘쳐흐른다.

《그래?!...》

그때 일환이는 영아가 뭘 말하는것인지 통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할수없이 돌아섰다. 하긴 한번도 빈일 없는 그분을 어떻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바로 지금도 그는 그 모습이 실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는것을 간절히 느끼곤하였다.

이것이 바로 장선생의 기억에 남은 복천향이었다.

장선생은 스프르 두눈을 내리감았다.

장선생의 옛꿈은 다시 계속된다.

북방의 봄은 때늦게 찾아왔지만 찌물쿤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더위는 숨쉬기 어렵게 목구멍들을 조여 대며 빨리도 봄빛을 무르녹힌다.

아침엔 쌀랑한 바람이 옷자락밑에 솔솔 기어들다가도 해만 솟으면 단내 풍기는 더위가 온몸을 태운다.

은 시안에 하나뿐인 포장도로는 피치냄새를 풍기며 녹아서 질적질적한데 어디서 오는 우차대렬이 짹 짹 고아대는 교통순경의 고함소리도 못들었는지 느릿느릿 큰길을 가로 지난다. 소입에서 흘러나오는 흰 거품은 큰 길바닥에 긴 물자욱을 남겨 놓았다가 삽시에 말라버린다.

옛도시는 물 한방울 없이 짹짹 말라든다.

《영아야, 너 학교에 갔다왔니?》

《응. 이제 방금 점심을 먹었다. 너도 나와 함께 학교가지 않을래?》

영아는 울퉁한 외가풀논을 살짝 내리 감았다가 익살군 사내처럼 뻥히 올려다본다.

《흥, 돈이 있어야 가지. 에이, 그놈의 떡장사도 못하게 됐지. 우리 아버진 또 대원정미소에 품팔이를 갔어.》

영아는 가슴앞에 드리웠던 외태머리를 재치있게 뒤로 뒹 뿌리치고는 일환이의 귀전에 대고 속살거린다.

《이제 조선학교가 선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 용림시에 오셨대. 그이께서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주어 우리 글을 배우게 하셨단다.》

《뭘? 허튼소리 말아. 돈이 없어도 가나 뭐.》

《응, 돈이 없는 우리 동무들을 위해 북천향 레배당에다 세운다나. 벌써 이름을 다 적어왔단다.》

영아는 아주 어른이 된듯이 뽳룩한 아래입술을 감빨면서 자기 새소식의 정확성여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것이 었다.

《그래 내 이름도 있던?》

《물론이지. 제일 먼저 적어넣었어. 물론 내가 불러줬지.》

영아는 아버지의 입버릇처럼 된 《물론》이란 말을 재치있게 주어섬기며 일환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야, 정말이야. 만세!》

일환이는 자기보다 한주먹이나 키가 큰 영아의 두어깨를 부여잡고 뽕뽕 뛰다가 되구마구 깔린 새초무지에 벌렁 자빠져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찬 사람처럼 깔깔 웃어댔다. 그바람에 새초무지밑에서 점심잠에 취했던 흰게사니새끼 한마리가 기어나오며 꺾꺾하고 불만을 터뜨리다가 엉덩걸음을 치며 창고옆 개구멍으로 빠져나간다.

영아도 기뻐다. 매일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부러워하는 일환이를 뒤돌아보며 측은해하던 그다.

영북정미소주인 민영세의 무남독녀 외딸 영아는 이제 갓 열네살에 잡히는 소녀다.

젊은 혈기에 독립을 하여보겠다고 동북만주를 떠다니며 의병장으로 싸우던 민영세는 중년이 되면서부터 그것을 포기하였는지 고향사람들의 주선으로 바로 여기 용림사에서 《영북정미소》를 차리고 자그마한 쌀방을 꾸려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있었다.

기껏해야 본전도 찾기 어려운 장사여서 생활형편이 말이 아니나 원래 선비가정치의 후손인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나마 글공부시켜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갖은 애를 쓰는 그였다.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영아는 그렇게 어렵다는 중국말 공부도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 배워 학교에서 늘 최우등을 하여 왔었다.

일환이가 영아와 각별한 친우로 된데는 물론 영아의 아버지의 주선으로 일환이네가 옷방살이를 하고 품팔이로 연명한다는것도 있겠지만 더우기는 그들이 부모에게 말할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함께 집어삼킨다는 사연도 숨어있었다.

2년전, 일환이가 이곳에 이사하여온후 며칠 되지 않는 새벽이었다.

일환이는 영북정미소 주인댁 외동딸 영아가 아침마다 가군하는 학교가 너무 부러워 저도 모르게 설렁설렁 뒤를 따랐다. 안개 자욱히 드리웠던 거리는 차츰 자기의 료곽을 나타내며 여기저기에서 오가는 사람들로 들쭉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는 학교가는 애들이 조잘대는 소리가 길울 메운다. 소학교라고는 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그것도 중국 학교여서 조선 애들치고 다니는 애가 둘도 넘지 않았다. 영아는 지금 그들속을 혼자 걸고있다.

별로 잘생긴데는 없이도 빨그레한 두볼에 살짝 들린 들창코, 그리고 언제나 벌릴사한 도톰한 작은 입은 사람들에게 퍽 귀여운 인상을 한껏 주는 청신한 모습이었다. 허리에 낀 책보를 누가 훔쳐 가기라도 할가봐 꼭 움켜쥐고 외태머리를 달싹거리는 영아는 북천향 큰길을 넘어서 학교문앞에 가까와오자 누가 붙잡기라도 하듯이 걸음을 빨리 했다. 일환이는 부러운 눈매로 멀어지는 동무를 바래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얼마나 좋을가? 학교에 가고.)

《어이, 치마두른 계집애가 다 우리 학교에 와, 저치마밑에 흰건 뭐야. 희희 당겨라!》

불시에 들려오는 웨침소리가 일환이의 발목을 잡는다.

일환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웬일인가? 길옆으로 굽어드는 골목길에서 튀어나온듯한 몇몇 망나니 학생들이 뒤에서 달려들며 영아의 치마자락을 당겨대고는 웃음보를 터뜨리는것이 아닌가. 한 애는 학교문을 향하는 영아의 앞을 막아서서 히히닥거렸다.

일환이는 그들중 키가 제일 쫑쫑한 녀석이 오씨네 큰집 막내아들임을 알아보았다. 원래 응석받이인데다가 애비등을 믿고 공부는 하지 않으며 못된 짓만하는 팔삭둥이였다.

영아는 그들속을 빠져나가려고 무등 애를 쓰느라 두발을 동당거리며 무엇인가 웨쳐댔다.

이것을 본 일환이는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갔다. 그는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애들속을 밀치고 들어가 소리질렀다.

《남을 모욕하면 안돼!》

그는 영아의 손을 꼭 쥐고 땡해 서있는 망나니들새를 빠져 앞으로 달려갔다.

《호야, 저건 웬 새끼야! 저거. 쫓아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을 돌아보며 일환이는 다급히 속삭였다.

《너 빨리 가라. 내가 저놈자식들을 막아줄게. 빨리.》

《넌 어떻게 하니?》

《난 일없어. 빨리!》

일환이는 영아를 학교문쪽으로 밀치고나서 모든 위험을 막아나선 용사처럼 길목에 버티고 섰다. 순간 날아오는 돌총이 일환의 형클어진 머리우에 여지없이 떨어졌다.

《아이쿠!》

붉은 피가 쭈르르 흘러 이마전을 적신다.

《일환아! 빨리 가!》

일환이를 부르며 달려가던 영아는 제자리에 물러앉은 일환이에게로 다시 구슬듯이 달려오며 놀란 소리를 지른다.

《일환아, 아프니. 응?》

영아의 빙그레 열려진 입술은 보르르 벌리며 울롱한 눈가에서는 맑은 이슬이 주르르 흘렀다. 그것을 보는 일환이의 눈귀에도 뜨거운것이 솟아올랐다.

영아는 흰저고리 고름으로 두볼을 타고 흘러 내리는 붉은 피를 소중히 닦아주었다.

저고리고름은 삽시에 빨강계 물들어 아침해빛을 받아 반짝인다.

《영아야, 빨리 가라. 난 일없어, 빨리. 그놈의 새끼들이 다 갔구나!》

일환이는 자기옆에 쪼그리고 앉은 영아를 가볍게 밀면서 애들이 사라지는 학교문을 바라보았다. 제깎에 메사해진 애들이 다 가버린 뒤라 길가의 오가던 사람들만 동정어린 눈으로 일환이를 보며 혀를 찬다.

《에이, 덜된자식들, 왜 남을 쳐!》

《제 애비들을 닮은 망종들만 내쫓지, 쯔쯔.》

지나가던 군고구마장사 할아버지가 측은한 눈매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허리에서 담배일 한잎을 꺼내더니 일환이의 더진 머리에 놓아주었다. 영아는 책보를 펴서 한쪽 깃을 짹 찢어내어 일환이의 머리를 푹꽂 싸주었다.

《일환아, 가자 집으로. 내가 데려다주마.》

영아는 철이든 누이가 어린 동생을 부축하듯 손을 푹 쥐고 이끈다.

《싫어. 난 학교에 가라 빨리, 늦겠다, 공부해 ...》

일환이의 눈길은 다시 학교문에 멎어버리고 흘러나오던 말은 부러움에 젖어 막혀버렸다. 그만에 영아는 온몸을 움츠리더니 일환이의 피에 얼룩진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는 두눈엔 돌연 강렬한 불꽃이 이는 듯했다.

《그래 공부해야지. 꼭 공부를 잘할래, 꼭.》

영아는 일환이의 손을 푹 쥐었다놓고는 걱정스런 눈길로 일환이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면서 부탁한다.

《조심해 가라. 그리구... 응-응. 우리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 응...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다신 학교에 보내지 않을거야...》

말을 맺지 못하고 뒤로 돌아 달려가던 영아는 다시 돌아와 일환이의 귀전에 대고 속삭인다.

《너도 꼭 나와 함께 학교가게 할테야.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해볼래, 꼭. 응.》

일환이는 영아의 그 말이 언제 실현될지는 몰랐어도 너무 기쁨김에 머리의 상처마저 잊고 집으로 달려왔다.

(아, 얼마나 좋은가. 나도 매일 영아와 함께 학교에 가고. 난 영아가 다니는 그놈의 새끼들에게... 야, 공부할테야!)

그런데 그때로부터 두번이나 꽃은 피고 또 졌어도 일환이는 여전히 학교갈수 없었다. 그 철없는것들이 어찌 영아네 가정형편이 한 아이를 공부시키기도 배차다는것을 알수 있었으랴.

안타까와난 영아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짬을 타서 일환이에게 학교에서 배워온 글을 배워주곤하여 제법 읽고 쓰게 되었던것이 요즈음은 떡장사요 품팔이요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다보니 그것도 시간이 없이 단념하다싶이 되었다.

오늘은 아버지가 품삯을 받으러 혼자 가고 여가가 있어 이렇게 영아네 정미소뒤마당, 가을 한철이면 소달구지들을 매여농군하는 농군들의 새초무지옆에 영아와 마주앉았던것이다.

그렇게 바라던 꿈이 실현된다는 소식을 들은 일환이는 실로 날듯이 기뻐다.

《야, 정말. 어떤 훌륭한분이 돈도 받지 않고 공부하는 학교를 세워줄가, 응. 말해주렴. 어떤 훌륭한분이 돈도 받지 않고 공부하는 학교를 세워줄가, 응. 나도 만나뵈수 없니? 음.》

일환이는 바로 이 시각 그분을 만나 절이라도 수십번 하고싶은 생각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응. 만나뵈수 있지 응, 한 이틀후 봐라. 요렇게 이틀후이면 우린 소년회도 조직하고 경축운동대회도 한단다. 네가 잘하는 씨름도 하지. 난 달리기를 할테야. 그리구 그 줄당기기는 너와 나와 한편이 되자. 어때?》

《야, 빨리. 이들이 지나라. 에이.》

일환이는 종전에 떠있는 해가 미워서 고개를 제끼고 하늘을 보았다.

있이 무성한 느티나무가 무더위에 축 처진 가지들로 그늘을 지어 그들을 감싸주나 찌는듯한 해빛은 후줄근한 일새로 거침없이 뚫고 들어와 그들의 몸을 가차없이 쥐어짤다. 영아의 곱게 빛은 검은 머리밑으로는 락수물호르듯 땀방울이 솟아났다가 또루루 이마전을 따라 흘러내린다.

《아니, 저 해가 오늘 제 갈길을 잊은게 아니야? 에이, 어, 우리 북한강에 미역감으러 가지 않젠?》

《야, 좋아. 가자 오늘 오후엔 마침 학교에 안가도 돼. 빨리!》

얼마후 북한강으로 통한 지름길에는 옷동을 벗어 제끼 더벅머리 총각아이와 짧은 옥색치마에 흰 적삼을 받쳐입은 처녀애의 랑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제나 소리없이 쓸쓸히 흘러가던 북한강 맑은 물도 그들을 반기며 은파만경을 일으키며 흥겹게 백사장을 꺼안고 춤을 춘다.

《나도 학교로 간다! 나도 우리 글을 배운다! 예헤, 헤, 좋다!》

일환이의 환성은 깔깔거리는 영아의 웃음소리에 실리어 강물을 따라 멀리멀리 흘러간다.

땡, 땡, 땡,

레배당 종소리는 우람차게 울린다.

북천항치고 제일 들끓는곳은 역시 조선인 레배당이다. 조선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용림시에서도 북한항은 그중 많이 모여사는곳인데다가 또 타양살이 설움많은 우리 조선사람도 죽으면 천당으로 가게 하는 레배당이 있으니말이다.

그런데 조선인 레배당이 복잡하다 해도 오늘처럼 복잡하기는 유사 이래 처음인것 같다. 신망높은 유지인 림목사는 웃음으로 화락하니 불어진 얼굴로 사람들앞에 나서서 뭔가 끊임없이 말하고있는가 하면 흰 수염이 한자나 되는 김주사라고 불리우는 대원 정미소주인도 입담배를 피워 물고 열변을 토한다. 또 레배당앞 망썩만한 바위돌우에는 오늘따라 처음보는 의병장 옷차림을 한 영아의 아버지가 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뭔가 설명하다가 레배당문을 흘깃흘깃 바라보군한다.

그런데 조선사람도 조선사람이려거니와 와와 고으기를 잘하는 중국인애들까지 부모들의 바지가렁이에 칭칭 감겨 머리를 삐죽삐죽 내밀고 부러운 눈길을 보내니말이다. 실로 온 시가 다 떨쳐나온것만 같다.

《우리 조선인 소학교와 소년회 건립을 경축하는 운동장으로 출발합시다. 제1반 앞장서시오.》

나이 지긋한 학교책임자 최선생의 우렁찬 말소리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울려 퍼진다.

《제1반 앞으로 갔.》

영아의 정정한 구령소리는 들끓는 레배당 마당에 파문을 일으키며 맑게 개인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누가 치는지 덩덕쿵 북소리와 쟁강쟁강 쟁파리소리가 제멋대로 발을 떼는 애들의 걸음을 맞춰준다.

《야, 이놈아. 이쪽 발이다 원.》

언제나 남의 뒤편에 웅크리고 서서 얼굴을 찌프리기를 잘한다 하여 《우는서방》이라고 별명붙은 일환이 아버지가 어느결에 대렬의 뒤꼬랑이에 붙어서 엉거주춤 걸어가는 일환이의 뒵잔등을 미옥스레 툭툭 튕기며 훈수하는 말이다.

《아니 <우는서방>까지 웃으니 실로 세상이 다 흰해진것 같수다. 호호호.》

말이 많기로 소문난 능천랭면집 하숙아지미의 말에 모두 껄껄 깔깔 웃어댄다.

아버지의 석싹한 목소리도 그속에서 섞이여 들린다.

북천항 큰 길로 흐르는 학생대오를 신기한듯 길가에 웅기중기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속에서 일환이는 언젠가 장거리에서 만났던 안면있는 아저씨의 웃는 얼굴도, 군고구마장사 정아바이의 병글썩 한 입도 일별하였다. 열어제끼 검은 전당포문썩뒤에 기웃이 내민 뽕죽모자도, 긴 목을 왜가리처럼 빼들고 기겁한듯 내다보는 말라썩이 점원도, 일환이는 한눈으로 씻어 보고는 가슴을 쑥 내밀며 부궁부궁 웃는다.

(자, 보라, 너희들이 업신여기던 이 장일환이가 지금은 어떤가를...)

《일환아, 떨어지지 말아.》

언제 대렬뒤에 다가왔는지 영아가 빨강게 상기된 얼굴에 한껏 미소를 띄우고 일환이를 재촉한다.

... ..

우리 우리 소년학생들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국주의 왜적들을 쳐몰아내려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순간 일환이의 눈앞에는 일곱살 나던 해 아버지를 따라 로산이란 마을로 품팔이를 갔던 일이 꿈결처럼 떠올랐다. 그날 집주인 아들이 큰소리로 노래가락을 뽑으며 천자를 읽는것이 하두 신기하여 문지방으로 엮보던중 주인마누라에게 된 옥을 먹었던것이다.

《요놈, 거지새끼, 노래를 도적질해. 거러지가 노래를 부르려구. 앙.》

그날 아버지는 엉엉 우는 일환이의 궁둥이를 딱판같은 손으로 세번이나 후려치고는 큰 길까지 끌고 나왔다. 수레바퀴자욱이 폭폭 빠지는 큰길에 이르러서야 아버지는 일환이를 그 넓은 가슴에 꼭져 안고 한참이나 말없이 서있었었다.

《아버지, 다시는 남의 노래를 듣지 않을래. 응.》

울음그친 일환이가 조잘대자 아버지는 마치 못들울것을 들은것처럼 사시나무떨듯 몸을 떨면서 일환이를 그 진흙길에 냅کم 내려놓고 혼자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가지 않았던가.

《아버지, 이 일환이가 노래부릅니다, 남의 노래마저 못듣는다던 이 일환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직 불러본 일이 없는 오직 우리만 알고있는 이 노래를.》

일환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찾아 머리를 돌렸다.

일환이는 아이들의 대오를 따라 빼곡이 걷고있는 사람들속에서 키가 큼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눈길을 멈춘 일환이의 두눈엔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눈물인지 땀물인지 얼룩진 아버지가 함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실로 희한한 일이었다.

뿡-

렬차는 정적을 울리며 산굽이를 에돌아 천천히 멈춰섰다.

아마 자그마한 역두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해바라기씨 사시오, 끓는 물 마시세요.》

《구운닭 한마리 2원 50전, 두마리면 5원, 자.》

침대 창문으로 흰옷을 입은 식료품판매원들이 긴 역두에 널려 서서 차안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직 여섯시도 되지 않았는데 역두는 어둑시근 하다. 오래전에 켜놓은듯한 등불들이 아직은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회끄름이 껌벅거린다. 내리는 사람들의 짐들을 받아주는 렬차원처녀가 입가에 웃음기를 담뿍 띠우고 뭔가 이야기하는것은 보이니 소리없는 활동사진을 보는듯 그 내용은 알수 없다.

《예구, 벌써 어둡는가유. 아직 멀었어요? 용림시가.》

《예. 이제 세시간은 더 쉬셔두 될거웨다.》

《뭘, 나야 뭘, 통잠이 와야지요. 인젠 늙어서 잠두 없다유.》

남이 50년이란 세월을 거슬러오를동안 온통 잠만 자구두 잠이 없다는 현씨덕의 말에 장선생은 허거운 웃음을 웃었다.

《원, 어른이 늙으면 아이가 된다더니 벌써 80고령이라 했으니... 나도 이제 10년만 지나면 저렇게 되겠지.》

장선생은 현씨덕의 작은 발에 또 시선이 미치자 황급히 머리를 들어 차락을 보았다.

눅혀 놓은 담배팩에서 배척 받은 신세를 하소하듯 담배대들이 빼죽이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어이구, 실루 이런 번이라구야. 원 한나절이나 담배 피울것두 잊었구먼. 이 담배 이골쟁이가...》

장선생은 담배를 자꾸 피워 건강은 해친다고 아래 웃방 따라다니며 잔소리 질에 툭툭툭 기침까지 낄던 로친이 생각났다.

《로친, 보라이. 이 <장선생>이 기쁜 꿈에 담배 생각조차 잊었수다.》 장선생은 로친이 앞에 있거나 한듯 입안으로 비양겨려댔다. 그는 담배 한대를 꼬나물었다. 피시식 담배불이 불자 장선생은 성냥 불을 훑 꺼서 버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벌써 뒤걸음치기 시작한 산발들이 끊임없이 흐른다. 어둠 속에 잠긴 아직 앙상한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수림이 한눈에 안겨온다.

계곡에 묻힌 여기저기 널린 집들에서 저녁 밥짓는 연기가 꾸역꾸역 피어오른다.

《옆방에 좀 나가보지 않으려우. 내 손너를 좀 보고 올라가유?》

한잠을 실컷 자고난 현씨덕은 장선생을 보고 중얼거리고서는 스프룩 문을 열더니 혼자 나가버렸다. 인젠 앓아있기가 싫증나서 말동무를 찾아가간 모양이다.

《하하하, 호호호.》 열어놓은 문으로 옆칸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할머니의 주책없는 말에 그의 딸과 손녀가 함께 웃음보를 터친모양이다.

(그래 우리도 그날 얼마나 웃었던가.)

웃음소리는 멈추었던 추억의 쪽배를 잊지 못할 그 날에로 이끌어 간다. ...

그날 그들은 정말 평생 처음 것처럼 웃고 떠들며 유쾌한 하루를 보냈던것이다. 일환이는 씨름에서 일등을 하고 영아는 달음박질에서 일등을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일환이는 달음박질하다 넘어지는바람에 팔지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칭찬을 받았지 ...

장선생은 이제 방금 칭찬을 받은것처럼 마음속이 흐뭇해났다.

...그날저녁 운동회를 총화하면서 최선생은 특히 일환이를 칭찬하여 주었다.

《...방금 오시던 김성주선생님께서는 일환이가 달려가다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는것을 보시고 모두 이런 정신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찾는 일도 이렇게 달리기와 같이 계속 싸워나가면 꼭 승리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길을 가시면서도 이 책을 선물로 일환학생에게 주교가셨습니다.》

(뭘?! 아니, 김성주선생님께서 오셨다 가셨다구. 그런데 나는 왜 보지 못했을가? 에익, 제김에 좋아 날뛰다니니...)

일환이는 너무 속상하여 피가 나도록 입술을 꼭 물었다. 그리고는 혹시나 저멀리 뻗은 고개길에 그의 뒤모습이나 어렸을가고 두 발뒤축을 들고서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그러나 푸른 나무 설레이는 고

개길에는 붉은 저녁노을만 아롱져서 그이께서 남기고 간 자욱을 비쳐줄뿐이었다.

일환이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젖어들었다.

꼭 그이의 말씀을 명심하리라고 ... 이것이 어린 심정에 심어진 한점의 불씨였다.

일환이의 보람찬 하루하루는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것처럼 바빠 보내시면서도 일환이를 꼭꼭 학교에 보내주었다. 일환이는 영아와 함께 학교로 열심히 다녔다.

소년회활동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벌써 연예대의 유명한 《웃는 서방》배우로 되었다.

《예구. 정말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했더니...》

하숙아지미는 일환이가 출연한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가 밭의 흙을 한줌 쥐고 환히 웃는 농민의 모습을 보더니 웬일인지 찢끔찢끔 눈물을 짜면서도 얼굴엔 역시 웃음을 띠었다, 실로 웃지 않으면 못견딜 연극이니말이다.

여름한철이면 그들은 부근 농촌마을로 나가 문맹 퇴치사업도 하였다.

그러다 한번은 돌아오는길에 지름길을 택하여 쪽배를 타다가 물오리가 뿔뿔한 한 일도 있지 않는가...

《영아야, 너 노저을줄 알지?》

《몰라, 넌?》

《나? 조... 좀 알지. 저 일춘아, 넌?》

경기도택 큰아들 일춘이는 넘적한 잔등을 찌근덕거리며 빙그레 웃었다.

《흥. 나 힘이 세서 할만하다.》

이리하여 셋이 쪽배에 올랐다. 그런데 배는 계속 한곳에서 뱅뱅 돌다가 끝내 풍당 물에 가라앉고말았다. 위낙 누구도 노를 저을줄 몰랐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것같이 생각 했던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영아와 같이 로산마을에 갔다온 적이 있다. 혹시 이렇게 함께 갈 때도 있었지만 영아는 그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오자고 할뿐 더 말해주지 않았다.

돌아오는길. 어둠이 깃든 고개길은 호젓하였다. 멀리 밤뺨꾸기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계곡을 조용히 잠재우는데 드문드문히 울려오는 소 영각소리는 하루일을 끝낸 지친 소들이 갈길을 재촉하는듯하여 그들도 걸음을 빨리 했다.

《애, 영아야, 저 별을 보아라. 무슨 별인지 너 아나?》

《오, 새별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은 바로 저 별에서 내려오신분이라. 하늘이 나라를 구하라구 보냈대!》

《그래, 맞았어. 그이는 새별이야. 봐라. 저렇게 달도 없이 캄캄한 밤하늘에서도 두려움 모르는 새 별이야. 야, 그이는 우리 김성주선생님이시란다.》

《아, 김성주선생님. 야, 나도 뵈울수 없니?》

《이제 그이를 따라 혁명하면 꼭 뵈울수 있지!》

《혁명? 야, 너 김성주선생님을 뵈오면 나도 혁명하게 하여 달라고 여쭙보렴. 응?》

일환이는 바싹 구미가 동하여 영아에게 조른다.

《호호, 애두. 우리가 바로 지금 혁명한단말이야. 봐라!》

영아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종이쪽지를 신비하게 내보이고는 다시 품속에 정히 넣었다. 일환이의 눈앞에는 영아가 불시에 어른이 되어보였다.

《야, 넌 얼마나 좋니. 나도 꼭 너와 함께 혁명을 할테가. 일본놈도 때려잡구, 그럼 꼭 김성주선생님도 날 만나주시겠지! 응? 너처럼!》

일환이는 영아와 함께 가는 자기도 마치 영웅이나 된듯 힘차게 두주먹을 저으며 걸었다. 그는 혁명이란 뭇지 딱히 몰랐어도 김성주선생님을 따라 하는 일이니 꼭 일본놈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땡, 땡.

북천항 레배당 종소리가 밤의 정적을 뚫고 그들을 부른다.

벌써 밤 열두시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겁나지 않았다. 왜냐 하면 하늘이 보낸 김성주선생님과 함께 이 길을 걸기에...

용림시는 실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넘쳤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온 시내를 휩쌌다. 시위행진, 집회, 연설, 왜놈상품을 불태우기, 오씨네 둘째네 집에서 약담배가 세상자나 발견되어 강물에 처넣었다.

그때마다 일환이는 영아와 함께 구호도 부르고 빼라도 불었다.

일환이는 처음으로 자기들의 힘이 그렇게 센것을 깨달았다. 오늘 왜놈 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시위행진대오를 막아 보려고 달려온 오씨네 셋째아들 이 거느린 기병대 헌병놈들도 어찌지 못하고 물러 서지 않았던가! ...

날이 펴 저물어서야 일환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낮의 흥분으로 아직까지 가슴이 달아오른 그는 흥얼거리며 대문을 넘어섰다. 그런데 그는 어스름한속에서 아버지가 창고 기둥에 뭔가 오래오래 끼워 넣는 것을 보았다. 뭘가? 이상한 불안이 온몸을 휩쌌다.

밤이 깊어 아버지가 정미소 밤일을 나간후에야 일환이는 살금살금 창고기둥옆에 붙어섰다. 어둠속에서 기둥우에 손을 넣은 일환이는 뭔가 종이에 뽁뽁 찢것을 겨우 빼내었다. 뉘뉘는 가슴을 달래이며 한자가량 되는 물건을 가슴속에 품은 그는 영아네 집

등불이 새어나오는 강가에 다가와 살그머니 펴보았다.

웬걸, 어스름 달빛속에서 번쩍 빛나는것은 비수였다. 그밑에는 그들이 낮에 뿌린 뼈라가 차곡차곡 접혀있지 않는가.

《아버지, 아버지.》

그제야 일환이는 오늘아침 아버지가 왜서 것처럼 바쁜 품팔이도 걸어치우고 례배당으로 갔었는지 짐작이 갔다. 그제야 몇번이나 시위행렬이 지나가는 앞에서 아버지의 키큰 모습이 얼른 지나가는것도 본생각이 났다.

그렇다. 아버지는 바로 이 험악한 시국에 그들에게 새날을 밝혀주는 새별을 지키기 위하여 이 칼을 차고 나섰을것이다. 그럼 시위행렬의 앞장에서 달리시던 그분이 바로 김성주선생님이 아닐가?... 그런데 난 뒤모습만... 에이, 일환이는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그는 아버지의 그 칼을 가슴에 꼭 대이고 속삭였다.

《아버지, 김성주선생님은 꼭 무사할거예요. 감사합니다.》

일환이의 속삭임에 대답하듯 아침 첫 해를 치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가 깊이 잠든 이 옛도시의 어둠을 뚫고 새날을 안겨준다.

새날이 밝아올것이다.

즐겁고 보람찬 생활속에서 날이 가고 달이 흘러어언간 해도 바뀌었다.

2년동안에 몰라보게 자란 일환이는 소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 한해 먼저 중학교에 간 영아도 인젠 큰 처녀가 된듯 일환이를 보고는 씩 웃는것이 인사였다. 허리를 치던 치렁치렁한 외래머리도 보이지 않는다. 머리로 《혁명》했다는것이다.

오늘아침 일환이는 어머니가 《예구, 저 정미소택 영아는 그 좋은 머리를 몽청 베어버려 할머니가 한 나절이나 눈물흘렸다우.》 하고 말하고나서 마치 자기의 살불이가 없어진듯 자기도 저고리앞섶으로 눈물을 닦는것을 보았다. 그래도 일환이는 이렇게 머리 깎은 영아가 더 보기 좋았다. 정말 혁명가답지 않는가?!

일환이는 언젠가 영아와 함께 읽은 《자본론》이란 책투정에 찍혀있던 맑스의 머리를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너도 물론 우리 학우회에 들겠구나. 우린 또 함께 활동하게 됐어.》

《응, 너 다음부터 나하구 같이 다니자. 자기만...》

일환이는 영아가 자기 몰래 없어지곤하는 일이 못마땅하여 다짐받았다.

《호호, 제법 어른인걸.》

《너처럼 물론이란 말은 몰라두 나두 어른이야. 씨.》

그 말에 영아는 그 유쾌한 성격을 언제 감췄던가 싶게 깔깔 웃어댔다.

그바람에 두불이 빨갱게 상기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다시 어린시절로 돌아온듯 유쾌해졌다. 시원한 샘물은 마신듯이...

《야, 우리 복천강가에 가불가? 오늘 우리 동무들이 독서회를 가진다. <철의 흐름>을 읽게 돼.》

《뭐, 독서회? 가자. 난 또 미역감으러 가잔줄...》

일환이의 하던 말은 순간 멈췄다. 삼시에 화락 붙어지는 영아의 얼굴을 보았던것이다.

《응, 무슨 책? 저, 너와 같이 오, 지금, 오후 뛰어갈가...》

바빠맞은 일환이는 왜서인지도 모르고 두서없이 주어섬기다가 말도 끊지 못한채 뒤로 돌아서 냅다 뛰었다. 그바람에 울바자밑에서 먹이를 찾던 어미게 사니가 놀라 펄쩍 뛰며 새끼를 찾아 뺨뺨뺨 창고뒤로 사라진다. 그제야 얼굴색이 돌아선 영아는 집으로 급히 들어가 책 한권을 품속에 간직하고 달려나간다.

파르스름한 치마자락이 미풍에 흩날린다. 언젠가 그들을 싸안고 늘어졌던 느리나무도 시원한 봄바람에 일렁이며 손저어 바래준다.

《예구, 계집애가 저렇게 달리다니, 넘어질라. 예, 점점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지지.》

뒤마당에 나왔던 할머니가 놀라며 웨치는 소리를 귀전에 날려보내며 영아는 더 힘차게 달려나갔다.

《아, 그날밤 돌아올 때 달이 얼마나 밝았던지...》

장선생은 어느새 솟아오른 휘영청한 둥근달이 절풍같이 내달리는 기차와 경쟁이라도 하려는듯 따라오는것을 보고서 손에든 곰방대로 창문을 토닥거렸다.

《아니, 달이야. 그 용림시의 달보다 더 밝은게 어디 있겠수. 정말 그때 내 나이가 새파랗겠다. 예구, 정말 달을 보고 잠들수 없었다우. 거 그때 당신같은 조선청년이 정말 저 달보다 환하신 분이, 글썄 그 달밤에 우리 <영미향>에 오셔서 나라를 지키자면 왜놈과 싸워야 된다고 하시잖겠어요. 그인 우리 오래비와 극진했다우. 정말 내 그 말을 들은후로 그 왜놈새끼들에겐 차물을 날라가지 않았다우. 보라이, 이제 제말을 듣지 않는다구 그 왜놈경관놈이 칼로 찍은 자리라우. 예헤, 웅웅.》

언제 들어왔는지 남의 말을 가로채여 웅알거리며 사설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현씨덕의 말에 장선생은 아예 시끄러워 머리까지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조선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정신이 펴져 들어 점차 현씨댁이 돋보이기까지 하였다.

《원, 저런 변이라구야!》

장선생의 놀란 소리에 현씨댁은 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신장군이 자기의 위훈을 자랑하듯 폭꺼져들어간 불따구니밑에 남겨진 상처를 가리키며 빙그레 웃는다. 얼마전 《영미향》의 아릿다운 하녀였다고 할 때는 보지도 못했던 그 상처가 지금은 얼마나 커보이는지 왜서 지금까지 그것도 못보았던가 하는 후회까지 갈마른다.

《아니, 그 조선청년이 김성주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님데까? 예? 그...》

《아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오래비가 지금두 얼마나 외우는지. 네, 반갑수다. 이거 세상이 너르다구 했더니. 이런 변이라구야!》

현씨댁은 갈라졌던 오랜 벼슬 객지에서 처음 만난 듯이 장선생의 두손을 마주잡고 어쩔줄 모른다. 그의 얼굴은 수십년 젊어진듯 밝아졌다.

순간 장선생의 눈앞엔 낮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처음 떡장사하러 북천향어구에 가서 봉변을 당하던 날 군고구마를 팔러 왔던 정할아버지의 옆에 붙어서서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열어놓은 널판자 문뒤에 사라지던 한 처녀의 얼굴이 정 할아버지와 꼭 같았는데...

《아, 저 정할아버지라구, 혹시.》 불언중 말이 튀어나왔다.

《예구, 맞았어유. 거 우리 아버지가 고구마를 구워 팔았대유. 늘 왜놈을 미워하더니 그 9.18사변후 유격대에 연락을 다니던중... 예구. 쿵쿵.》 현 씨는 말을 맺지 못하고 벌써 고질이 된 기침을 쿵쿵 짚어댄다.

《9.18, 9. 18!》

장선생은 미여지려는듯 한 가슴을 두손으로 움켜잡고 되뇌었다. 얼마나 많은 수난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가! 얼마나 친근한 사람들을 리벌어로 도탄속으로 몰아넣었는가...

장선생은 다시 추억의 심연속으로 빠져들었다.

옛도시는 소란스러웠다. 드문히 총소리가 울려왔다. 헌병놈들의 미친듯한 말발굽소리는 온밤 창밖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친근하게 보내던 선생들도 하루밤 영아네 집에서 묵어서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학교는 문을 닫았다. 최선생도 어디론가 가버렸다. 것처럼 복잡하던 북천향 큰 길에서는 어디서 날아온 종이장들인지 온통 널려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구울러 다닌다. 레배당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해질무렵 영아와 일환이는 해묵은 느티나무밑에 마주섰다.

《영아야, 김성주선생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았니?》

그 말에 영아는 훌쩍훌쩍 울음부터 쏟아붓는다. 벌써 오래전부터 소식이 감감하니...

《암만 멀리 가셔도 한주일을 넘지 않고 소식을 보내셨는데 ...》

영아는 넉두리처럼 말을 이어가더니 또 물음을 터친다.

벌써 몇번이나 영아와 일환이는 김성주선생님이 계시만한 모든곳, 하숙집, 학교기숙사, 령산우의 남은 절간에 다 가보았다. 그런데 어디도...

《야, 참, 난 아직 한번 만나뵈지도 못했는데. 나만 알았어두 너처럼 이렇게 울지만 앓구 찾아냈을걸. 에 참, 이 무서운 세월에 넌 그렇게 모르구야.》

《아니야, 꼭 계셔. 선생님은 꼭 어디서 계속 싸우고계실거야 꼭.》

영아는 안타까와 나무라는 일환이의 말을 똑 끊고는 확신있게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두눈엔 방울방울 구슬마냥 눈물이 쏟아지고있었다.

《애, 울지 말아. 오늘도 우리 어머니가 너의 할머니와 함께 그 령산의 절간에 가서 빌었다지 않니. 꼭 돌아오실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일환이는 두손을 가슴앞에 쥐고 멀리 하늘가에 반짝이는 새별을 우러러 부르짖었다

(야, 어디 계십니까?! 빨리 우리에게, 얼어든 이 땅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뿌려주십시오!)

《일환아, 난 갈래. 김성주선생님을 찾아서말이야, 후후.》

영아는 눈물이 대롱대롱 달린 얼굴을 들더니 일환이의 귀전에 속삭거렸다.

《뭐? 너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던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넌 너의 집의 외동딸이 아니냐!》

일환이는 놀라며 허겁지겁 말하였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나더러 가라고 했어. 하늘 끝이라 두 찾아가라고 했단다.》

《그러나 너의 할머니는...》

《할머니 몰래 갈래야. 나와 함께 우리 반의 춘란이가 떠난단다.》

《아니,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춘란이가 그러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요즈음 혁명군들이 왜놈들에게서 총을 빼앗는다고 말했대. 아마 그의 할아버지는 꼭 아실거야.》

영아의 얼굴엔 언제 흘렸던가 싶게 벌써 눈물이 보이지 않고 외거풀눈은 기쁨으로 반짝이었다.

《아, 그 군고구마를 파는 정할아버지 말이지?》
《그래.》

영아의 말소리는 기쁨에 떨고있었다. 순간 일환이는 언제나 함께 공부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밤길도 함께 걸은 이 영아가 이처럼 아름다우리라고 생각 못한 자신이 이상스러웠다.

포슬히 앞마를 덮은 검은 머리, 그 밑에 별빛을 담아 반짝이는 울퉁한 외가풀눈 그리고 방금 아침이슬을 머금은듯한 능금같이 익은 두볼, 오흘한 코마루 그리고 언제나 웃음이 튀어나올듯한 방싯 열린 도톰한 작은 입술. 정말 이게 나의 친구였던가. 그는 이 귀여운 벚을 그 누가 빼앗아 가는것만 같아 저도 몰래 영아의 해맑은 두손을 덩석 잡았다.

《나도 가자. 응, 혁명군에 함께 가자. 김성주선생님을 찾아가잔말이야!》

일환이는 언제나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간절한 이 마지막 말마디를 힘주어 다 하고는 기대에 찬눈으로 영아의 울퉁한 눈을 지켜보았다. 순간 영아의 두눈엔 그 무엇인가 반짝 빛나다가 다시 맑은것이 흘러내렸다. 영아는 조용히 흐느끼며 머리를 꼭 숙였다. 그바람에 그의 머리우에 살랑 내려앉았던 단풍든 느티나무잎이 의로운듯 차분히 땅에 내려앉는다.

《안돼. 우리 둘이 다 이렇게 떠나갔다가 혹시 김성주선생님께서 찾아오시면 얼마나 허전해하시겠니. 내가 없으니 네가 남아... 그리고 넌 집안에 혼자... 어머니도 앓지, 동생...》

영아의 목메인 소리에 일환이는 정신이 펄쩍 들었다. 그렇다. 영아가 없으면 내가 그를 대신하여, 것처럼 김성주선생님을 모시고 혁명해야 할게 아닌가...

일환인 이 시각 자신이 진짜 혁명가로 된듯한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기다릴테다.

끝까지 기다릴테야!

《쿨룩쿨룩.》

돌연 꼭 닫긴 덧창문밖으로 일환이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새어나온다.

일환이의 부풀어올랐던 가슴은 삽시에 얼어들었다. 아버지를 여윈 어수선한 자기 집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금년봄, 품팔이에 지친 몸으로 병까지 들어 신음하던중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가버린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열어놓은 창문너머로 저 반짝이는 새별을 지켜보지 않았던가!

《아버지...》

가슴속에 참고 참았던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온 가정을 떠메고나갈 무거운 짐에 짓눌린 일환이의 가슴은 그처럼 그리운 김성주선생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터져나갈듯 아팠다.

김성주선생님에게로 통하는 유일한 길잡이로 되었던 영아, 나의 가장 친근한 벚도 오늘 떠나가 버린다.

혹시 나는 영원히...

와슬렁.

해묵은 느티나무도 피로와 으스스 떨며 단풍든 나무잎으로 눈물젖은 땅덩어리를 덮어준다. 어디 선가 개짖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오더니 총소리가 어지럽게 들린다.

《일환아, 내가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꼭 소식을 전하마. 그리고 이번엔 널 꼭 데려가 김성주선생님을 만나뵙게 할테다. 꼭, 그때 네가 다시.》

영아는 밝게 웃으며 일환이의 두어깨를 희고 부드러운 두손으로 쓰다듬는다.

그러나 일환이는 목이 메여 대답할수 없었다. 이 험악한 세상, 이렇게 갈라지면 언제 만날지, 또 어디서...

그러나 모든것은 말없는 약속으로 이뤄졌다. 언제나 그 마음 변치 않으면... 혹시 광복된 고향에서...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우리 함께 북한강가에 나가볼가? 물론 미역 감으려는 아니야.》

영아는 재롱피우는 아이마냥 두눈을 썰룩거리며 묻는다.

《가자, 그래, 물론 미역감으려는 아니지!》

일환이는 뜨거운것을 속으로 씹어삼키며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떠나려는 영아의 그 깨끗한 심정을 가볍게 해줄양으로 빙긋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달렸다. 마치 언젠가 미역감으러 가던 그때처럼.

그들은 새날이 밝아올 때까지 지나간 즐겁던 나날을 회상하며 울고 웃었고 광복된 래일을 그려보며 웃고 울었다.

김성주선생님을 만나뵙게 될 그날을 약속하며...

다음날, 그는 갔다.

소슬한 가을바람과 함께,

무정한 세월은 흘렀다.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물결을 굽어보며 손꼽아 기다리고기다리는데...

10년, 10년 그리고 또 10년, 거세찬 세파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을 찾아 걸은 길은 얼마이며 툭아 오른 산발은 얼마이랴, 그러나 소식은, 소식은 묘연하였다.

외로운 쪽배마냥, 황량한 들판에 홀로 핀 들장미마냥 모태겨도 보았고 쓰러져도 보았다.

왜놈들밑에서 일해주지 않으려고 먼길도 떠나 보았다. 폭풍우 세찬 대서양으로, 찌는듯한 열풍을 맞아 인디아양으로...

그러나 결국은 다시 도적배에 돛을 싣고 떠나온 대륙, 바로 깊은 산골에 몸도 희망도 인생도 폭 묻고서 또 세월은 흘렀다.

아, 그리운 김성주선생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아, 나의 벗이여, 나의 길잡이여, 어서 빨리 이 몸을 그이의 뜨거운 품으로 데려가주렴... 어린시절의 벗 영아, 어찌하였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되었을 영아, 너만은 행복과 영광으로 넘칠 그 품에 안겼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던가.

그사이에 세상은 천지개벽을 이뤘으니 것처럼 기다리던 조국광복의 소식은 조국을 멀리 떠난 산촌의 초막집 창문도 두드렸다. 장선생의 기쁨을 어디에 비기랴.

그날부터 조국을 우러러 수천수만의 어린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사업에 몸을 맡기고 바로 어린 시절에 받아안은 그 행복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장선생이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자그마한 초가집에 돌아오면 장선생은 파아란 칠을 한 창문을 열어 젖히고 멀리 반짝이는 새별을 우러르며 혼자말로 속삭이였다,

《영아, 나는 우리 함께 저 별빛아래 받아안은 그 녀를 이 한가슴에만 받아안기엔 너무나 아릅차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 녀를 심어주는 선생이 되였소.

장일환이는 비록 이 초야에 묻힌 몸이 되어 천리길에 가닿을 길이 아득하나 내 뜻이라도 후세에 남아 그 품속에 가닿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난 그는 목이 메여 흰 머리털을 쓸어 내리며 지는 달아래 눈물짓군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장 기쁜 시각임에도...

그런데 어린시절의 꿈도 인젠 아득히 먼 옛말로만 남은 인생반년에 이렇게 행복의 전보 한장이, 50년 동안 침묵만 지킨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장선생은 언젠가 어린시절에 할머니에게서 들은 《밀가루비》라는 옛 이야기를 생각해보았다.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 하늘을 향해 백날을 빌었다.

그 지성에 감동된 하늘에서는 밀가루비를 내려주었다한다.

저 붉고 푸른 차창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이 바로 그 밀가루비가 아닌가.

(그럼, 나에게 하늘이 영아를... 아니, 아니야!)

장선생은 머리를 저었다. 그는 물론 건결한 유물론자였으니말이다.

(하여간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서도 꽃이 핀다고 것처럼 기다리던 영아가, 나의 귀여운 길잡이가 온 늘은 끝내 나를 찾아주지 않았는가.)

《영아야.》

장선생은 창밖을 지켜보며 조용히 불러보았다. 마치 저 희디흰 눈가루속에서 방긋 웃는 영아가 달려나올듯하여 두눈을 크게 떴다.

울퉁한 외가풀눈, 살짝 들린 들창고, 방금 피어 나려는 꽃잎처럼 하르르 열린 도톰한 입술...

(아니, 아니.)

장선생은 또 머리를 저었다.

(내 나이도 인젠 70이 눈앞인데 그가 어찌 늙지 않았으랴. 벌써 70고령이니...)

장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버릇처럼 귀밑머리를 쓸어내렸다.

(그 지나간 세월, 김성주선생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해쳐오느라 그도 인젠 썩 늙었으리라. 50년, 50년이니...)

그런데 나는 나는 무엇을 하였던말인가? 그 어디에 있어도 마음만은 변치 말자고 다짐했던 나는, 나는...

가슴을 허비는 자책이 온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광복의 혈전만리를 건고걸어 그림던 내 나라를 찾고 새 조국을 세우느라 신심을 다 바쳐 싸워 왔는데 나는... 고작해야 내 하나 인생을 건져 보려고 속절없이 떠다니다가 추풍락엽처럼 세월의 파도속에 영영 사라지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다시 영아를 만나 천리지각에서도 간직했던 그 소원을 털어놓는단말인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응?...)

장선생은 내리드러운 머리털을 피로웁게 움켜잡았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러고도 무슨 려치에 허겁지겁 여기까지 찾아왔던가. 응, 무슨 려치에 그 골수에 맺힌 소원을 풀어 보자고 꿈꾸었던말인가. 아니. 아니야, 안돼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오, 려차여 멈춰주렴.)

그러나 려차는 쏜살같이 달린다.

《아이구, 왔수다. 다 왔다오. 용림이에요. 저 <영미향>이 아직도 있을가유? 예? 장선생...》

뽕-

현씨댁의 종알거리는 소리에 화답하는듯 려차는 우람찬 경적을 울리며 역홈에 들어선다.

울긋불긋한 등불로 대낮보다 더 밝은 역두.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왁작 고아대는 사람들. 봄비는 사람들.

그러나 창밖을 향해선 장선생의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온통 안개속에 묻힌듯이...

덜커덩, 텅.

렬차는 천천히 멈춰선다.

장선생은 창턱에 덩실히 놓여있는 담배곽도 까맣게 잊은채 부랴부랴 러행용가방을 들고 문을 나선다. 입속말로 되뇌인다.

《누가 영아인가?! 누가 영아인가?!》

장선생은 콩크리트 역홈에 가방을 내려놓고 황급히 안경을 닦아 다시 쓴다.

이때 장선생은 그의 앞으로 다가오는 한 녀인을 보았다.

진회색 솜외투밑에 입은 흰치마를 바람에 펄럭이며 달려오는 한 녀인.

《아니, 장일환! 일환동무! 일환...》

목메인 부름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한다.

(아, 이것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나의 벗이란말인가! 그 피끓던 청춘은 어디 가고 피차 이렇게 지는 락업으로 되었던 말인가?!)

장선생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두손을 틀어잡은 갱뽕한 그 손길, 아니 아직도 뜨거운 피가 끓어넘치는 두 손만 꼭 쥐었다.

《일환동무,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언제나 기다릴줄 알면서도...》

영아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흐느낌속에 잠겨버렸다.

《영아, 영아, 기다렸소, 기다렸소. 일일천추로 기다렸소. 고생이야 영아가 오죽했겠소. 나야 뭐...》

끝내 찾아왔구만 고맙소, 고마와. 잊지 않고 찾아주어서...》

견잡을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사이로 그림던 벗의 얼굴을 지켜보는 장선생의 떨리는 목소리 역시 끝을 맺지 못했다.

《일환동무, 제가, 제가 찾은게 아니예요. 바로 우리가 그처럼 찾아뵈고싶어하던 그분, 동무가 한생을 그리워하던 그 위인께서...》

《뭐? 뭐라구. 응, 아니, 그래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김성주선생님께서? ...》

장선생은 마치 천지개벽이 된듯 자기를 잊고 오리무중에 빠졌다.

(뭘,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셨단말인가? 아니야, 나를 어떻게 아시구...한번도 본적이 없는 장일환이를,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장일환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렵던 시련의 나날에 L라를 찾겠다고 동분서주하던 동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나라를 찾았는데 함께 모여 밥 한술이라도 함께 나눠먹었으면 이토록 가슴아프기 않겠다고 하시며 혁명의 러명기에 살벌한 천지에서 수령님을 따라나섰던 동무를... 조국을 그리며 오매에도 눈물짓는 동무를... 이 세상 갈피갈피들 다 헤쳐 찾고찾아 그리운 그 품으로 불러주시었어요!》

영아는 말은 다치고 정겹게 울고 웃으며 장선생의 손을 이끌어 역홈을 나선다.

《우리 수령님께서... 나처럼 한일없고 세월속에 추풍락엽으로 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 마음 하나만 간직하고 살아온것만도 얼마나 귀중해요. 그리고 수령님의 품에 안긴 우리에게겐 세월도 영원히 청춘만 줄겁니다.》

말을 마친 영아는 마치 어린시절의 그날로 돌아온듯 깔깔 웃어댔다.

정녕 세월도 별빛에 싸인 청춘을 빼앗아갈수 없었던것이 아닌가!

장선생은 삽시에 온몸에 젊음이 소생하는듯 걸음을 재우쳤다.

그 말에 화답하듯 북천강 파도에 실려온 향긋한 봄바람이 이마전에 드리운 몇오리 머리칼을 훑날린다.

봄, 봄은 정말 늦게도 찾아온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게 아닌가!

《<영미향> 음... <영미향> 실로 영원히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곳! 그곳이 아직도 정녕 있지 않는가!》

장선생은 그제야 현씨댁의 물음이 생각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영미향이라...》

전환의 해

김희봉

음산한 하늘
철의 도시 강선이 눈보라에 묻혀있다.

설화

《1956년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역사의 해가 저물어가고있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 3개년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나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복구한 공장들을 돌리려 해도 새로운 건설을 하자고 해도 강이 더 요구되었으나 나라에는 여기 강선평에 단 한대의 분피압연기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공들은 6만톤능력 외아들압연기로 1957년에 8만톤의 강을 내야 할 아름다운 과제를 안고 분초를 다투며 모대기고있었다.》

분피압연직장

압연기가 거창한 동음을 울리며 강편을 밀어내고 있다.

테불이 오르내릴적마다 들쭉쭉이는 불벼락으로 자욱한 안개속에 묻혀있는 현상.

사십고개를 바라보는 듩직한 체구에 아직도 청춘 시절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교대장 박성국이 압연기를 운전하고있다.

이마에 즐린 밤, 열기 뽀는 두눈.

압연기를 운전하던 성국이 얼굴에 그늘을 지으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땀과 쇠먼지를 들썩 압연공들이 운반로라에 걸린 강편을 밀어내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여기로 성국이 지레대를 들고 뛰어든다.

그는 강편밑에 지레대를 박고 한두번 용을 써보더니 오라를 지은 쇠바줄을 들어 강편머리에 집어던진다.

《당겨라!》

압연작업반장 승범이가 쇠바줄을 허리에 감고 압연공들과 함께 안간힘을 쓴다.

지레대에 어깨를 들이밀고 지그시 힘을 주는 성국의 관자노리에 피줄이 바줄처럼 튀어오른다.

《영-차!》

마침내 녹아 붙은것 같던 강편이 움썩하더니 운반로라를 타고 굴러간다.

성국이 지레대를 던지고 운전실로 달려간다.

《자 빨리빨리 밀자구.》

운전실

분초가 아까운듯 재빨리 운전하는 성국이네들에게로 교대성원들이 들어온다.

《자, 교대합시다.》

승범이가 아쉬운듯 성국을 돌아본다.

《교대가 들어오는군요.》

《영?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시간이 모자라누만.》

성국은 밀고있던 강편을 마저 밀어내고서야 운전대를 놓는다.

압연기앞

나이 지숙한 로동안전원이 회전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교대를 끝낸 성국이 다가온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로라회전상태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냥 좋다구만 하지 말구요.》

《예.》

성국은 가열로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때 쌍태머리를 한 어린 딸애가

《아버지!》 하며 마주 달려온다.

성국이 딸애를 안고 한옆으로 비켜선다.

《오, 호영이냐? 그런데 네가 웬일이니?》

《평양삼촌이 왔어요.》

《평양에 있는 작은 삼촌말이냐?》

《네, 엄마가 아버지랑 경숙아지미한테랑 빨리 알려라구 했어요.》

《오, 그래.》

이때 또 군모를 거꾸로 쓴 다섯살 잡이 아들이 뛰어들며 아버지의 가슴팍에 안겨든다.

《아버지!》

《예끼 이너석아, 허허.》

호영이가 그러는 동생을 보고 보조개를 지으며 묻는다.

《경숙아지미 어디 있나요?》

《응 아마 위생초소에 있을게다. 네가 제격 뛰어 가서 평양삼촌이 왔다구 알려주어라.》

《예.》

직장밖

방금 승용차에서 내린 성철이가 건장 없는 군복차림인 승범의 손을 잡고 반갑게 묻는다.

《그래 언제 제대됐나?》

《벌써 한달 됐네.》

《한달?》

《응.》

하며 빙글거리던 승범이가 승용차결을 지나 직장 안으로 들어가는 간부풍의 사람을 보고 묻는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야?》

《응 나를 가르쳐준 내각사무국 부국장동지야.》

《그래.》

승범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성국이가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고 다른 문에서 나온다.

성철이가 반색하며 마주간다.

《형님!》

《삼촌!》

호철이가 성철에게 안기는것을 보며 성국이가 다가선다.

《아니 그런데 네가 웬일이냐?》

성철은 어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빙그레 웃는데 승범이가 대신 대답해준다.

《우리 공장으루 아주 내려왔답니다.》

《그래?》

성국은 대견해한다.

이때 호영이가 경숙이를 이끌고 나오며 종알거린다.

《아지미, 나 삼촌차 타구 왔다.》

위생복을 입은채 호영에게 끌려나온 경숙은 성철의 곁에 성국, 승범이 등이 있는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벗어선다. 성철이가 빙그레 웃으며 눈 인사를 보낸다. 수태를 머금고 고개를 떨구는 경숙, 성국이가 그러는 경숙이를 던지시 바라보다가 성철에게로 돌아선다.

《어쨌든 잘됐다.》

이때 내각사무국 부국장 허봉규가 인상좋은 표정을 하고 다가온다.

성국이가 그에게 인사한다.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예, 같이 왔소.》

《예.》

《동생이 와서 반갑겠소.》

《예.》

《그래 요즘은 압연기상태가 어땡소?》

《만가동을 시키느라고 애는 쓰는데 이것저것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음 가보지요.》

성국이가 직장 출입문쪽으로 향하는 허봉규의 뒤를 따라서며 승범에게 성철이를 말긴다.

《승범이 ...》

《예.》

그리고는 호철에게 타이른다.

《삼촌하구 같이 가거라.》

《삼촌 가자!》

분피압연기앞

압연기앞에 이른 허봉규가 성국에게로 돌아서며 묻는다.

《왜놈들 기록에 이 압연기 최고실적이 얼마더라?》

《3 만톤입니다.》

《응?》

《3 만톤...》

《응 기껏해서 3 만톤이지. 그런데 우린 6 만톤, 거기다가 2 만톤을 더해서 매년에 8 만톤을 한다는 건 대단하단말이요. 대단해!》

《대단합니다.》

《헌데 압연기를 한대 더 들여오지 않구두 할수 있을까?》

《나라사정이 긴장한데 어찌겠습니까. 좀 힘들어 두 지금 있는 이 설비루 해내야지요.》

성국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봉규는 시람좋은 웃음을 띠우며 은근히 오금을 박는다.

《할수 있다면야 좋은 일이구. 그렇지만 못할걸 하겠다구 하는것은 옳지 못하지.》

좌우지간 동생두 왔으니까 형제간에 손을 맞잡구 잘해보우.》

《예》

성국의 집

부엌에서 정국의 안해 분임이가 지지고 볶으며 분주히 일손을 놀리고있다.

호영이가 쪼르르 달려나온다.

《엄마 호철이 배고프대.》

《그래? 떡주지 자-》

분임은 저가락에 쥘기떡을 꽂아주며 호철이를 달랜다.

한편 방안에서는 성철이가 짐을 풀고 가져온 기술서적들을 책꽂이에 정리하고있는데 경숙의 오빠이며 기사인 경민이가 손님으로 와있다.

성국이가 그에게 말한다.

《난 6 만톤두 겨우 하는 형편에 8 만톤을 하자니 잡이 다 오지 않았는데 우리 성철이가 해내겠다누만.》

《정말 때마침 잘 왔소.》

성철이가 《참 내가 뭘...》 하며 민망해 하는데 성국은 마냥 기분이 좋았다.

《왜, 종이장두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지 않소, 난 이렇게 든든한 두 기술자가 있으니 이제 마음이는구만.》

이때 부엌에 경숙이가 온듯 분임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린다.

《형님 수고해요.》

《아니 왜 이제 오나.》

《아지미.》

《아 이걸 뭘다 가지구 오면서 그리나.》

성욱이가 움쭉 일어선다.
 《오, 왔구만, 자 어서 올라오라구, 여기 오빠두 와 있는데 .》
 경숙이 주춤거리는것을 분임이가 떠민다.
 《자 이런 아, 얼마 안있으면 한집안식구가 되겠는데 뭘 그러나.》
 《아지미 빨리!》
 경숙이 고개를 숙이고 방안에 들어서자 성욱이가 밥상을 퍼놓으며 부엌에 대고 소리친다.
 《자 앉소. 여보 거 뭘하구 있소. 빨리빨리 들여보 내지 않구.》
 이어 분임이가 작은 상에 음식을 차려 들고 들어선다.
 《자요.》
 분임의 손에서 술병을 받아들던 성욱이가 짐짓 놀라는척하며 묻는다.
 《엉?! 아니 이걸 어디서 났소?》
 《삼촌이 가져왔지요. 이걸 아지미가 가지구 오구요.》
 분임은 경숙이가 가져온 삶은 감지를 상우에 올려놓으며 한마디 더한다.
 《반가운 생각을 하면 좀더 잘 차려야겠는데 마음뿐이에요.》
 《애들은 뭘 좀 먹었소?》
 《다 줬어요. 요즘은 애들이 점심밥을 모르구 사니까 저렇게 쫄면떡두 잘 먹는구만요. 호호...》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으면 됐지 원. 야 성철아 너두 내려오너라.》
 성욱이가 경민의 잔에 술을 부으려는것을 경민이가 《가만.》 하고 막으며 병을 앗아든다.
 《아 인주우. 자 경숙아 네가 부어라. 어서!》
 성철이가 부끄러움을 타는 경숙이를 보며 빙그레 웃는다.
 경숙이가 성국의 잔에 술을 부으려 하자 성국이 《가만.》 하더니 작은 잔을 밀어 놓고 사발뚜껑을 벗겨 내댄다.
 《아니 당신은 또...》
 《왜 제수님이 붓는 컵 잔인데 푸짐히 받아야지 안그렇소?》
 성국은 경민이와 마주 웃고 나서서 경숙이 부은 술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움쭉 일어선다.
 《아니 왜 일어나오?》
 경민의 물음에 성국은
 《처남매부끼리 앉아서 얘기 하오. 난 아무래두 쯔나가보구 와야겠소.》
 하며 웃옷을 입는다. 분임이가
 《아니 오늘같은 날에야 뭘.》
 하고 만류하려는데 성국은
 《우리두 발편잠을 잘 때가 있겠지. 하하.》
 하며 그대로 나간다.

압연직장

출장에서 돌아온 차림인 지배인이 자못 근엄한 표정을 하고 압연기앞에 서있다. 성욱이가 그의 등뒤에 다가선다.
 《지배인동무,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예, 수고했소. 그새 다른 일은 없었소?》
 《예, 그저 가열로가 그냥 말썽이지요. 열을 좀 올리재두 레루가 그냥 휘는데 이거 무슨 마련을 봐야겠습니다.》
 지배인은 대답없이 툼동적으로 움직이는 압연기만. 지켜보더니 이윽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돌아선다.
 《저리 좀 잡시다.》
 《예.》
 성국은 지배인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것을 보고 말없이 따라간다.

휴계실

지배인이 책상우에 가방을 놓으며 무겁게 입을 연다.
 《이번에 전원회의에 참가해 보니 수령님께서 전날 고장난 압연기앞에서 20 분이나 기다려 압연기가 돌아가는걸 보시구 가신 까닭이 있었더라말이요.》
 《어쩐지 그날 신색이 좋지 않으시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한테 내색은 많으시구 오히려 압연기 돌아가는걸 보니 힘이 솟는 다구 고무하구 가셨지만 그 말씀 뒤에 것처럼 가슴아픈 사연이 계신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지배인의 눈곱이 젖으며 목소리가 갈려나온다.
 심중한 표정으로 듣고있는 성국에게 지배인은 계속 말한다.
 《그때가 바로 이번 전원회의를 앞두구 정치위원회를 하시던 때였다오.》
 《아니, 그럼 정치위원회를 하시다가요?》
 《그렇소. 이번 전원회의에서 3개년계획을 총화하구 5개년계획의 첫째 과제를 눌러야 할 대목에 자금 사정이 긴장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강재를 절반밖에 못들여오게 됐다는게 아니겠소.》
 가슴아프게 듣고있는 성국.
 《그런 일이 있었됐구만.》
 《그래 사흘째나 토의를 계속했지만 방도가 나서지 않았다는거요. 그렇다구 6만톤공칭능력에 8만톤 과제를 준 우리한테 짐을 더 실을수는 없구...》
 지배인도 피로운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잇는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회의를 하시다가 너무도 마음이 무거우셔서 여기 나와 압연기 돌아가는걸 보시구 돌아가셨다는게 아니겠소.》

《수령님께선 우리가 힘들어 할가봐 내색을 안하셨지만 우에선 그런 사정을 다 알겠는데 우리한테 왜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말아요.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좋은 소린 들려오는게 없구,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구 시비질하지.》

《아니 그건 무슨 소립니까?》

성국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노기를 띠었다.

《흥 그게 인민생활이 곤란하다는걸 걸구 중공업을 앞세우자는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반대하면서 있는데루 다 때려먹구 말자는 소리요.》

《알만합니다. 물론 우리 생활이 아직 넉넉치 못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우린 통강냉이를 삶아먹 으면서두 이보다 더한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두 싸움이야 계속하구있는 셈이지. 미국놈들이 리승만을 부추겨 우릴 먹자고 드는데 허리띠를 풀어놓고있을수야 없지 않소.》

성국은 근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본다.

《그러니 우리야 강을 더 내는 길밖에요.》

압연기앞

승범이가 압연기를 세워놓고 운전실계단을 급히 내려온다.

성국이가 그앞에 마주 간다.

《승범이! 압연기는 왜 또 세웠소?》

《아, 강피가 나와야 밀지요.》

《이건 쟀장. 그놈의 가열로가 또 말썽이구만. 올라가보라구.》

《예.》

성국은 급히 가열로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가열로앞

성철이가 가열공 춘보아바이와 쇠장대를 맞잡고 휘여든 레루를 바로잡고있다.

여기로 급히 뛰어드는 성국.

《어떻게 됐소?》

《로가 심상치 않아요.》

젊은 가열공의 대답에 춘보가 발을 단다.,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니까 레루가 휘네.》

《어디 좀 봅시다.》

성국은 춘보아바이의 쇠장대를 넘겨받으며 성철에게 묻는다.

《그래 로를 또 보수해야겠니?》

《그냥 더 견디게 해야지요.》

《어쨌든 빨리 다그쳐야겠소.》

성철이가 쇠장대를 뺏으며 경민에게 소리친다.

《기사동무! 스위치!》

경민이가 스위치를 힘있게 넣는다.

하얗게 단 강피가 운반로르에 떨어진다.

성국이와 춘보가 흐뭇하게 바라본다.

땀에 흠뻑 젖은 성철이가 가열로앞에서 물러난다. 경민이도 땀을 씻으며 다가온다.

《여보게 성철이, 또 한고비를 넘겼네》

《예, 하던 일을 마저 끝냅시다.》

사이좋게 걸어가는 두 기사.

춘보가 성국이 권하는 물을 받아 마시며 대견한듯 한마디 한다.

《임자 동생하난 정말 잘 두었네. 책상물림이라두 쇠내를 맡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일본새가 괜챻단말이야.》

《그렇다구 너무 취주진 말아야 합니다.》

《하하.》

제강소가 바라보이는 강기슭

하루일을 끝낸 성철이가 경숙이와 나란히 걸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노을속에 한것 행복에 겨운 그들의 모습.

가스발생로

젊은 열관리공들이 보이라에서 거꾸로 뿜어 나오는 불길을 보며 이마살을 찌프리고있다.

《아니 불길이 거꾸로 나와. 이거 야단났구나.》

여기로 성국이가 들어오며 다그쳐묻는다.

《어떻게 된거요? 가열로가 달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데.》

《그러기말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나두.》

젊은 가열공의 말에 열관리공이 불부는 소리를 한다.

《갑자기 다궤대니 목이 땀수밖에요.》

《영? 그래서 보구만 서있나. 아직 가슴들이 덜 달아올랐어. 가슴들이.》

성국은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연도밑에 가더니 연재를 털어내게 달아 놓은 철문을 열어젖힌다.

연재가 활 쏟아져내린다.

거꾸로 뿜어나던 불길이 안으로 잠겨든다.

《이쯤하면 됐지?》

《예.》

연재를 털며 통쾌하게 마주 웃는 그들.

이때 제강소 정문쪽에서 《만세!》소리가 터져오른다. 의아해하던 그들은

《영?!》

《아니 ...》 하며 놀란다.

구내길

눈내리는 구내길로 로동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달려간다. 그들속에 승범과 압연공들의 모습이 보인다.

현장기사들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던 경민이가 흥분하며 성철에게 말한다.

《아니, 수령님께서 오신게 아니요?》

《그런것 같소 자. 우리두 빨리 나갑시다.》

《응.》

구내길

성철이와 경민이 앞을 다투어 달려가는 노동자들 속에 섞이여 달려간다.

직장안

성국이가 옷에 묻은 연재를 털며 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온다.

계속 정문쪽으로 달려가는 노동자들.

젊은 가열공이 성국이쪽으로 달려온다.

성국이가 연재를 뒤집어쓴 젊은 가열공을 보고 멈춰선다.

《성호. 그 얼굴... 안되겠어.》

《아니 교대장동무...》

《나두?》

《예.》

《가만... 저기.》

《예.》

그들은 헤덤비며 랭각수퇴수구로 달려가 성급히 얼굴을 씻는다.

지배인실앞

함박눈 내리는 마당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고 오신 승용차가 벗어있다.

구내길

정문으로 달려나갔던 노동자들이 활기 있게 돌아오고있다.

뒤늦게 달려나오던 성국이가 문득 벗어선다. 젊은 가열공이 아쉬워한다.

《아니? 벌써 돌아오누만요.》

《그러기말이야.》

역시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국.

승범이가 눈을 털며 직장안으로 달려들어온다. 성국이 급히 마주간다.

《승범이!》

《예.》

《자네 수령님을 만나보셨나?》

《글쎄 수령님께선 이 손을 잡아주셨수다.》

《응, 그래!》

성국은 승범의 손을 감싸 쥐며 부러운듯 마주본다.

《야, 이 친구 이거... 수령님께선 지금 어디 계신가?》

《예, 지배인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협의회가 열리게 될거라구 하면서 성철이랑은 거기 제창 떨어지구 날 보군 압연기 가동일지를 가져 오라구해서 이렇게 뛰어오는 길입니다.》

《그래? 야, 빨리 가보라구.》

《예.》

걱정을 누르며 운전실쪽으로 달려가던 승범이가 급히 되돌아선다.

《아 저 교대장동무!》

직장밖으로 달려나가던 성국이가 멈춰서며 초조히 마주본다.

《영? 왜?》

《거 지배인동지가 그러시는데요 교대장동무는 협의회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두 여기 남아서 저 압연기가 제대루 돌아가게 하랍니다.》

《그건 왜?》

《아 이제 수령님께서 협의회를 끝내시구 나와보실수 있다구 말이 예요.》

《...응 알겠네... 자네 휴가를 받구 간다더니 어떻게 가지 았구있다가...》

《아 전원회의 보도를 듣구 이판에 색시나 데려오자구 떠날 때가 아니다 하구 주저았길 정말 잘 했지요, 하하...》

《여보게 승범이!》

성국은 부러운 마음을 금치 못해하며 승범에게 이른다.

《수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적엔 강문제를 풀자구 오신게 분명한데 가거든 우리 성철이한테 직장을 대표해서 잘 말씀드리라구 하계.》

《알겠어요.》

지배인실앞

뒤늦게 따라온 승용차 몇대가 연거퍼 벗는다.

지배인 서기실

직장장들과 기술일꾼들이 옷매무시를 바로 하며 지배인실로 들어간다.

협의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외투를 벗어 건다.

복도 한편에서 사무국 부국장 허봉규가 성철이를 생각하는척하며 은근히 오금을 박는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압연기를 한대 수입하는걸 승인 못받으면 장차 골탕먹을건 동무밖에 없다는 걸 아오. 복구건설때두 제강소를 수입폰드에 넣지 았구 자체로 복구할수 있다고 우겨대는 사람들때문에 수입설비를 전혀 들여오지 못했던거요.》

성철은 그의 말을 그럴듯하게 들으며 지배인실로 들어간다.

가열로앞

가열로의 온도가 정상으로 된듯 불길이 세차다.
그것을 흐트라게 바라보던 성국이가 직장밖으로 얼굴을 돌리며 낮빛을 흐린다.

그의 마음을 헤아린듯 조용히 묻는 춘보.
《왜 회의가 늦어지는게 걱정스러운가?》
《예, 인츰 끝나지 못하는걸 보니 협의회가 수령님의 뜻대루 잘 진척이 되는것 같지 않아서 그렇니다.》
《나도 그 생각일세.》
《아바이, 우리 좀 나가서 땀이나 식힙시다.》
《그렇게 하세.》

직장밖

성국이와 춘보가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휴식터로 걸어나온다.

춘보가 주물직장 지붕너머로 눈꽃이 하얗게 핀 백양나무들을 바라보며 감회깊이 말한다.

《저 백양나무가 이젠 지붕키를 넘었구만.》
《예. 늘 바라보게 되는 나무지만 볼 때마다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느끼곤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선참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시구.》

《그럼. 육친의 정인들 그 은정에 비기겠나. 해방되던 그해에 20년만에 찾게 되는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구두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여 나라 세울 큰일을 의논해주시더니...》

성국은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조용히 말한다.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함박눈을 맞으시면서 저희들을 찾아오셨구만요.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변하지 않는건 우리 강선사람들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이지요.》

《그래 이번에도 두 강때문에 오셨겠지?》
《예, 그런것 같습니다.》
이때 《교대장동무!》 하는 젊은 가열공의 목소리에 성국이와 춘보가 뒤를 돌아본다. 압연공들이 그들에게로 다가온다.

그들도 회의가 늦어지는것이 걱정스러운듯...
《교대장동무, 아직 소식이 없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것 같소. 그래 기대들은 다 정비해놔소?》
《예. 말끔히 해놔습니다.》
《응, 그럼 우리 들어가서 미진한데가 없나 다시 살펴보러 가자구.》
《예.》
《들어가게.》 하는 춘보의 말에 압연공들이 돌아선다.

강편처리장

앞서 들어오던 성국이가 철계단밑에 놓인 강재 토막을 보고 멈춰선다.

《아니 이건 왜 치우지 않았소?》
강편처리공이 당황해한다.
《이건 제가 미처...》
《미처가 뭐요? 정신없구만.》
성국이 노기를 띠고 강재토막을 치우려 하자 강편처리공이 송구스러워 하며 쇠장대를 빼앗는다.

《야, 주십시오.》
《됐어.》
《내가 해요.》
이때 젊은 가열공이 성국이를 부른다.
《교대장동무!》
《왜?》
《압연반장동무가 옵니다.》
《그래?》
하고 성국은 반색하며 돌아선다.
그런데 웬일인가? 승범은 뜻밖에도 어깨가 축 쳐져서 들어온다.

《승범이!》
압연공들이 승범이를 둘러싼다.
초조한 마음을 안고 다그쳐 묻는 성국.
《협의회가 끝났나?》
《예.》
힘없는 대답이다.
《수령님께서 현장에 오신다고 하지 않던가?》
《아니요.》
《아니, 왜 그러나. 협의회가 어떻게 됐게 그래.》
춘보도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끼고 독촉한다.
《말을 해야 알지.》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서 말하라우.》

정국의 말에 승범은 여전히 힘없이 대답한다.
《수령님께서서는 계획외에 1만톤을 더 밀어 9만톤을 할수 없겠는가고 하셨어요.》
《9만톤! 그래 우리 성철이가 뭐라고 말씀올렸나.》

《압연기를 하나 수입하든가 부대설비를 달기전에는 8만톤에서 760톤밖에 더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아연하여 굳어지는 성국.
모두 놀라는 속에 춘보의 목소리가 떨려나온다.
《기껏 760톤밖에 더 못하겠다고 했단말인가?》
마침내 성국이가 울분을 토한다.
《그래 자넨 뭘하고있었나. 사람이... 그래 지배인, 기사장동무두 그러한 성철이를 가만 뒤통던가?》
《분합니다. 동행한 간부들 모두가 그 이상은 더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같은게 말씀드려야 소용 있어요? 이거야 흐흑...》

승범이가 울먹거리자 춘보가 무릎을 꿇으며 주저 않는다.

《어이쿠, 이런 랑패라구야... 수령님께서 이 바쁘신 때에 우릴 민구 찾아오셨는데 이게 무슨 변인가 웅?》

이때 직장안에 들어서던 경민이와 성철이가 분위기를 보고 주춤 벗어선다.

성철을 보는 성국의 불편에 경민이 인다.

《네가 뭐길래 감히 수령님 앞에서...》

당장 요정널 기세로 한 압연공의 손에 들린 쇠장대를 나꿔채는 성국.

압연공들이 말린다.

《교대장동무!》

《놓으라구.》

성국의 눈에 불이 이는것을 보고 놀라는 성철, 모두 성국을 만류한다.

《참으십시오.》

《진정하십시오.》

《놓소.》

쇠장대를 틀어쥔 성국의 얼굴이 무섭게 이지러진다.

압연공들이 기를 쓰고 말린다.

《이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폭풍뒤의 정적인듯 이윽히 말이 없던 성국의 입에서 고뇌로 가득찬 부르짖음이 나직이 새어나온다.

《너두 당원이나? 거적때기를 쓰구살던걸 공부시켜 놓으니까 극상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냐!》

《나두 안타까와요.》

성철의 고통스러운 대답이다. 성국은 그만 온몸이 물에 잠긴 햇습처럼 나른해지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그의 얼굴에 비낀 고뇌가 얼마나 짙었던지 성철은 더 변명을 못한다.

경민이가 성철이를 조용히 타일러 데리고 간다.

주저앉은 성국이가 주먹이 터져라 하고 강편을 내리친다.

춘보가 그의 등뒤에 조용히 다가간다.

《교대장, 일어서라구.》

성국이가 피로운 마음을 안고 비통하게 웅친다.

《이런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아바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말입니다.》

그를 바라보던 승범이가 눈물을 빗짓는다. 그에게로 돌아서는 압연공들.

나이 지숙한 로동안전원이 조용히 묻는다.

《반장, 수령님께서 평양으로 올라가셨나?》

《아니요. 수령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구

백양나무를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오후에도 협의회를 계속 해

야겠다고 하시면서 지배인동무네 집으로 가셨습시다. 그때 수령님 안색이 얼마나 어두우신지...》

성국이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일어선다.

지배인의 집앞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다.

지배인이 깊은 생각에 잠겨 집앞을 조용히 거닐고 있다.

창문가에 소리없이 내려앉는 함박눈.

수령님 계시는 창문가를 우러르는 지배인의 얼굴에 무엇이라고 이름할수 없는 시름이 짙게 어려 있다.

수령님께서 타고 오신 승용차에도 함박눈이 덧쌓이고있다.

지배인이 발을 지거디디며 돌아서는데 문득 방 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 나온다.

《지배인동무, 거기서 눈을 맞으면서 뭘하오? 어서 들어오우.》

《아니 ...》

지배인이 굳어진다.

《좀 쉬시지 않으시구.》

《하하, 잠이 오지 않누만. 우리 같이 얘기나 좀 하시오.》

《예.》

지배인이 문가로 다가간다.

창문가에 쉬임없이 내리는 함박눈.

직장휴계실

성국이가 눈내리는 창박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다.

침통한 낮빛으로 여기저기 앉아있는 춘보와 압연공들.

강편처리장

눈을 털며 급히 들어선 지배인이 강편처리공을 찾는다.

《김동무!》

《예.》

《교대장동무랑 어데 갔소?》

《실에 있습니다.》

《영?》

《휴계실에 말입니다.》

알겠다는듯 급히 발길을 돌리는 지배인.

휴계실

창문가에 굳어져있던 성국이가

《동무들! 성국동무!》 하는 지배인의 목소리에 얼굴을 돌린다.

지배인이 다가오며 책망조로 말한다.

《아니, 여기서 뭘하구요? 전화두 받지 않구.》
지배인을 보는 정국의 눈에 물기가 어리더니. 조
용히 마음속 고뇌를 털어놓는다.

《지배인동무, 제가 한피줄을 타고난 제 동생의 마
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이 추운 겨울날 저희들을
민구 찾아오신 수령님께 큰 시름을 끼쳐드렸습니
다.》

《성국동무!》

《지배인동무, 지금이라두 다시 보고드리십시오.
저희들이 꼭 해내겠다고요.》

그의 마음을 헤아린듯 이윽히 마주보던 지배인이
홍분을 누르며 말한다.

《진정하오. 수령님께서 동무들을 만나보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소.》

《수령님께서요?》

《그렇소. 허물없이 우리 집에 들리신 수령님께서
는 오침두 못하시구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로
동자동무들을 만나봐야겠소. 그 동무들이 어떤 동무
들이요, 해방직후에 두 그래, 전후에 두 그래 언제나
당을 믿구 그 어떤 어려운 과업두 다 해제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던 동무들이 아니요.> …》

뜨거운 걱정을 삼키는 성국의 얼굴에 지배인의 목
소리가 계속 울린다.

《…<지금 당위원장동무두 학교에 가구 없는데 내
가 그 동무들과 의논을 좀 해봐야겠소.> 이렇게 말
씀하시면서 동무들을 영화 구경할 때 쓰는 창고에
빨리 모이게 하라고 하셨소.》

《예? 창고에요.》

첫순간 자기 마음의 고통을 헤쳐 보일 길이 열렸
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들먹이던 성국은 다음순간 자
기만을 생각했던 용렬한 생각을 인차 뉘우친다.

《아니 거기야 출구 어지러워서 어떻게 수령님을
모시겠습니까.》

《우리두 그런 말씀을 드렸소. 그런데 수령님께서
는 오히려 동무들을 걱정하시면서 통에 불을 뜨
뜻이 피워 줘지 않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소.》

《예.》

성국은 마침내 감격에 목메어 더 말을 못한다.

창고

영화나 볼수 있게 말뚝에 널장을 건너박은 행당
그레한 창고에 복닥불이 일었다.

성국이 승범이와 함께 복스를 피운 통을 메
고 들어선다.

《연통 맞추라구.》

《예.》

성국은 돌아서다가 바닥을 끌고있는 기증기운전
공처녀에게 타이르듯 말한다.

《물을 치구 쓸지.》

《아이 알겠어요.》

창고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성국의 눈길이 한 곳
에 멎는다.

경숙이가 무대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주하
실 책상을 정성스레 닦고있다.

성국은 그를 미덥게 바라본다.

승범이도 다가와 경숙의 기특한 소행을 보며 성국
이와 눈길을 마주친다.

책상을 깨끗이 닦은 경숙이가 수령님께서 앉으실
의자에 하얀 카바를 씌운다.

통안에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길.

성국은 한결 마음이 개운해진듯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본다.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고요히 내린다. 멀리서부터
후광처럼 비쳐오는 승용차의 불빛.

문득 소낙비가 겹히듯 술렁거리던 장내가 조용해
지더니 이어 《만세!》 소비가 터져오른다.

이어 립추의 여지없는 창고 뒤문으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은 수령님께서 들어서신다.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며 《만세》를 부르는 압연
공들과 제강공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노동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
며 앞으로 나오신다.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성국이와 승범, 춘보 등이
목청껏 《만세!》를 부른다.

감격의 도가니로 뚫어버지는 노동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들의 환호에 손
을 들어 뜨겁게 답례하신다.

설화

《언제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믿으시고 인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앞에 부닥친 난관
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강선의 로동
계급을 만나주시고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기탄
없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재더미를 헤치고 3개년
계획을 수행하였으나 아직은 인민생활도 매우 어려
운 형편이고 첫 5개년계획에 들어서자니 자재도 자
급도 부족하며 특히 나라의 강재사정이 매우 절박하
다. 그런데다가 국제정세가 복잡한 틈을 타서 내외
의 원수들이 또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들은 성국이와 로동
자들의 얼굴에 심각한 빛이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탁앞으로 나서시며 연설을
하신다.

《더 참을수 없는것은 이런 복잡한 정세를 리용해
서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머리
를 들구 우리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나선것입니
다.…》

긴장하여 듣고있는 성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신다.

《이자들은 인민생활이 이렇소, 저렇소 하면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잘못됐다고 시비해나서고있는데 그래 우리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자고 결심한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로동자들이 일시에 대답한다.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신다.

《그래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지금 있는데루 다 때려먹구 남들이 공산주의로 갈 때 손털구 나앉아서 구경이나 해야 옳겠습니까. 예? 동무들 대답해보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한 로동자들의 웨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제강공과 로동안전원이 연거퍼 일어선다.

《수령님! 어떤놈들이 그따위 수작질을 합니까?》

《할노릇이 없는 놈들이나 그따위 헛나발을 불라지요.》

이번에는 승범이가 일어선다. .

《수령님! 그런데 반혁명종파분자들이 어떻게 생겨먹은놈들이기에 아직두 뽀배다를 타구 돌아치게 내버려둬야 합니까.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당장 압연기로 밀어 없애버리겠습니다.》

《수령님! 우리 강선로동계급들이 규찰대를 무어가지구 가서 그놈들을 끌어다 전기로에 처넣겠습니까.》

격노한 로동자들이 파도처럼 설레인다.

《전기로에 처넣자!》

《옳소!》

《보내주십시오.》

마침내 성국이가 벌떡 일어서서 목청껏 웨친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끌어버리고 우리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사수하자!》

성국의 선창에 따라 격노한 군중의 웨침이 고조된다.

성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르며 정중히 말씀 드린다.

《수령님! 우린 당의 로선을 지지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성국이를 이윽히 지켜보시다가 주석단에서 내려서신다.

《난 오늘 동무들을 만나보구 우리 당의 결심이 옳았다는걸 다시한번 확실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구 동무들은 나를 믿구 나라의 어려운 고비를 타개해나갑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에 찬 말씀에 접한 온 장내는 마침내 파도처럼 설레인다. 격정에 넘쳐 웨치는 성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만세!》

《만세!》의 웨침이 하늘을 찌를듯하다.

성국이와 춘보가 부둥켜안고 격정에 넘쳐 《만세!》를 부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만세!》를 부르는 로동자들의 얼굴에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여 답례를 보내신다.

서로 손을 맞잡은 경숙이와 분임의 얼굴에도, 심장으로 《만세!》를 부르는 춘보와 승범의 얼굴에도, 마디진 손을 맞잡고 흔드는 성국의 얼굴에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눈썹이 하얗게 핀 강선의 백양나무에 함박눈이 고요히 내린다.

잠들지 못하는 로동자지구에도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밤이 깊도록 꺼질줄 모르는 성국이네 집 창문가에 불빛이 반짝인다.

성국의 집

깊은 밤. 성국이가 조용히 앉아 수첩의 갈피갈피에 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긴다.

못견디게 그리운 친어버이의 모습을 그려보듯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숙연히 머리를 드는 성국.

그의 귀전에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되살아 온다.

《지금 동무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는 짐만 해두 아름찬데 그대두 당은 동무들밖에 믿을데가 없습니다. … 해낼수 있단말이지. 고맙소. 손이 몹시 거칠어졌구만 나라의 보배손이말ियो.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당의 보배손이 말ियो. 하하하… 동무들은 나를 믿구 나는 동무들을 믿구 나라의 어려운 고비를 타개해나갑시다.》

창밖에 쉬임없이 내리는 함박눈, 함박눈…

가열로앞

성철이도 피로운 마음을 안고 홀로 앉아있다.

성국이 눈을 털며 들어서다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성철이를 본다.

인기척에 돌아보던 성철이 슬며시 눈길을 떨 군다. 성국이가 그러는 성철이를 측은히 지켜보다가 곁에 다가와 앉는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여는 성국.

《너 수령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래 뭐 좀 생각되는게 없니?》

《전 오늘처럼 피로와 본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술자의 량심으루 할수 없는걸 한대구 말씀 올릴수 없었어요.》

성국의 기대가 어긋났다.

《뭘 기술자의 랑심? 지금까지 앉아 생각했다는게 그게 다냐.》

성철이도 진심으로 피로운듯 안타까이 묻는다.

《형님, 그럼 무슨 방도라도 있습니까?》

《방도?》

《예, 전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당에서 하라구 할 때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구 타산을 앞세워 본적이 없다. 무조건 해야 한 다구 생각하구 방도는 그다음에 찾는게지... 아무리 높은 산두 하늘아래에 있다구 생각하면 오를 용기가 나는 법이야.》

말의 뜻을 알수 있으나 도저히 따를수 없는 막연 함에 사로잡혀 가볍게 한숨 짓는 성철.

성국은 그러는 동생을 측은히 지켜보다가 담배를 꺼내며 조용히 말한다.

《그건 그거구 내가 네게 가슴아픈 소리를 했다가 너무 섭섭히 생각 말아라.

내가 아니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주겠니. 난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구 가열로결에 거적을 깔구 살면서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눈을 감지 못할가봐 너 하나만은 책가방을 메워 학교에 보내지 않았니. 그랬지만 극상해서 소학교까지밖에 못보내구 뼈두 굵지 않은 너를 가열로결에 세울 때 난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삼켰다. ... 그러던 네가 누구덕에 대학공부를 하구 기사가 됐니?》

성철이가 저려드는 가슴을 안고 묵묵히 듣는다. 성국이가 계속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복수자의 맹세

서동린

눈물을 거두라
눈물을 흘리기엔 한떨기 무덤가의 꽃이
너무도 많은 말을 품고 우리앞에 피여있다
어린 수난자들의 최후의 고통을 안고
무서운 복수가 산악처럼 일어서는 우리 마음도
102 어린이들과 함께 몸부림치며 분노한다

처음으로 땅을 딛고 걸어 보던 그 천진한 나이에
가장 고통스러운 수난을 겪으며 피롭게 갇구나
어머니품에서 숨을 거둘수 있는
그 《행복》마저 빼앗기고
뼈를 태우는 불길속에서
연약한 그 숨결을 거두었구나

새별같은 그 이름들을 목메게 부르며
뜨겁게 한가슴에 안고싶다
살뜰한 손길이 강가에서 미역을 감겨주고
하늘높이 받들어 미래를 축복하던
사랑하는 꽃들아

아, 인류가 알고있는 최악의 한계점은 어디냐
피타는 가슴에 끓는 분노여
원쑤가 지른 그 불길, 그 고통으로 하여
미제흡혈귀들아
천백배의 고통안고 너는 숨지리라

단 하루도 떠난적 없는 어머니품에서
어린것들을 떼어낸 사흘,
차디찬 세멘트바닥을 기고기며 애타게 구원을
찾던

어린것들의 기진한 흐느낌소리를 듣노라
애끓는 그 울음소리 지척에 들으며
바라는 손길 내어밀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찢기는 아픔을 생각하노라

숨 막히는 불길이 타번지는 속
어린것들의 태질하는 숨결의 고통과
타드는 부드러운 살결을 생각하노라
오, 터져 오는 가슴이여
눈물을 거두라 분노여
그 순간의 원쑤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라

서리발 비수여!
뢰성이여 벽력이여
살아서는 안될 이 원쑤를 치라 검은 심장을 무
찌르라
산산이 짓이기고 조각내어
그 한점 가루마저
이 땅우에 버리지 말자
살인마의 더러운 살점을
깡그리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자

그렇다
이 원쑤와의 싸움이라면
내 언제나 앞장서리라
어린이들의 최후의 고통보다도
천만배의 고통을 안고 놈들이 죽게 하리라
하여 말 못하는 그들이 남긴 말
내 뗏뗏이 대답한 복수자가 되리라!

영화실효투쟁을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강성만

지금으로부터 한해전인 1983년 1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 전 사회적범위에서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우리 당 사상사업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리고 혁명투쟁과 문학예술의 천반적인 발전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독창적인 방침에서 최근 우리 영화예술이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들을 깊이 분석하시고 영화실효투쟁의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오늘 우리 영화예술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정치사상적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품격에 있어서 새로운 높이에 이르고있다. 특히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1, 2부), 《월미도》는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교양하고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영웅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참다운 교과서로, 혁명의 무기로 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주인공 차석빈의 형상을 통하여 당원은 당정책앞에서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을 받들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1, 2부)은 전쟁과 전우의 그 준엄한 나날 당과 수령을 받들어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내는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영웅적형상을 통하여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이겨나가는 불굴의 투지, 혁명적신념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고있다.

이와 함께 예술영화 《월미도》는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월미도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수령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람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한목숨을 바쳐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이 모든 영화들이 도달한 정치사상적 그리고 예술적성과들을 깊이 분석하면서 영화실효투쟁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와 실효투쟁 방향과 방도

들에 대한 뚜렷한 해명을 주었다. 당의 이 독창적인 방침에는 당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만이 아니라 문학예술창작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예리론문제들 즉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기능문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문제, 혁명적수령관 문제, 문학예술의 진실성문제 등 제반문제들에 대한 깊은 독창적해명이 주어져있다.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인 범위에서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방침은 우리 혁명발전의 직관적요구, 우리 당사상사업의 내적필연성 그리고 우리 영화예술이 도달한 사상예술적성과를 심오하게 반영한것으로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방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나라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며 우리 인민앞에는 전례없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사회주의건설의 10대전망 목표를 점령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이 모든것은 당사상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굳게 다져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을 모르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당정책관철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모진 시련을 이겨나가는 불굴의 혁명투사 이것이 오늘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참된 공산주의자,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우리 당의 방침은 무엇보다 우리 혁명발전의 이 객관적요구의 우리 당사상사업의 내적필연성을 반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방침은 또한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 영화예술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심오하게 반영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영화는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으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혁명교양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를 그저 흥미거리로 보여줄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상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실효가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날수 있게 영화보급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우리 혁명발전과 당사상사업에서 영화예술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 영화예술의 전투성, 선동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혁명적영화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었으며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왔다. 우리 당은 우리 영화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독창적인 문예방침들과 문예리론들을 내놓고 우리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서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예술영화 《군단책임비서》, 《언제나 한 마음》(1, 2부), 《월미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우리 당의 이 빛나는 구상을 실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전형들이다. 이들의 풍부한 내면세계에는 오늘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사상정신적높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방침에는 우리 영화예술이 도달한 이 커다란 성과가 집대성되어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방침은 이 모든 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현명한 방침으로서 거기에는 그 언제 어디서나 기존관념과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모든 사업을 생신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이 깃들어 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보람있게 살며 일하려는 뜨거운 열망은 온 사회에 차넘치고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는 커다란 비약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은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도 커다란 생활력을 낳고있다.

일찌기 문학예술사에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영화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이 당사상사업의 강유력한 무기로써 인민들의 사상정치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적은 없었다.

우리 당의 방침은 무엇보다도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적기능을 현저히 높이고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 영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학예술은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참다운 교과서로, 무기로 되고있으며 혁명적문예작품이 창조한 참다운 주인공들은 인민의 심장속에 살아남아 그들과 같이 숨쉬고 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불굴의 투사로 교양하고 있다.

예술과 혁명실천과의 련계, 예술과 인민생활과의 밀접한 결합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문학예술의 사상정치적 높이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혁명적수령관의 철저한 구현 이것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가장 고결한 사상미학적특징을 이루고 있다.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문학예술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기본요구이다. 이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을 모든 사이비문학예술과 구분하게 하는 기본특징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혁명적수령관의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주의문학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미학적 문제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오직 이 문제는 인류문예사상 우리 당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당에 의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에서 원칙적요구로,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에 의하여 혁명적수령관의 문제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을 규정하는 원칙적요구로,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로 제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그 정치사상적높이에 있어서나 예술적 품격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게 되었다. 하나의 성격, 하나의 생활을 그러도 당과 수령을 옹호 보위하며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을 관철하는 립장에서 그리려는 작가들의 창작적립장은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웠다.

오늘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특징을 규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에서 새로운 높이에 이르고있다.

영화예술을 비롯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지금 당사상사업에서 일찌기 없었던 책임적이며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그것을 줄기차게 감당해나가고있다. 일찌기 문학예술은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과 같이 그렇게 로동계급의 당에 끝없이 충직한 헌신적인 문학예술을 알지 못한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성의 새로운 높이는 우리 당 중앙에 대한 견결한 보위정신, 오직 당만을 믿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려는 뜨거운 열망,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 철저성 그리고 당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들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는 열렬한 투쟁정신에서 나타나고있다. 바로 이 높은 사상정신적특징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을 당의 사상으로 훌륭히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부르는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의 예술적품격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다.

주체적인간학의 중심 주인공인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성격창조에서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높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의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아름답고 숭고한 성격적특징들은 바야흐로 우리 문학예술에서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생동하게 탐구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당을 받드는 변함없는 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나가려는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이들의 성격의 기본핵을 이루고있다. 이 드팀없는 신념으로 하여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 차석빈은 당의 은덕을 저바리고 당조직위에 자신을 올려세우고 당의 지시와 명령을 홍정하려 드는 기사장에게 준렬한 비판을 가하며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1~2부)의 주인공 정순은 온갖 시련과 곤난을 이겨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다. 또 이 드팀없는 신념으로 하여 예술영화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은 원수들을 타승하고 백전백승의 위훈을 떨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성격창조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은 영화실효투쟁과정에서 우리 문학예술전반에 널리 일반화되었으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창조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숭고한 전형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향토성을 받들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다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이어받은 우리 시대 혁명의 대변자들이다.

예술적진실성을 구현하는데서 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그 어떤 사소한 생활적분석과 파장도 허용하지 않는 고상한 사실주의 묘사정신, 높은 당적요구에 립각한 예리한 생활분석,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생활의 본질을 힘있게 꿰고 들어가는 형상의 철학적깊이 이 모든것들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새로운 예술적풍격을 이루고 있다.

영화실효투쟁은 특히 우리 작가들의 사상정신생활과 창작태도 그리고 창작기풍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 정신생활에서의 변화와 창작태도, 창작기풍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기초로 하고있었다.

영화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인민앞에서 지닌 자신의 시대적사명과 당적임무를 다시한번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보게 되었으며 당중앙의 견결한 옹호자, 보위자,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선동가, 당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혁명가로서의 작가, 예술인의 립장과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며 어떻게 창작에서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당중앙의 견결한 옹호자, 보위자로서의 자신의 립장이 작중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에 뚜렷이 구현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선동가로서의 작가의 립장이 작품에 옹게 옮겨졌는가 옮겨지지 못하였는가, 당정책의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들의 사상과 심장을 힘있게 틀어 잡았으며 영화의 주인공들의 립장에 서서 이 모든것을 깊이 돌이켜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맡겨준 혁명임무와 사명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높은 시대적사명감을 안고 창작과 생활을 대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의 새로운 사상정신적높이를 규정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립장과 자세, 창작기풍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하나의 생활현상, 하나의 성격과 사건 그리고 하나의 생활세부를 분석하는 데서도 철저히 혁명적수령관의 립장에 서게 되었으며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 립장을 취하게 되었다.

당정책을 견결히 지지하는 립장과 자세,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립장에서 예리하게 분석하려는 사상미학적안목은 지금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자세와 립장을 특징짓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이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계급적선이 그 어느때보다 명백하게 선것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열정과 사색, 창작적 환상의 높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한생을 살아가려는 작가,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망은 그들속에 불타는 창작적 열정과 사색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고상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끝없는 창작적환상으로 추동하고 있다.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기풍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데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주인공처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며 안전한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생활속에서 당과 인민을 위한 참다운 문학예술을 창조하려는 혁명적창작기풍은 지금 우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배하고있다. 최근 영화예술을 비롯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이 인민의 현실적요구에 더욱 민감하며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세부로 충만되어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이러한 창작기풍과 관련되어

있다. 당이 맡겨준 창작과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최상의 높이에서 수행하려는 작가, 예술인들의 불타는 투쟁은 지금 문학예술창작에서 훌륭한 성과를 낳고있다.

참으로 영화실효투쟁을 전당적,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그 거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이 내세운 높은 목표와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아직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을 통한 실효투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영화실효투쟁을 통하여 이미 거둔 성과들을 공고발전시키며 이 사업에서 새로운 더 큰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영화실효투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실효투쟁을 높게 총화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게 그것을 높게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영화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서 지난 시기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창조되였다. 이 경험과 교훈을 높게 살려나가며 새로운 요구에 맞게 영화실효투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오늘 절실한 요구로 되고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와 《언제나 한마음》(1, 2부) 그리고 《월미도》의 주인공들이 당과 수령께 바친 티없이 맑고 높은 충성심에 비길 때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 개진한것은 무엇이며 아직 부족한것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한다.

특히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서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 부족한것이 없는가, 그것을 문학작품창작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것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창작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이 내놓은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철저한 립장과 자세가 엮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작품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성격, 생활세부 모두가 우리 당정책으로 살아 숨쉬며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실효투쟁을 심화시키는데서 새로 나온 예술영화 《전환의 해》, 《시련을 뚫고》, 《만병초》를 가지고 실효모임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혀주시였다. 새로 나온 이 영화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우리러 따르는 항일투사들의 형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끝까지 관철하는 해방

후 우리 인민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바친 우리 인민의 높은 충성심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고매한 공산주의덕성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이 영화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숭고한 충성심과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

여기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과 인민이 맡겨준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더 큰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 그쳐나가고도록 무한히 고무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활동을 요구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 자기앞에 맡겨진 이 혁명임무를 드림없이 훌륭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일하며 생활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소설은 생활을 서사적화폭으로 폭넓게 웅심깊게 보여줄수 있는 문학형태로서 우리 인민의 당과 수령께 바치는 높은 충성심, 당정책관철을 위한 불굴의 투지와 열정을 생동한 묘사로서 철학적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우월한 문학형식이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앞에는 혁명적수령관을 더욱 깊이있게 구현하고 당정책적대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의 정치사상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생활과 성격을 철학적깊이있게 분석하여 작품에 구현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로 나서고 있다. 우리 소설가들은 우리 문학발전이 제기하는 이 사상미학적요구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성격창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고 사람들을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더욱 이바지하여 나가야 한다.

시문학은 시대를 뜨겁게 체험한 시인의 주정도로써 인민들을 직접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부르는 호소적이고 전투적인 문학형식이다. 시인은 그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시 한편으로써 천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시인들앞에는 시대의 전형적사상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더욱 심오하게 체험하며 시문학의 서정성과 공민적열정을 더욱 높이고 시적환상을 더욱 나래치게 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의 전투적시인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를 우리러 노래 《조선의 별》을 창작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그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을 그대로 안고 우리 인민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으로 부르는 시문학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혁명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우리 아동문학작가들과 아동문학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다. 오늘 아동문학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연령과 심리의 특성에 맞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며 동화, 우화, 동시, 아동소설 등 다양한 형식들을 더욱 빛나게 개척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야 할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들이 나서고있다.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시대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우리 아동문학발전이 제기하는 이 사상미학적과제를 더욱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극문학은 오늘 우리의 생활을 투쟁과 극적대립속에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속에 당정책관철을 위한 불굴의 투지를 심어주고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전투적인 문학형식이다. 오늘 우리의 극작가들앞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되살리며 현실주제를 반영한 《성황당》식연극을 창조함으로써 우

리 당의 연극혁명사상을 창작에서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할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극작가들은 수령님께 충직했던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이악하게 달라붙어 높은 충성으로 이 영예로운 당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문예론설 앞에는 영화실효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영화실효투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며 우리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영화실효투쟁과정에서는 당의 독창적 문예사상과 방침을 구현하는데서 수많은 성과와 경험들이 이룩되었다. 이것은 사상리론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의 방침과 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의 문예작품창작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일대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로 오라!

강남섭

순천으로, 순천으로
불타는 마음들이
비약의 발걸음들이
여기 10 만톤 대 비날론공장건설장으로
달려온다
!
달려온다! 노도쳐 온다!
어제는 아름다리 원목들이 실린
긴 차판들이 역구에 들어서더니
또 오늘은 어느 제철구에서 보냈을
철강재가 들이닥쳤다!

백두산 벌목공들과
불을 다스리는 용해공들만이 아니다
전연의 초소와
농장벌에서만이 아니다

교문을 나온길로
로동수첩을 받아권 단발머리들도
밤차를 기다리는 역대합실 손님들도
모두가 마음이 불붙어 달려오는곳-

보아라 비오던 여름날엔
어느 시군의 지원자들이 읍거리를 지나더니

눈내리는 오늘아침녘엔
제대군인들이 환영의 물결속을 걸어간다

길가에서 또 창문에서
끝 끝한 그 제대군인 사나이들을 여겨보며
나이 든 처녀들만이
귀속말을 하며 좋아했던가

대동강을 사이 두고
저쪽에는 비날론공장이
이쪽에는 6 천세대 새 도시가 선다고
우리 세대주들과
가정의 주부들만 기뻐했던가

아느냐, 오늘도 저 건설자들속엔
백발의 로인도 한몸 맡겨 뛰어들고
제 이름 지원자명부에 적여달라
이름 모를 길손도 여기서 발걸음 멈춘다

아, 건설장! 건설장!
여기에 온 나라의 마음이
다 함께 모여 살고있어라!
아, 건설장! 건설장!
여기에 모든 기쁨 다 꽃피고있어라!

하기에 어디서 무엇을 하건
 여기는 온 나라 사람들모두의 일터!
 하기에 언제나 조국의 숨결로 뿔뿔이
 여기는 사회주의건설의 최전선!

여기로 오라! 순천으로 오라!
 다시한번 조선의 본때로 일떠서는
 10 만톤 대 비날론공장건설장에
 사람들이여, 그대의 마음을 세우라!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살라!

나는 강선사람

조성래

《내 강선에서 왔소.》
 이 말은 그 어델 가나
 나의 첫 인사말
 내 사업의 첫 시작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오셨군요.》
 이 말은 나를 맞아주는
 못사람들의 첫인사

자재인수원 30 년,
 내 얼굴이 넓어서 그런줄 아오
 내 수완이 좋다고 오해들 마오
 만나는 사람마다
 따듯이 맞아주고
 구면처럼 살뜰히 도와나섬은

나라의 대들보를 세워가는
 강철전사!
 우리네 임무가 중해서 그런다오
 더더구나 사람들 부러워함은
 나라의 맡아들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그 믿음, 그 사랑 너무나 커서
 가슴들 뜨거워 그러는줄 아오

이걸 보소
 검덕의 동갑내기 어찌는가를
 투박한 내 손을 마주잡으며
 진정으로 정답게 속삭이는 말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의 그날,
 고향 먼저 강선을 찾으셨을 제
 일일이 잡아주신 그 손이 아닌가
 묻질 않겠소

아늑한 집을 두고
 출장길에 올라도
 언제나 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
 불비는 대합실의 출표구에 서면
 번거로운 판매과의 접수구에 서면
 《강선에서 온 손님》
 제일먼저 불러주고

대안에 가면 대안 친구들
 룡성에 가면 룡성친구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심장으로 받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명하신 손길 따라
 전당, 전민이 강선을 도와
 300 만톤 강철생산기지 확장에
 하나와 같이 떨쳐나섰으니
 1,500 만톤 강철고지도
 이제 한걸음이면 가당을 길

언제나 혁명의 첨단에
 강선이 있고
 언제나 기적과 승리의 첨단에
 강선이 있어
 강선의 메부리에서
 창조의 열풍은 나래쳐 가고
 온 나라의 숨결은
 강선의 박동과 함께 뿔뿔이

나는 강선사람!
 강선의 영예
 강선의 긍지를 생각할 때면
 아!
 이 가슴 뿌듯이
 격정에 설레누나.

신 념

로정범

비행기가 언제 달려들었는지 우리는 신작로 한 복판에서 치명적인 공습을 받게 되었다. 적기는 신작로를 스칠듯 내리꽂지며 기총탄을 퍼붓고 소이 탄을 던졌다. 심오분이나 될가말가한 사이에 소두마리가 죽고 달구지에 실었던 짐짝이 불타버렸다. 그 짐짝들은 이제 조직되게 될 광천면인민유격대의 후방물자였다. 우리는 모여앉아 타개책을 찾았다. 이리저리 한 의견들이 많았으나 소금 같은것은 다시 돌아가서 구해 와야 한다는데로 의논이 되었다.

내가 가기로 하였다. (나는 당시 면인민위원회 지도원이었다.)

같이 갈 사람은 후퇴전까지 연유창고 무장 보위대원이었던 최태훈동무였다.

우리 일행을 책임지고 가던 면인민위원회 재정과장 강석순동무는 가방에서 얼마간의 현금을 내주었다.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나와 태훈동무는 걸음이 그중 빠른 마차 한대를 돌려세워가지고 우리가 떠나온 면소재지로 향하였다. 우리가 읍거리에 들어섰을 때에는 벌써 저물녘이었다.

《인민약국》, 《농민은행》, 《광천소비조합》, 《역전리발》, 《팔죽》, 《신뎡》… 갖가지 간판들이 눈길을 끌던 거리는 한산한 기운이 떠돌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와지고있는 포소리를 가늠하며 어디론가 종종걸음을치고있었다. 이무렵이면 집집의 굴뚝마다에서 경쟁하듯 피어오르던 연기는 씨슈음을 한것처럼 성글어졌다.

나와 태훈동무는 제각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을 찾아 돌기 시작하였다.

도매소 창고나 식료공장 같은데는 이미 후퇴를 한 뒤여서 소금을 얻자면 개인집밖에 없었다.

유격대에 필요한 소금이라는것을 알자 사람들은 김장용으로 저장했던것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다. 손자 둘을 군대에 보냈다고 하는 어느 집 할머니는 내가 소금값을 내놓자 그런 법도 있는가고 벌컥 화를 내는것이였다. 날이 어두울 때까지 우리는 생각했던것보다는 꽤 많은 량의 소금을 얻을수가 있었다.

어디선가 후퇴뒤처리를 하는 모양인지 둔중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발뼉발뼉 다가들던 포성이 분명 가까이에서 들렸다. 자동차 한대가 길옆 도장방의 유리를 드르렁 울려 놓으며 만속으로 질주하였다. 그 차는 어느 사이에 어둠속 멀리로 사라져 버리고 한참 후에야 령너머에서 전조등빛이 반짝했다가 그것마저도 꺼져버리고말았다.

지체없이 돌아가야 하였다.

장거리 모퉁이를 돌아 나올 때에 나는 언뜻 이부근 어디에 신발을 팔던 가게방이 있었다는것을 생각하였다.

소금때문에 돌아다니면서도 나의 머리속에는 잃어버린 숨신통구리가 떠나지 않고있었다.

마차를 세웠다. 주위는 다가드는 위험을 느낀듯 불빛 한점 볼수가 없었다. 나는 신발가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곳으로 다가갔다. 내가 잡은 방향은 옳은것 같았다. 꼭 닫혀버린 빈집이 나타났다. 그 빈집째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문 두드리느 소리에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던 불빛마저 홀 꺼져버렸다. 다시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있을리 없었다. 뒤따라온 태훈동무가 제 성미대로 문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다.

《사람이 사람의 집에 와서 찾는데 대답이라도 좀 하시오. 문 좀 열어주오. 면인민위원회에서 왔소.》

면인민위원회라는 소리가 효력을 낸 모양이었다. 집안 어둠속에서 고집스런 물음이 들렸다.

《면위원회? 거짓말이 아니겠지?》

《정말입니다.》

태훈동무의 대답이였다.

《아니 몰라… 삼호리에서는 벌써 반동놈들이 날친다더군.》

집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면위원회에선 후퇴한지 오랜데 왜 아직 우물거리나?》

좀처럼 문을 열어줄 잡도리가 아니였다.

《그럼 한가지 물어나봅시다. 신발이 좀 있습니까?》

한시가 바쁜 때여서 나는 용건부터 물었다.

《신발? 있지, 지금은 팔수 없소.》

《무슨 신발입니까?》
《너자신 두 있구, 목다리 긴 가족구두도 있네.》

《로동화는 없습니까?》
《<찌까대비>말인가?》
《<찌까대비>가 뭐요? 왜놈의 말만 씨별이면서 ...》

태훈동무가 패섬했던차에 걸고들어졌다.
《보아하니 젊은 사람인데 말버릇이 좋군.》
그러면서도 문은 열렸다. 어느사이에 불이 켜졌는지 방등불빛이 밖으로 쏟아져나왔다. 흰 바탕에 푸른 줄이 간 무늬의 와이샤쓰를 입고 그우에다 밤빛 세루조끼를 입은 체소한 로인이 경계하듯 안경알을 번뜩이며 서있었다. 작달막한 로인이었는데 나이는 룩순이 가까와보였다. 하지만 첫인상에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강기있고 결쾌사나움이 느껴졌다. 태훈동무가 로인이 등뒤에다 감추고있는 도끼를 보고 찔찔 웃었다.

《그리고보니 애국자할아버지구만요. 죄송합니다.》

애국자할아버지라는 소리에 로인은 감추고있던 도끼를 슬그머니 비켜세웠다.

로인은 마뜩지 않은 눈길로 우리의 아래우를 훑어보고나서

《숨신이 소용된단말이지? 얼마나?》
하고 곰살궂게 물었다.
《있는데로 사겠습니다.》
《있는데로? 돈은 있겠지?》
《있구말구요.》
《그 많은 신발은 해서 어데다 쓰려구?》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눈이 번쩍 트이는것 같아 한발 다가서기까지 하였다.

《대여섯포대쯤 되네. 어데다 쓰려구.》

로인은 기어코 알자고 하였다. 속이고싶지는 않았다.

《...음, 유격대가 난다더니 뜬소문이 아니었군.》

로인은 삼을 찾아들고 뒤마당으로 나갔다. 따라 나서는 우리에게 로인은

《먼길을 가겠는데 다리쉽이나 하게나,》 하고는 로친을 불러 손님들에게 뭘 좀 대접하라고 이르는 것이었다. 한참후에 로인은 갑자르며 포대 다섯짝을 안아들었다. 나는 뜻하지 않은 소득에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태훈동무는 내놓고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나서는 로인에게 담배를 권한다, 성냥을 켜댄다 야단이였다.

《목다리 긴 구두도 가져오라나?》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십여켄레가 넘었다.

한켄레 값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지고있는 돈으로는 자라지 않을것 같았다.

하지만 동향도 좋은 로인이라 사정을 말하면 《인수증》이 통할수도 있었다.

나는 후퇴하는 우리 인민군대동무들이 종종 농민들의 지성어린 식사를 대접받고는 《확인증》을 써놓고 간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보통 공인도 도장도 없는, 날자와 군부대와 한 전사의 이름과 또는 차번호가 적힌 그런 것이 였지만 농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두곤하였다. 그만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건해주시고 령도해주시는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은 드림이 없는것이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고 재 진공하는 인민군부대들과 합동하여 우리 면인민유격대가 고향을 해방시킨 다음에야 알게 되였지만 면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마을인 삼호리의 박춘삼이라는 농민은 산을 타고 늦어 들어오는 우리 인민군대들에게 식사를 대접시키고 받아둔 그런 《확인증》이 무려 수십장(쌀로 쳐도 스무가 마디가 넘는)이나 가지고있었다.

이런 형편을 잘 알고있는 나였기에 나는 이 가계방주인에게도 그렇게 부탁해 보리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다.

《회계를 보자나? 좀 비싸네.》

그사이 신발을 종류와 문수별로 착착 가려놓는 로인이 수판을 들며 말했다.

《한켄레에 얼마나 됩니까?》

태훈동무도 돈이 모자랄것 같아 걱정되는 모양 이였다.

로인은 대답대신 《39 문이 22 켈레니 3 백구십원에 다 스물둘이라...》 하며 밤알만한 수판알을 푹각푹각 튕겼다.

《뭐요? 그렇게 비쌌니까?》

태훈동무가 놀란 소리로 웨쳤다.

《비싸? 비싸면 관두게나.》

하지만 그것은 노엽다는 소리라기보다 회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리같았다.

《말그대로 시세라고 하지. 시기에 따라가며 올랐다내렸다 하는것이 물건값일세. 장사란것은 리를 보자고 하는 노릇인데 비싼 값으로 넘겨받아가 본전에 팔수야 없지 않나...》

수판을 튕기는 로인의 여위고 긴 손가락은 기계처럼 놀았다. 계산은 빨랐다. 9 만 3 천 얼마라

고 로인이 총금액을 불렀을 때 나를 보는 태훈동무의 얼굴은 울상이었다.

《령수증을 하나 써주십시오.》

나는 로인에게 이렇게 부탁하고나서 우선 현금부터 꺼내 셀 차비를 하였다.

《그렇게 하지.》

로인은 안경너머로 글자를 확인하며 꼼꼼하게 《령수증》을 쓰고나서 허리춤에 매달린 도장집을 열었다. 나는 돈을 세기 시작하였다. 그 모양을 바라보던 로인은 의외에도

《돈을 넣게나.》

하고 말하는것이 었다.

태훈동무가 의외라는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음을 놓으라고 눈을 끔찍여보였다.

《돈은 후에 받기로 하세. 임자네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래 돌아오는 오겠지?》

로인은 안경을 벗어 습관적으로 알을 문지르며 다짐을 두듯 우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마주친 로인의 눈길은 두고두고 있을 수 없는 그런것이였다. 짓물린 눈가장자리속에서 정기를 잃기 시작한 두 눈동자가 나를 쏘는듯 지켜보는데 어쩌면 서글프게도 느껴지는 그 눈길은

《어디 말해보게. 그 대답 한마디에 나의 운명이 걸려있네.》라고 하는것 같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여 오고 무어라고 이름할수 없는 안타깝고 찢릿한 충격에 속이 떨렸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구말구요. 제 고향을 두고, 제 나라를 두고 우리가 어데 가겠습니까? 바로 다시 돌아올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나는 로인의 눈가에 번뜩이는 이슬을 보았다. 로인은 자기의 감정을 눈치챈게 달갑지 않은 모양 서둘러 안경을 걸었다.

《아무렴,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않으면 밀천을 잃네. 밀천이란 다른것인줄 아나? 그건 한마디 루 외적이 없는 제 나랄세.》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의 개만도 못하다는거야. 어디 임자네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겠나. 그건 강사로 늙어 온 이 가게방령감한테도 마찬가지일세. 그렇지 않은가? 성미 급한 젊은이?》

로인은 태훈동무를 성미급한 젊은이로 부르고나서 주름잡힌 볼을 실룩하며 빙긋이 웃었다.

《...세금을 미처 갚지 못한다구 주재소로 불려가 새파랗게 젊은 왜놈의 새끼한테서 따귀를 맞

던 일이 아직 가슴에 내려가지 않네. 그놈의 새끼들을 대신해서 이번엔 미국놈들이 들어오거든.

임자네들도 알겠지만 해방이 된 다음에야 이 거리에서 처음 가슴펴고 다녔네.

우리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다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인간을 재부로 여겨주는 세상이거든.》

짐을 마차에 실었다.

떠나자고 하는데 로인이 잠간 기다리라고 하였다.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로인의 손에는 털 모자 두개가 들려있었다.

《오늘은 임자네들이 내 물건을 많이 팔아주었으니 이걸 이틀테면 더가집일세. 건사하라구. 산속에서 추위를 맞게 될수도 있을테니...》

로인은 태훈동무와 나에게 하나씩 쥐여주며 맞는가 써보라고 하였다.

모자가 꼭 맞는것을 보자 로인은 흡족해하였다.

《...장사란 원래 신용거래라구두 하지. 신용이 첫째야.》

신용이란 장사거래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지. 가령 임자네들이 제 부모님이나 처자들에게 미국놈들을 쳐엎애구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장부답게 그것을 지켜야지. 알아듣나, 젊은이?》

《알아듣습니다. 꼭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새겨드립니다.》

태훈동무의 음성은 떨리고있었다.

《꼭 돌아오게. 신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로친네?》

어서 가라고 우리를 재촉하던 로인은

《깜빡 잊을뻔했구만. 털 하나 써놓고 가게. 후에라도 돈을 받자면 증빙문건이 필요할테지.》

하고 껄껄 웃었다.

마침 나에게는 떠나올 때 석준동무가 준 《확인증》 용지가 있었다.

나는 그 《확인증》의 기재란을 무시하고 큼직 큼직하게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개의 가게방에서 유격대에 쓸 숨신발 몇십켤레를 받았는바 값은 그때의 시세로 돌아오는 즉시에 광천면인민위원회 재정과에서 갚아주기로 한다고 박아쓰고 나의 이름을 밝혔다.

그 종이 아래권에 또렷이 박힌 광천면인민위원회의 공인을 보자 로인은 몹시도 만족해하였다.

《로인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피신하셔야지요?》

태훈동무가 로인을 걱정하여 물었다.

《내 걱정은 말구 임자네들이나 몸성히 잘 싸우라구.》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무쌍한 전법을 본받아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죽쳐 대던 유격투쟁의 나날에 나는 틈이 있을 때마다 배낭속에 고이 간직하고 다니던 현금을 꺼내보곤하였다. 그런 때마다 나는 약속을 지켜 달라던 로인의 간절한 부탁을 생각하였다.

…뜻밖에도 로인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왔다. 광천면 수산물탱동창고안에 갇혀있는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습격전을 앞두고 나와 태훈동무에게 정찰임무가 맡겨졌다. 가게방로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우리의 타산을 고려한것이였다.

우리는 야밤을 타서 로인의 집을 찾아들어갔다.

나와 태훈동무를 알아보자 로인은 나의 무릎을 쓸어 만지며 울었다. 그와 헤어져 20일 어간에 로인은 폭 늙어버렸다.

문턱에 앉아 쿨썰거리던 로친이 그 기간에 있는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거리가 강점되던 첫날에 눈썰이 소도적같이 생겨먹은 《치안대장》놈이 코가 삐죽한 미군장교 한놈을 데리고 들어와 금붙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였다.

로인이 없다고 딱 잘라매자 두놈은 집안팎을 발각 뒤졌다.

아무리 뒤져도 값진 물건을 찾지 못한 미군장교놈은 문턱에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로친에게 다가서더니 무작정 그의 치마자락을 잡아들쳤다.

로친은 기겁하여 펄쩍 주저앉는데 놈은 히히닥거리며 로친의 주머니에 매달린 은장도와 은방울 일속을 와락 뜯어냈다.

그사이에 《치안대장》놈은 벽에 걸린 로인의 세루조끼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떼내여 장교놈에게 내밀었다. 장교놈은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눈여겨보더니 《노, 노, 금》 하며 그것들도로 《치안대장》놈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치안대장》놈은 머리를 굽실거리며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그 모양을 증오에 찬 눈으로 보고있던 로인은 그만에야 참지 못하고

《이 세월엔 웬 개가 이리도 극성스러운지…》 하고 혀를 찼다,

불시에 《치안대장》놈의 주먹이 로인의 면상으로 날아왔다.

《뭘 개?》

로인은 입으로 흘러나오는 피를 닦으면서도 제 할 말은 다하였다.

《개도 모르나? 평안도 말루 <가이>라구 하지. 구정물을 조금 쥐도 꼬리를 흔들거던.》

로인을 사정없이 들이패는 《치안대장》놈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서있던 미군장교놈이 《헤이》 하며 다른데로 어서 가자고 놈을 독촉하였다.

놈들이 나갈 때 로인은 이를 갈며 호통쳤다.

《외상인줄 알게.》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루를 박았다.

《비싼 값을 물줄 알라구. 기어쿠 받아넬테니》

…

…우리가 온 목적을 알자 로인은 그 일을 자기가 말아나섰다.

《탱동창고를 지키는 놈들가운데 외상먹은놈이 더러 있네. 핑계 삼아 가서 알아보게.》

로인은 우리가 알고싶어한 모든것을 지지쿨쿨이 알아가지고 왔다. 그 이튿날에 있는 습격전투는 실로 깨끗하게 진행되였다. 미군장교놈을 포함하여 스물세놈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갇혔던 212 명의 애국자들을 구출하였다.

구출된 사람들 거의 전부가 유격대원이 되였다. 그것은 실로 커다란 힘이였다.

《치안대장》놈을 사로잡았다는 말을 듣고 그놈을 기어이 보게 해달라기에 로인앞에 끌어왔다. 로인은 의젓하게 행동하였다.

《무릎을 꿇어라.》

로인의 호령에 놈은 그의 발치에 엎적 엎드렸다.

《어떤가? 시계값이 좀 비싸지?》

그놈은 황급히 속주머니에서 레의 그 회중시계를 꺼내여 두손을 모아 올려바쳤다.

그것을 받아 몇번 문지르고난 로인은

《이것만으로는 안되겠데. 장사란 리를 보자고 하는 노릇이거던. 네놈이 개가 되여 섬기는 미국놈의 대가리를 몽땅 따와도 우리 집의 낫요장값도 안될걸…》 하며 씹쓸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후 나는 다시 로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재진공하여나오는 인민군부대와 협동하여 순식간에 고향을 해방시킨 우리 광천면인민유격대는 지체할 사이 없이 남으로 진격하였다.

전선이 38 도선지역에 기본적으로 고착되고 전쟁이 장기적인 진지방어전으로 넘어가던 때인

1951년 여름, 나는 다시 당의 부름을 받고 광천면인민위원회로 돌아왔다.

나를 맞아준 고향은 쓸쓸하였다.

이 거리를 떠나며 내 기억에 고이 간직하였던 어려운 유격투쟁의 나날에 더욱 지을수 없는 그리운것으로 선명하게 새겨졌던 고향거리는 추억을 이어줄 푼푼한 흔적 하나 남겨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고 돌아오면 다시 만날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리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수가 없었다.

녹슨 함석지붕아래 코딱지같은 빈지가 여닫기던 납작지그르한 가게점도 미국놈들의 폭격에 형체도 없이 무너져버렸다.

토굴집에서 나온 옆집 사람이 로인의 최후에 대하여 아는데로 이야기해주었다.

...로인의 가게방에서 나간 백로지가 전주대에 붙은 뼈라 (인민군대가 곧 돌아온다는)로 된것이 단서의 첫 고리였다.

다음날엔 기생첩년 같은 옆집 과부가 얼룩개구리 껍질같은 《돈》(당시 리승만피뢰정부의 지폐)을 내밀며 물건을 청하다가 로인한테 개망신을 하고 돌아갔다.

그날밤에 놈들이 뛰어들어 집을 뒤졌다. 벽장 깊이에서 레의 그 회중시계가 나왔다.

가택수색을 왔던 《치안대》 한놈이 그 회중시계가 행방불명이 된 《치안대》 대장놈이 가지고있던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랭동창고의 습격, 행불이 된 《치안대》 대장놈이 가졌던 회중시계, 개망신한 과부년...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던 놈들에게 있어서 그것이면 근거가 되고도 남았다.

가게방앞 길건너 전주대에 로인을 매달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고 물었을 때 로인은 저고리 속주머니에서 돈가방을 꺼내달라고 하였다.

돈가방속에서 얼마간의 우리 돈과 접은 종이 가 나왔다.

《무슨 종이인지 뻔건 도장이 찍혀있더군요.》

옆집사람의 말이였다. 나는 그 종이가 무슨 종이였음을 안다.

로인은 그것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웁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을거요. 이 종이가 바로 그 증거지요.》

이것이 숨넘어가기전에 로인이 할수 있었던 말의 전부였다.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들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알아들을수 있다. 로인이 무엇을 더 말하려 했는가도...

나는 로인이 숨졌다는 전주대앞에 서서 모자를 벗었다.

아직도 내 배낭속에는 로인에게 갚아주어야 할 현금이 있었다.

그렇다. 아직은 갚아주지 못하였다.

폐허, 그보다 더 아픈 가슴마다의 상처, 거리를 지나는 람루한 옷차림.

머리위로 놈들의 《비-29》 편대가 우르릉거리며 지나가고있었다.

38 선부근 어느 교지에선가는 지금도 총창을 비껴든 전사들이 백병전으로 내닫고있으리라.

원췌를 갚아줄것이다.

학교는 일어설것이고 신발공장도 복구하게 될것이다. 새로 생긴 리발관에서 다정한 녀인들이 이기고 돌아온 사나이들의 텃수룩한 두볼을 살뜰하게 어루만져줄것이다.

광천면인민위원회도 다시 짓게 될것이며 마당에 서있는 자전거들도 보게 될것이다.

석순동무, 태훈동무 그밖에 로인을 알고있는 몇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여 모인 날 저녁에 나는 현금 봉투를 내놓으며 그 령감의 로친도 폭격에 희생되고 친척들도 찾을수 없었다는 사정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돈을 로인이 살던 장거리오토로 곧추 뻗어나가게 될 새거리 건설자금에 포함시킬것을 제의하였다.

만일 로인이 살아있어 그것을 안다면 펍 기뻐 하리라고 믿으며...

동화의 특성과 동화적인 이야기

-박동무에게 보내는 편지-

리효운

박동무! 참 오래간만이요. 좋은 동화작품을 창작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오.

지금 모름지기 혁명의 후비대들을 위한 의의깊은 창작사업에서 귀중한 열매를 가꾸고있으리라고 믿고있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새세대들을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가르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아동문학 작품창작에서 우리가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오.

이 원칙적요구를 원만히 구현해 나가야 아동문학작품은 진정으로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훌륭하게 이바지할수 있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 세대들을 위한 아동문학작품을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고형상성이 높게 창작할데 대하여 여러차례 그 명확한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주시였소.

주체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문제가 우리 인민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 오늘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아동문학에 부과된 가장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임무로 되고 있다는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아동작가들뿐아니라 학부형인 작가들도 후대교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씌워진 아동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하여 활발히 론의해야 하리라고 생각하오.

최근 우리 아동문학창작에서는 성과가 크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많다고 생각하오.

박동무, 그래서 나는 오늘 동화창작과 관련하여 몇가지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펜을 들었소.

그것은 동화가 우화와 함께 우리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이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가장 알맞는 문학형식의 하나일뿐 아니라 적지 않은 작가들이 동화를 쓰고있으며 또

창작적성과와 교훈도 적지 않다는 사정과 관련되기 때문이요.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2년 1월 24일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여러차례에 걸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아동문학작품 특히 동화창작에서도 멀리 전진 해왔으며 실로 귀중한 수확을 거두고있소.

여기에는 현실생활과 동화의 호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동화의 종자문제, 동화를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과 미학적기호에 맞게 쓰는 문제, 동화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는 문제, 동화의 이야기줄거리를 바로 세우는데서 제기되는 문제, 동화에서의 성격창조의 특성문제, 동화적인 표현과 언어사용문제를 비롯하여 동화, 우화 창작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로 많은 창작실천적문제들이 활발한 론의를 기다리고있소. 그래야 축적된 귀중한 경험을 빨리 일반화하고 나타낼수 있는 부족점을 제때에 극복해나갈수 있을것이요.

박동무, 그래서 나는 이 많은 문제들중 우선 1982년도에 잡지 《아동문학》에 발표된 동화들을 중심으로 동화의 특성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옳게 인식하는 동시에 동화적인 이야기를 잘 엮는 문제만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하오.

× ×

동화창작에서 가장 풍요한 문제의 하나는 동화의 문학적특성을 옳게 깊이 파악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오.

동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철저하게 상상과 환상의 산물이라는데 있다고보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작품은 상상과 환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오. 상상과 환상, 이것은 문학예술창조의 날개이며 창조적사색의 자유로운 공간이요.

물론 사실주의문학에서 다 그러한 바와같이 동화도 역시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 때 작가의 상상과 환상이 빛을 내는것이요. 누가 말한것처럼 문학예술창조에서 실상의 눈부신 해빛은 땅에 닿을 때만 열을 내며 생물에 생명력을 주는것이요.

그러나 동화는 현실생활의 토양에 뿌리내리고 그것을 반영하면서도 풍부한 상상에 기초하여 동화적 형상을 강조하는것이 특징이요.

작품창작에 상상, 환상이 작용하지 않는것이 없지만 동화작가의 경우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예술적무기의 하나라고 보고있소.

현실생활에 기초하고 거기에서 출발한 풍부한 상상과 환상을 지니지 못하는 동화작가는 동화적형상을 창조할수 없소.

상상, 환상이란 당장 실현될수 없는것이라 하더라도 앞날에는 반드시 실현될수 있거나 현실생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수도 들을수도 없는것이지만 그것이 과학적이거나 로동계급적지향에 맞는것이라면 마치 현실에 있는 사실처럼 그것을 예술적화폭으로 창조하는 작가의 능력을 말하오.

상상, 환상이나 이와 련관된 련상은 생활에 대한 관찰, 사상과 감정의 축적에 의하여 현실처럼 꾸며내며 사람과 사건 등을 꾸며내는 인간의 특징이요. 여기서 상상하고 환상한것을 현실처럼 믿게 만드는것, 이것이 작가가 할 일이요. 이런 일을 잘하는 아동작가만이 풍부한 내면세계를 가지고 동화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초보적이며 기본적인 힘을 가진다고 말할수 있소.

동화에서의 의인화, 파장, 좁은 의미에서 볼리우는 환상의 수법들은 다 상상을 전제로 하는 동화창작의 기본수단들이요.!

그중에서도 우리의 동화들을 넘두에 둘 때 중요하게 론의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의인화의 수법과 관련되는것이요.

의인화의 수법이란 사물의 본질과 법칙에 맞게 동식물, 자연현상, 추상적개념 등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인간의 특성과 속성을 가진 성격으로 생동하게 재현하는 현실에 대한 환상적 반영의 특수한 형상적수법이라고 생각하오.

동화의 의인화수법에는 흔히 좁은 의미에서의 환상, 파장의 창작수법이 동반되며 동화창작수법으로서의 환상, 파장을 떠난 의인화란 없다고 보오.

지홍길작 동화 《세번째 별명》(잡지 《아동문학》 1982년 10호)은 이런 견지에서도 특색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오.

이 동화에서는 인물이 의인화된 성격으로서 그것이 동물의 생활습성, 생물학적특성들과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을수 있게 그려지고있소.

그것은 작가가 의인화된 대상의 특징적인 생활습성, 세태, 그의 고유한 성격적속성을 깊이 연구파악

하고 생활에 대하여 깊이 사색한데서 거둔 귀중한 형상의 열매라고 보오.

《세번째 별명》에서 집주인이 부지런한 집짐승들에게 집을 하나씩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황소는 지붕을, 닭은 해대를, 멍멍이는 대문앞에 보초막을 지어줄것을 희망하오.

그런데 큼직한 집을 쓰고 사는 돼지에게는 별로 해줄것이 없는데 자기 집에 먹을것을 꾸러 오는 동무들을 시끄럽게 여기고있는 그는 자기 집 앞뒤문을 없애고 울타리도 더 높여달라고 주인에게 애걸하오.

주인은 그의 요구대로 해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화가 된것이요.

멍멍이와 염소들이 먹어 보라고 가져온 호박이나, 도토리도 돼지집에 문이 없고 울타리가 높기때문에 들여놓지 못하니 먹을수가 없게 되였소.

게다가 돼지가 급병을 앓게 되여 동무들이 딱따구리 의사를 데려왔는데 그는 《이 병엔 꿀을 한단지 먹어야 합니다.》는 처방을 내리였소.

동무들에게는 손톱만큼한 방조도 주지 않던 돼지는 거꾸로 동무들의 방조없이는 살수 없게 되였소. 멍멍이가 애써 구해온 꿀단지도 울담장이 높아서 들여놓을수가 없게 되였소. 그래서 황소, 염소, 멍멍이들이 무동을 서서 겨우 꿀단지들 돼지무리안에 들여놓은수 있였소.

그러나 석달열흘만에 정신을 차리고 병이 나은 돼지는 《꿀꿀》이라는 말밖에 할수 없게 되였소.

작품은 제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웃들사이에 쌓아 놓은 담장이 결국 동무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게 하고 자기자신을 이웃들과 영영 갈라놓은 울타리가 되였다는 교훈을 주고있소.

이 동화에서는 돼지를 욕심쟁이 극단한 리기주의적성격으로 의인화하고있으나 그런 성격을 개념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돼지의 생활환경, 생활습성 동물적인 생태적특성들의 구체적인 재현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그럴듯하게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소. 즉 이 작품에서는 돼지의 형사에서 의인화 환상 파장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호상작용하게 함으로써 특징적이고 자연스럽고 실감을 주는 개성적성격으로 부각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오.

박동무, 교훈은 동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인화수법이 파장, 환상과 떨어져있을수 없고 파장, 환상, 생활세부들과 진실하게 결부될 때 비로소 의인화수법은 그 건인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다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있소.

박동무 그런데 내가 원고상태에서 본 어떤 동화들에서는 아직도 의인화수법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있었소.

그것은 동화에서의 의인화수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한것과 보다 많이 관련되어있는것 같소.

의인화는 성격에 입힌 바지저고리나 외투나 두루마기가 아니라 동화적성격과 형상의 유기적부분이요. 따라서 작가는 묘사하는 대상인 동식물, 사물의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유기체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속성과의 통일속에서 파악해야 할것이요.

어떤 미발표 현실주제 동화들에는 의인화된 동식물뿐아니라 여러가지 사물, 현상, 추상화된 개념 등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성격적특성이 그들에게 고유한 물질적 또는 생물학적속성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작가가 주관적으로 고안해낸 성격과 형상에 동식물이나 사물현상의 옷을 입히거나 모자를 씌우고있소. 그래서 그런 성격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며 뜨거운 호홉도, 예술적향취도 감득되지 않는 그야말로 메 마르고 뼈만 앙상한 《의인화》된 형상이 나타나군 하오.

동화작품에서 의인화수법과 관련하여 논의할 문제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소.

동화의 중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는 동화적인 이야기를 잘 꾸미는것이요.

동화적인 이야기해서 우리는 언제나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있소.

박동무,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란 무엇이겠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말하오. 다시말하여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란 진리성과 교훈성을 체현하고있는 간단하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생각하오.

우리의 동화들의 현실태를 녀두에 둘 때 동화의 특성을 잘 살려 좋은 동화를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동화적인 이야기를 잘 꾸미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소.

참신하고 깊은 철학과 진리를 담은 종자에 뿌리 박고 거기에서 꽃피나는 교훈적이며 사상이 깊은 동화적인 이야기를 창조하는데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보오.

그것은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사상과 진리를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밝혀주는 동화의 본래의 특성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기때문이요,

동화작품에서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아동소설과는 달리 인간생활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굴절된 상태에서 반영하여 창조된 형상, 상징화된 형

상을 녀두에 두고 말하오. 동화는 이야기 형식으로 씌여진 아동문학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줄거리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를 해결하는 특수한 문학형태 하나요.

물론 동화도 문학인것만큼 주제의 인간학적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가 근본 문제로 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소.

또한 동화도 인간성격을 창조하기는 하나 소설이나 기타 서사적 아동문학형태처럼 전개된 묘사를 통한 성격창조를 기본으로 하기보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인것만큼 철학적알맹이가 담긴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을 교양하며 이야기를 통하여 주요인물들의 가장 특징적이며 주도적인 성격적측면을 부각하는것이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여기서 중요한것은 동화를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창조하며 동화의 이야기줄거리는 간단하고 알기 쉽고 재미가 있게 만드는것이요.

그래야 아이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어린 독자들이 작품세계에 끌려들어가게 되오.

뿐만아니라 중요한것은 동화의 이야기줄거리는 반드시 종자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가지가 뻗고 꽃이 피어나게 하여야 하오.

교훈과 진리가 숨배이지 않는, 다시말해서 종자가 참신하지 않은 이야기거리는 그것이 아무리 간단명료하고 재미나는것이라 하더라도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오.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동화의 주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는 깊은 철학과 생활의 진리가 담긴 새롭고 특색있는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창조한다는 거기에 있소.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잘 꾸몄다고 생각되는 작품으로 황령아작 《눈 있는 화살》(잡지 《아동문학》 1982년 7호)과 김영삼작 《보물망치》(잡지 《아동문학》 1982년 2~3호)를 들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동화적이야기줄거리 창조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오.

동화 《눈있는 화살》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할 때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주제사상을 생동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밝히는데 성공하였소.

이 동화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네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소.

먼 옛날 반달마을이라는 고장이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늘쌍 큰 근심과 불안속에서 살아가고있었다....

어디선가 독수리놈이 날아들어 곡식을 짓몽개 놓는가 하면 아이들을 잡아가군하였기때문이다.

이 독수리놈은 날개가 두발이나 되고 몸뚱이는 장독만한데다가 두꺼운 가죽을 써서 화살도 부러뜨리기때문에 잡을수가 없었다.

주인공 쇠돌이도 아버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독수리놈때문에 잃고 홀로 남게 되어 큰 불행을 겪게 되었다. 그는 원쑤를 갚을 일념에 불탔다.

그는 이웃 할아버지가 북쪽에 솟아있는 흰바위산에 가면 신기한 돌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고 돌물을 화살에 묻히기만 하면 바위를 뚫을뿐아니라 그 화살에 눈이 생겨 원쑤를 따라가서 맞힌다는 말을 쇠돌이에게 한다.

그러면서 돌샘물을 찾아떠난 사람들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쇠돌이는 자기 손으로 독수리놈을 씹죽일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활쏘기, 칼쓰는 재주를 닦으면서 돌샘물을 찾아갈 준비를 한다.

돌샘물을 찾아떠난 쇠돌이는 도중에서 큰 꿈과 맞다들게 된다. 꿈은 육중한 바위돌을 마구 던지고 날려보낸 화살도 모두 쳐서 사방으로 내동댕이 치며 나도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어렵없다고 소리치면서 못가게 한다.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발단, 동화의 줄거리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마을로 돌아간 쇠돌이는 말리는 할아버지의 권고도 듣지 않고 힘과 지혜를 더 길러 꿈을 이기고 돌물을 떠오고야말겠다는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된다.

할아버지가 준 세자루의 단검까지 가지고 여러가지 싸움훈련을 실패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진행하여 힘을 키운 쇠돌이는 다시 흰 바위산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서 또다시 꿈과 맞다들렸다. 꿈은 쇠돌이에게 큰 돌을 마구 던졌으나 그는 날아오는 돌을 받아서 꿈에게 냅다던졌다. 나중에 꿈은 쇠돌이에게 밀려나왔으나 그가 두번에 걸쳐 쏜 화살 여섯개중 하나는 꿈의 어깨에 박혔고 다른것들은 발톱마다 박혀 꿈은 나동그라졌다. 쇠돌이는 억센 힘으로 꿈을 푹푹 묶어놓았다.

쇠돌이가 부모, 동생의 원쑤를 갚게 되었다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된 셈인지 꿈도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동화의 이야기줄거리에서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발전부분이요.

동화의 다음 부분은 이야기의 심화발전과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속도가 빠르고 긴장미를 가지고 독자들을 끌어가고있소.

작가는 독자를 긴장하게 만들어 끌고 가야 하는데 독자의 심리와 감정의 흐름에서 걸리는데 없도록 믿음이 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며야 하오.

이 동화는 이렇게 계속되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독수리가 달려들었다.

쇠돌이는 독수리를 향해 단검 세개를 던졌더니 그놈은 두 날개로 그것을 탁탁 쳐버렸다. 그러나 칼 하나가 그놈의 왼쪽 발목을 잘라버렸다.

그런데 잘라진 발목이 어느새 제격 붙었다,

쇠돌이는 황급히 또다시 세개의 단검을 던졌는데 그중 한개가 그놈의 꼬지를 자르긴 하였으나 그것도 역시 붙었고 연방 날린 화살도 바위돌에 부딪친것처럼 맥없이 떨어졌다. 단검은 이제 세개 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쇠돌이는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다. 두손에 칼을 하나씩 쥐고 독수리놈이 덮치려 내려오는 순간 칼을 힘껏 올려던지자는것이였다. 생각한대로 칼에 맞아 독수리의 날개 하나가 툭 떨어졌다. 쇠돌이는 달려가서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힘껏 내달렸다. 날개를 잘리운 독수리는 악에 받쳐 쇠돌이를 뒤쫓아왔다.

쇠돌이는 바위도 건너뛰면서 빨리 달렸으나 독수리도 어찌나 빠른지 숨돌릴사이 없이 뒤따라왔다. 독수리가 힘을 키운 쇠돌이보다 점점 떨어지게 될무렵 흰 바위산이 나타났다. 쇠돌이가 기뻐서 어쩔줄 몰라 하는 순간에 겨드랑에 끼였던 독수리날개가 그만 빠져나가고말았다. 날개가 독수리를 향하여 너울너울 날아가서 그놈의 겨드랑이에 붙으려고 하는 아차 하는 순간 숲에서 나타난 꿈이 그 날개를 들고 마주 달려왔다.

쇠돌이는 꿈이 시키는대로 흰바위산에 달려갔는데, 아무리 보아야 돌샘은 보이지 않았다. 꿈은 돌샘이 바위밑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쇠돌이는 독수리날개를 땅에 내려놓고 발로 밟은 다음 온힘을 다해 꿈과 함께 끄떡도 하지 않던 바위를 움썹거리게 하였다. 그때 달려오는 독수리의 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이 순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힘을 내라!》고 웅치는 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마침내 바위는 뒤로 번져지고 잔잔히 고여있는 노을빛 돌물샘이 붉은 안개를 피워올리고있었다.그런데 어느새 밝고있던 날개가 빠져나가 독수리에게 붙어서 그놈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르는것이 아닌가.

쇠돌이가 화살에 돌물을 묻혔더니 활촉은 노란곰물이 들었다. 한꺼번에 날린 세개의 화살은 독수리

를 따라가서 대가리와 가슴에 꽂히고 그놈은 몸부림 치다가 천길 벼랑밑으로 나가떨어지고말았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줄거리의 심화발전과 절정부분 이요. 다음은 동화의 결속부분이라고 말할수 있소.

이때에 곰은 눈물을 흘리며 《넌 나의 원썩을 갚아주었다.》고 고마와 하면서 자기도 동생과 새끼곰을 독수리놈에게 빼앗기고 흰바위산에 숨어살다가 어린 쇠돌이가 오는것을 보고 괜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쫓아버린 사연을 말하는것이였다.

곰은 쇠돌이가 결심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힘을 키워 원썩을 갚았다고 하면서 《넌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은 바로 신심을 잃지 않는데 있다는것을 깨닫게 해주었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박동무, 보는 바와같이 동화 《눈 있는 화살》의 이야기줄거리는 종자에서 움트고 자라 가치를 펴고 의미깊은 뜻과 교훈의 향기로온 열매를 독자들에게 안겨주면서 힘있게 끌어가고있소.

이상과 같이 《눈 있는 화살》의 동화줄거리에서 특징적인것은 철학과 진리가 개념이나 설명으로 직선적으로 전개된것이 아니라 종자에서 피어나서 가치를 펴고 명장의 꽃은 피우며 그속에 참신한 사상이 숨배인 열매를 맺게 한데 있는것이요.

다시말하여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야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작품의 주제사상이 동화의 형상적인 이야기, 동화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있소.

동화 《눈 있는 화살》의 이야기줄거리에서 특징적인것은 이야기거리가 재미있고 간단명료하고 알기 쉬운것이요. 우에서 소개한 동화의 기본이야기줄거리는 쉽게 전달할수 있게끔 간단하고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흥미있고 기발한 이야기거리로 충만되어있소.

박동무, 동화를 창작할 때 풍부한 지식이나 복잡한 사색을 요구하는 사건선과 형상체계, 많은 생활체험이 있어야만 이해할수 있는 인간감정의 오묘한 굴곡 등은 나 어린 학생소년들에게는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으로 말미암아 파악되기 힘들다는것을 언제나 념두에 두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오.

그런데 원고상태에서 본 일부 우리의 동화들의 병집은 기본이야기선이 종자에서 자라지 못하거나 뿌리를 약하게 내려 굽지 못하고 허약한것이고 또 이야기줄거리가 길고 늘어졌거나 사건이 복잡하게 엉켜 까다롭거나 기발하지 못하여 재미없는것이요,

우수한 동화에서는 기본이야기줄기에서 뻗어나간 잔가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을뿐아니라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복종되게끔 가꾸어져 있다는것을 알수있소.

그러나 우에서 지적한 일부 동화들에는 의인화 된 인물들이 등장하니 동화인가부다 하고 생각되지 소설적인 줄거리처럼 가지가 많고 필요이상 길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때문에 어린 독자들은 지루감을 느끼며 흥미를 잃게 되오.

우에 지적한 두편의 동화의 이야기는 다 동화적인 이야기줄거리의 특징적인 요구를 잘 구현하여 어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간단명료하고 직관적이고 재미가 있소.

박동무, 다음으로 동화창작에서 주목은 돌려야 할 문제는 이야기줄거리의 주선과 잔가지 기본이 야기와 일화, 세부들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요.

동화의 이야기의 기본주선과 잔가지들은 언제나 작품의 종자, 주제사상해명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하오. 따라서 통화의 사건, 일화, 세부들은 작품의 종자, 주제사상과 관계없는것이 되어서도 안되며 순수 흥미를 끌게 위한것으로 되어서도 안된다는것은 두 말할것 없소.

동화 《보물망치》를 두고 보시오.

작품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은 보물망치가 아니라 일이며 사람은 일을 부지런히 하여야 보물

망치처럼 보물을 만들어낸다는 종자를 담은 동화요.

이 동화는 일하는 사람, 사람의 일이 귀중하다는것을 주제사상으로 삼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귀동이와 보물망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엮어놓았소.

기본이야기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소.

옛날 한 마을에 자그마한 야장간이 있었고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귀동이가 일했는데 그들에게 망치가 하나 있었다.

장마통에 소작부치던 밭과 가장집물을 다 떠나 보낸 그들은 그 망치로 야장일을 전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니 야장망치가 먹을것을 차려주어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지주놈이 야장망치를 빼앗아가고말았다.

지주놈은 벼락부자가 될가하고 돈궤에 금덩이를 가득 채워달라고 하였으나 망치는 돈궤와 지주의 잔등과 뒤통수를 내리쬘고 불덩이가 되여 그놈의 집을 불태워버린 다음 귀동이네 집에 돌아왔다. ,

귀동이가 열여덟살이 되는 해 세상에서 보물망치보다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오던 할아버지는 《보물망치는 소리를 먹고 사는데 굶겨서는 안되느니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다.

귀동이는 이때부터 석달열흘동안이나 일을 안하면서 먹을것을 내라고 망치에게 말했으나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

배가 고플 귀동이는 보물망치에게 소리를 먹여야 한다고 한 할아버지의 말을 상기하고 노래랑 이야기랑 들려주었으나 망치는 먹을것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귀동이는 망치에게 쇠소리를 먹여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풀무질도 하고 모루쇠우에 호미와 낫도 올려놓고 힘껏 두드리면서 부지런히 일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보물망치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귀동이는 잘 지내게 되었다.

이 작품의 기본이야기줄거리에서 흠집이라고 생각되는것은 망치가 지주를 때려주고 불덩이가 되어 그놈의 집을 불태우고 귀동이에겐 돌아온 부분ियो.

이것은 기본이야기선에서 떼내어도 되는 군더더기요. 작가의 의도는 《보물망치》에서 계급적성격을 강조하자고 한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작품의 로동계급적선을 뚜렷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박동무, 이 작품에는 또한 이러한 기본이야기줄거리에서 뺄은 사건, 세부들이 있소.

석달열흘이나 건달을 부리면서 일을 안하던 귀동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상기하고 보물망치에게 소리를 먹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작은 사건, 기발한 일화, 재미나는 세부들이 그것ियो.

작가는 이 이야기대목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펼쳐보고있소.

처음에 귀동이는 《옹지, 할아버지는 늘 흥얼흥얼 노래를 잘하였지.》라고 생각하면서 야장질할 때 부르는 노래를 뽑기 시작하였다.

에헤라차 땡그랑 땡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호미를 버려주니 김매기 성수났다
이삭패는 논과 밭엔 이내 팍도 깃들었네
.....

그러자 신기하게도 보물망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그러나 귀동이는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면서 《기장밭도 좋고 강낭밭도 좋으니 얼른 잠깐 한그릇 내와주려무나.》 하고 말하자 밥사발 하나가 땡그렁 나타났는데 그것은 빈사발이었다.

귀동이는 할아버지가 일하면서 망치에게 이야기 해주던것을 상기하고 이야기를 곱씹어 들려주곤 하면서 《감자밥이든 강낭죽이든 아무겨래도 좋으니 한그릇만 내와주려무나.》 하고 말하니 구수한 밥냄새만 피울뿐 사발에는 아무 밥도 나타나질 않았다.

이렇게 되자 성이 난 귀동이는 동네에서 버려달라고 가져다 무쳐놓은 호미와 낫가라 무지우에 망치를 획 내던지고말았다. 그랬더니 보물망치

《아이 고마와, 한번 더요.》 하고 말하였다.

귀동이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망치가 쇠소리를 먹고 산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귀동이가 버림질을 시작하자 망치는 계속 고맙다고 말하였다.

호미를 모루우에 올려놓고 두드리기 시작한 귀동이는 보물망치의 소리가 먼저보다 퍽 창창해 졌으나 어딘가 설익은것 같았다. 풀무소리를 빠뜨렸 다는것을 알아차린 귀동이는 이번엔 풀무질을 하며 농쟁기들을 빨강게 달궈 힘껏 두드리면서 땀흘려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자 밥상에는 김이 피여오르는 흰쌀밥과 따끈한 생선국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일손엔 더욱 성수가 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개되고 심화된 세부들은 동화 《보물망치》의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선상에 잘 맞물린것으로서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해명에 유기적으로 복종되어있소. 그리고 변화발전이 비교적 빠른 사건 일화들로 엮어진 이야기의 세부들에는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변화도 그려져있고 흥미를 자아 내는 기발한 사건들도 화폭적으로 그려져있소. 작품은 이야기줄거리의 간선과 지선이 균형성있게 유기적으로 결합되게끔 형상의 밀도를 잘 조절하고있소.

동화 《눈 있는 화살》과 《보물망치》의 이야기줄거리에서 특색있는것은 또한 이야기선에 굴곡과 교저가 있고 주인공들의 행동으로 충만되어있으며 이야기줄거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것ियो.

이 작품들에서는 이야기줄거리의 기초에 놓여있는 긴장한 사건과 기발한 세부들이 련이어 전개되며 그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부단히 호상 작용하면서 행동성이 강하게 운동하고있소. 따라서 작품에 속도감이 있으며 독자들의 주의를 한판으로 끌어가고있소.

이런것은 어린 독자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서 흘러나오는 미학적요구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말한바 있는 일부 동화작품들에서는 이야기줄거리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건과 세부들이 재미가 없고 자유분방하게 련이어 전개되지 않은것이 있소. 때로는 동화에서 장황한 묘사를 전개하거나 지루하게 설명을 늘어놓음으로써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하고 그들이 사고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들거나 주의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폐단도 있소.

박동무, 이와 같이 이 두 작품들에서는 이야기줄거리에 굴곡이 있고 교저가 있는것ियो. 다시말하여 그것은 독자들의 주의를 고도로 긴장시켰다가도 늦

취주기도 하고 잔잔히 흘러가다가도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는것을 의미하오. 동화에 그려진 사건과 이야기에 신축성이 있고 기승과 전결이 있을 때만이 동화적성격과 인물들의 내면세계에도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오.

동화들에서 흔히 나타날수 있는 중요한 결함은 이야기줄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퍼짐하게 그 모양 그대로 흘러가고 현실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화폭적으로 펼쳐면서 기복이 있게, 굴곡이 있게 전개되지 못하는것이오.

박동무, 동화의 이야기를 엮는데서 연구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구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오.

지홍길작 동화 《세번째 별명》(잡지 《아동문학》 1982년 10호)은 작품구성의 견지에서도 흥미를 끄는 작품이오.

이 동화는 동화 《눈있는 화살》, 《보물망치》와 같이 이야기줄거리를 펼치는데서 같은 궁정적요소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과 구별되게 하는 구성상 특징을 가지고있소.

이 작품은 이야기줄거리 구성에서 놀랍고 흥미있는 사건의 결과를 먼저 소개하는 방법으로 첫머리를 엮고 그런 결과를 빚어낸 과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있소.

작품은 우선 독자들에게 모직양복에 뽀족한 구두를 신고 꿀만 찾으며 사는것이 무엇인가고 수수께끼를 제기하고 그것이 돼지라고 해답을 준 다음 왜 돼지가 자꾸 꿀만 찾아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소.

동화는 탐욕, 욕심,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과 그 표현을 비판폭로 하는것을 주제사상으로 삼고 이것이 이야기에서 흘러나오도록 이야기줄거리를 자연스럽게 엮고있소.

이 동화의 이야기줄거리에는 세개의 매듭이 있다고 보오.

돼지는 먹을것을 산더미처럼 가득 쌓아놓고 혼자 살면서 동무들과는 손톱만 치도 나눠먹지 않는 욕심쟁이오. 닭, 황소, 개 등 동무들은 그가 똥똥한데 빙자하여 《똥보》라는 별명을 붙이오. 작품은 똥보가 감자밭을 꾸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일화와 세부를 보여주고있소.

다음으로는 《욕심쟁이》, 《심술쟁이》, 《건달뱅이》로 딱지가 붙기 시작한 똥보는 나중에는 《돼

먹지 않은놈》이라고까지 동무들의 미움을 받게 되오.

그후 어느때 누군가가 《돼먹지 않은놈》의 첫글자와 셋째글자를 따서 그를 《돼지》라고 간략해 부른것이 그의 두번째 별명이자 이름이 되고말았소. 작품은 다른 동무들이 먹을것을 얻으러 오면 조금도 꺾주지 않는 그런 린색한으로 돼지를 그리면서 생활적인 세부들을 보여주고있소.

동화는 마지막에 그가 왜 《꿀꿀》하는 말밖에 할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에 대하여 극성이 있는 일화로 전개하고있소.

이와 같이 동화 《세번째 별명》은 이야기를 주제사상의 요구에 맞게, 간단명료하고 흥미있고 행동성과 속도감이 있게 전개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전도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기때문에 특색있는 동화로서 더 빛을 내게 되었다고 생각하오.

이 작품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화들에서 나타날수 있는 결함 즉 이야기에 립체성이 부족하고 이야기전개방법이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부족점을 극복하게 하는데서 교훈적인 시사를 준다고 보오.

× ×

박동무, 나는 동화에서의 성격창조, 동화에서의 구성 등 문제를 비롯하여 동화창작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동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그러나 단번에 이 모든 창작상문제들을 론의할수는 없소.

문제는 우리 동화문학도 우리 당의 문학, 주체문학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뜻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구현한 혁명적이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아동문학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가 더 연구하고 요구성을 높여 투쟁하는 것이오.

박동무, 주체의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는 우리의 새 세대들은 지금 재미있고 뜻이 새롭고 깊은 동화들이 더 많이 창작될것을 고대하고있소.

나는 박동무가 여러 작가들과 함께 당의 문예방침을 더 잘 관철한 동화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 내리라고 굳게 믿소.

1984년 1월

더 높은곳으로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을 찾아서-

리 석

아침해는 우람차게 펼쳐진 드넓은 공장지구에 밝은 빛을 뿌리며 높이 솟아오른다. 봉화산기슭을 감돌던 안개는 땅위에까지 낮게 떠돌며 어리광치더니 해빛에 녹아버렸는지 어느새 하늘에는 구름한점 없다.

새해에 들어와 류달리 잠풍한 날씨다. 올해에도 새로운 비약을 약속하며 이 공장 로동계급들과 함께 첫 출근길에 오른 우리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 올랐다.

지난해에 새형의 전기기관차와 새형의 객차를 제 기일안에 계획대로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써 영광스러운 당중앙으로부터 두차례씩이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이 공장 로동계급들의 새로운 결의와 새해 첫 전투소식을 알고싶어 왔다는 우리를 이 공장 지배인 박수범동무는 반갑게 맞아 주었다.

지배인동무는 유래비앞에서 비문을 읽어 보는 우리들에게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길을 긍지높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수송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를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철도를 나라의 동맥으로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 규정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1945년 11월 10일 친히 이 공장 종업원집회에 참석하시여 우리 철도로동계급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때로부터 40년 가까이 이 공장 로동계급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15차례의 현지지도를 주시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이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지난날 증기기관차와 객화차수리밖에 하지 못하던 이 공장 로동계급들이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1961년 8월 30일 몸소 공장에 나오시여 1호전기기관차에 오르시여 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로동계급들이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으로 자력갱생하여 손색이 없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이것은 우리 당이 기술혁명수행에서 달성한 또하나의 큰 성과이며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만들지 않고 전기기관차를 만듦으로써 다른 나라들보다 한계단 뛰어넘는 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증기기관차는 산업혁명시기에 쓴 것이며 전기기관차는 공산주의사회에 쓰는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간다고 긍지높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기기관차 이름을 혁명적이며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의미에서 《붉은기》라고 달며 전기기관차의 앞머리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만들어 붙이며 공장이름을 전기기관차공장으로 부르도록 크나큰 신임을 표시해주시였다.

실로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다.

우리는 뜨거운 걱정을 진정하지 못한채 지배인 동무를 따라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에서 첫공정을 담당한 제관직장으로 향했다.

눈부신 해빛이 채광장으로 빛살처럼 쏟아져 드는 제관직장.

여러대의 10톤급천정기중기들이 크고 작은 제관부분품들을 들고 엇갈리면서 공중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전기기관차의 차틀과 차체를 제작하느라고 용접면을 잠시도 얼굴에서 땀줄 모르는 용접공들이 푸른 섬광 번쩍 번쩍일때마다 온 현장안은 화경처럼 자태를 드러 낸다.

산소용접공들은 팔뚝같은 산형강들과 각강들을 엇가락처럼 녹여 붙이며 프레스공들은 단 몇초동안에 철판을 여러가지 구부림모형으로 찍어낸다. ,

순간도 쉴 줄 모르는 전투장이다.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고동치는 벽찬 전투장이다.

우리가 들끓는 전투장의 모습에 몹시도 감동되었음을 았았던지 지배인 박수범동무는 공장적으로 소문이 나 지난해에 신문과 방송들에 여러번 소개된바

있는 제관직장 차틀작업반장 리준택동무와 차체작업반장 조병률동무를 소개하였다.

차틀작업반과 차체작업반은 무슨 일에서나 지지 않으려고 승벽내기로 달리는 작업반으로서 직장 계시판 경쟁도표에는 언제나 어깨나란히 붉은 줄이 올라간다고 한다.

지배인동무로부터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알았던지 차틀작업반장 리준택동무는 차체작업반장에게 선손을 떼울가봐 먼저 우리에게 종전에 차틀제작을 하나하나 철판을 묶어서 하던것을 프레스로 늘리함으로써 용접 부하를 20%나 덜고 생산능률을 대뜸 1.5배로 올리고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기들이 올해에 다진 결의실천에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차체작업반장 조병률동무가 용접공 고광덕, 리성룡동무들이 용접작업이 많은 차체조립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차체를 차틀에 총조립할 때마다 용접기의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하겠는가를 모색하던 끝에 용접을 한자리에서 할수 있도록 용접선을 공중에 늘임으로써 조립속도를 지난해보다 130%나 더 높인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어찌 그뿐이라. 그들의 말이 끝나자 지배인동무는 이 직장에서 혁신적인 소식을 소개하는데서 지붕작업반원들의 투쟁내용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즐겁게 웃으며 말하였다.

지붕작업반장 정영섭동무를 비롯한 제관공들은 객차생산에서 품이 제일 많이 드는 지붕작업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었다.

지붕조립지구에다 철판을 깔고 서까래를 댄 다음 망치로 두드려서 용접하였다.

이렇게 하다나니 모양이 곱지 못하여 다시 뜯었다가 붙이는 현상이 빈번하였다.

그러느라니 차틀과 차체를 만들어놓고도 지붕을 씌우지 못하여 객차직장에 제대로 넘기지 못하여 객차직장 로동자들로부터 불같은 독촉을 받을 때가 한 두번만 아니였다.

지난해초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이 공장의 객차생산현황을 알아보시고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바라시는 새형의 객차를 만들기 위한 심정으로

가슴 불태우고 모태기던 이들은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드디어 이동용공기프레스를 도입하여 용접공정을 50%나 줄이면서 속도를 5배로 높임으로써 그 전까지만도 한달에 4~5량밖에 지붕을 씌우지 못하던것을 20량이상 지붕을 씌우는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였다.

올해 역시 이들은 이 작업방법을 더욱 공고히 하여 새해 첫전투에 들어서자마자 첫날에 한교대에서 객차 1량을 거의 완성하는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의 첫 돌파구를 지켜선 제관직장 로동계급들이 드높은 열정과 만만한 투지로 내달리고있으니 이 공장은 올해에도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에서의 성과는 벌써 확정적이라는 것이 대뜸 알린다.

이런 생각으로 선뜻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있는데 지배인동무는 이렇게 하다가는 해가 룡화산에 다 닿을 때까지도 전기기관차조립직장을 마저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재촉하였다.

우리는 즐겁게 웃으며 그의 뒤를 따라 전기기관차조립직장에 들었다.

마침 75톤급천정기중기가 육중한 차체를 대차우에 올려놓고있었다.

우리는 순간을 놓칠세라 저마다 총조립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로 이때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소리에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다보았다.

알고보니 우리가 알고있는 로력영웅인 조립직장장 한대선동무였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잡고 놀 줄 몰랐다. 그도 역시 자기 직장 현장에서 뜻밖에 우리를 만나서인지 싱글벙글 웃으며 몸둘바를 몰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중앙경축대회 대표로 추천된 그를 만났을 때 전기기관차를 처음 만들때의 이야기들 들은적이 있었지라 그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것이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그는 다짜고짜로 우리 손을 잡고 방금 총조립을 끝낸 전기기관차의 운전실안으로 이끌었다.

산뜻한 초록색으로 단장하고 앞에는 휘날리는 붉은기를 단 전기기관차는 금방이라도 앞으로 기운차게 내달릴것만 같았다.

《이 운전실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가 묻기에 《운전실이 넓고 환합니다.》고 대답하자 《이번에 우리 공장으로동자들이 이전에 만들던 전기기관차보다 새로운 형의 전기기관차를 만들고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달라진 운전실문이며 배전반이며 날렵한 곡선미를 가진 창문틀이며 널직한 운전대에 이르기까지 기관사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손으로 짚어 가며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폭신한 기관사의자에 앉아 보니 기적을 올리면서 한번 몰아 보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런 현대적인 전기기관차를 올해에는 지난해 계획보다 두배나 생산한다고 하니 지난날 증기기관차 한대 만들지 못하던 우리 철도기계제작공업이 오늘은 얼마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는가.

생각만 하여도 가슴뿌듯하다.

정전직후 이 공장을 참관한 외국기술자들은 증기기관차와 객화차 한대 변변히 만들지 못하고 수리나 겨우 하던 이 공장 로동계급들이 전기기관차를 만들겠다고 하자 이런 락후한 설비에서 조선사람들이 전기기관차를 만들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철도전기차의 구상을 받아안은 우리 로동계급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고 온 세상에 충성의 기적소리높이 올렸던것이다.

20년전까지만도 기계제작공업의 총체라고 부르는 전기기관차를 불과 몇대밖에 만들지 못하던것은 오늘은 수십대씩 만들어 온 나라의 철도전기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이것이야말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인것이다.

이런 믿음직한 철도기계생산기지가 있기에 우리 철도운수는 나라의 동맥으로서,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서 눈부신 비약의 한길을 즐기치게 달려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승리에 자만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것이 이 공장 로동계급의 오늘의 일본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불타는 심장에 받아 안은 이들은 높은곳에서 더 높은곳으로 비약하기 위하여 새해 첫날부터 이렇듯 진군속도를 높이고 있는것 이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공장정문을 나서자 봉화산마루에 저녁노을이 곱게 피었다.

봉- 기적소리를 노래처럼 울리며 조립을 끝낸 또 한대의 전기기관차가 출장길에 오르고있었다.

전국 방송극작품현상모집 심사결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조직진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돛기념 전국 방송극작품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작품들과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다.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 1등 방송극 《량심》 허명구
황해북도방송위원회 기자.
- 2등 방송극 《포연속의 봄》 성환진
평안남도 회창군 성흥광산 로동자.
- 3등 방송극 《전사의 대답》 안근호
평양시 대학건물보수사업소 로동자.
- 3등 방송극 《처녀의 소원》 리석환
청진시 청암광산 로동자.
- 3등 아동방송극 《편지》 리지영
함경남도 허천군 슬암고등중학교 부교장.
가작 방송시극 《밀림이 설레인다》 리룡남
평양시 대성구역 문화회관 관장.
가작 아동방송극 《잊을수 없는 소년》 김원일
제1기계공업부 자동화설계사업소 설계원.
가작 방송시극 《삼천포의 새 전설》 유원섭
평안북도 구성시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동화극

- 2등 동화극 《구름산의 장수나무열매》 리재극
평안남도 증산군농기계작업소 로동자.
- 3등 동화극 《두 보물함》 김영삼
평양방직기계공장 로동자.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남쪽에서 온 편지》

- 1등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홍남비료련합기업소 철도전용선편)오충근
홍남비료련합기업소 신문주필.
- 2등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산과실가공편) 최선홍
평안남도 녕원군 읍협동농장 농장원.

3등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 (평양전구공장편) 전영순
평양전구공장 로동자.
- 가작 련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평양종합방직공장편) 한원군
평양종합방직공장 로동자
- 가작 련속아동방송극 《남쪽에서 온 편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폭압책동폭로편),
허군호
함경북도 김책시 쌍룡수산협동조합 어로공.

-토막극, 재담

- 1등 토막극 《풀씨》 황경선
조선인민군우편함 제 63027호(선) 군인
- 2등 토막극 《제기할 문제》 이정필
평안남도 평성시 대학건설사업소 로동자.
- 3등 토막극 《육박전》 김성하
사회안전부 협주단 배우
- 3등 토막극 《샘물》 박춘만
평안남도 증산군 국토자원감독대 감독원.
- 3등 토막극 《평양전학》 김봉국.
리광수동무가 일하는 광산 로동자.
- 3등 재담 《웃음소리 노래소리》 강옥너
4월 3일공장병원 간호원
- 3등 재담 《가짜판세상》 김영환
조선인민군우편함 제 32023호 군인.
가작 토막극 《마누라의 보집》 한정수
평양고등기상수문전문학교 학생.
가작 토막극 《아끼는 마음》 김영룡
조선인민경비대우편함 제 95801호 군인.
가작 토막극 《충성의 1도》 박유영
김경수동무가 일하는 농장 기술준비원.
가작 재담 《조선의 주먹》 안형국

조국의 지도를 두고

리대삼

사람들은 흔히 레사로운 생활속에서도 문득 커다란 충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 가슴 뭉클한 충격은 흔히 아이들과의 생활속에서 더욱 많이 받게 된다.

나는 바로 이런 걱정적인 충격을 받고 지금 이 글을 쓰고있다.

며칠동안의 전연초소 취재길에서 돌아온 나는 해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 올 때마다 《아버지 오신다!》라고 머루알같은 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 나는 그날의 피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것을 느낀다. 하물며 며칠동안의 취재길에서 돌아와 저마다 손을 먼저 잡겠다고 싱갱이질하는 그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아들이 별도로 단번에 그들을 안아 보고싶은 심정이야 어떠하랴!

그런데 취재길에서 돌아온 오늘저녁, 나는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내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니 마침 세 아이는 책상주위에 동그랗게 원을 지어 마주앉아 이마를 맞대고있다가 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 동시에 고개를 쳐들었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들의 눈가장자리에는 방울방울 눈물이 맺혀있었다. 어느때 같으면 얼어질듯 달려나올 아이들이었건만 오늘은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만이 쪼르르 달려나와 나에게 냉큼 안기는데 그의 눈가장자리에도 이슬이 맺혀있었다.

조만해서 싸우지들 않는 애들이었다. 어찌다가 간혹 티각태각할 때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때마다 부모들에게서 엄한 추궁을 받기때문에 아이들은 벌써 여기에 지각이 났다고 할가.

가슴이 철렁한 나는 애써 얼굴을 밝게 하고 의문이 담긴 눈길을 책상위로 보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듯 책상우에는 펼쳐진 교과서와 학습장들이 놓여있었다. 썩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조선지도를 그린 학습장이 눈에 인츰 안겨왔다.

《웬일들이냐? 막내가 공부를 못하게 훼방을 놓았냐?!...》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러자 막내가 도리머리를 흔들며 《형들이 씹했다. 아버지...》하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말이와 둘째는 그저 고개를 떨어뜨린채 연필과 고무지우개를 쥔 손만 주물럭거리며 대답을 안하고있었다썩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조선 지도를 그린 학습장이 눈에 인츰 안겨왔다.

《싸우다니? 형제들끼리 싸우면 놀부가 된다고 하지 않더냐?》

하고 나는 엄한 눈빛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싸운게 아니예요.》

고개를 숙였던 말이가 눈길을 들며 입을 연다.

일인즉 이러한 사실이 그들사이에 방금 있었다는것이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둘째가 조선지도를 그리는 숙제 하고있었는데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이며 대동강과 압록강, 두만강을 제법 잘 그려넣었다는것이다. 그리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접한 국경선도 지도기호로써 제법 잘 표기했고 도경계선까지 잘 그려넣었다는것이다.

그런데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말이의 신경을 자극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 동생이 군사분계선을 그려넣더라는것이다. 그래 말이가 《이 군사분계선은 그려넣을 필요없어!》하고 고무지우개로 지워버리려 하자 껌한 성미를 가진 둘째가 말총을 뱉다 쏘았다는것이다.

《왜?! 교과서에도 도경계선처럼 그려있는데 뭐, 그려넣어야 돼.》

아이들의 다름질이란 종종 단순한 의견불일치, 하찮은것으로부터 있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말싸움이 오고가게 되였다는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만 나의 심장은 경련이라도 일 때처럼 푸들거리며 아파났다.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줄것인가. 그들은 제각각 다 자기 주장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말이의 말이 옳다고 극구 칭찬할수도 없었고 배운대

로 해야 한다고 하는 둘째를 찬양할수도 없었으며 반대로 맏이가 옳지 못하다고 추궁할수도 없었고 둘째를 탓할수도 없었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만 나의 심장은 경련이라도 일 때처럼 푸들거리며 아파났다. 맏이는 아직 론리있게 어린 동생을 납득시킬수 있는 깊은 지식의 샘물이 부족했고 둘째는 둘째대로 왜 군사분계선을 그려넣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자기형의 말을 이해할만한 지각이 들지 못하여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한강도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피줄을 이어받았으며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이 순간 나의 눈앞에는 취재길에서 만나본 전술훈련장에서 일당백의 용맹과 슬기를 키워나가는 병사들의 땀 흐르는 얼굴이며 의용군 전사였던 아버지의 당부를 안고 온 나 어린 전사가 총창끝에 서리발 같은 분노를 버려졌고 두눈에 등불을 켜고 분계선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얼굴과 엇갈려 긴긴 세월 홀로 자랐다 스러지고 또 자라 키를 넘는 분계선 언덕의 잡초들이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속에서 그루마저 타버리던 그 밭뿌리에서 또다시 움터 자란 끊어진 철길옆의 거목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가슴속에, 뇌리속에 찍힌 가장 가슴아픈 인상은 세월의 눈비속에 별장계 고삭은 군사분계선 철조망과 한겨레의 말소리조차도 넘나들지 말라고 철근을 넣고 다져 쌓아올린 콘크리트장벽이다.

저 역사의 치욕인 군사분계선때문에 동강난 민족의 혈맥!

실로 미제침략군놈들은 조국의 허리를 가지철조망으로 감고도 모자라 조국통일의 때문에 저 콘크리트라는 빗장아닌 《빗장》을 굳게 질러 놓게 앉았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같은 풍습과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민족이 분열되어 서른아홉해! 우리 인민은 일제통치의

36년도 길다고 했는데 또다시 민족분열, 국토량단의 비극이 서른아홉번째 년륜을 감고있으니 이 아니 통분한가!

살아 생리별은 생초목에도 불이 붙는다 했거늘 새로운 한 세대가 40대에 이르도록 조국은 미제침략자놈들이 빚어낸 국경아닌 《국경》 -저주로운 군사분계선으로 허리가 끊기었으니 생각할수록 참을수 없는 마을의 고통과 가슴터지는듯한 의분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지 않는가!

백지와 같은 어린이들의 깨끗한 가슴속에 남겨진 군사분계선! 어린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머리속에 익히고 학습장에 새겨넣는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과연 이 땅이 생기고 저 하늘이 열리어 언제 어느 때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외세의 책동으로 지속된 분열이 있었던가.

언제부터 이런 비극이 생겨나게 되였는가. 그것은 미제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 그때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비극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참화를 다 들썩우고도 씨원치 않아 미제침략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뻔뻔스럽게 조국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주인공세를 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썩우고있으며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마음속에 가시를 박고있다. 놈들은 오늘도 전두환군사파쑈악당들을 부추겨 분열의 장벽을 더 높이 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놈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 있다. 분열의 광증으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놈들은 돌을 들어 제 이마를 까는것으로 될것이며 전쟁열에 미쳐날수록 그자리에 제놈들의 무덤을 더욱 깊이 판다는것을!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전사들은 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릴것이며 죽음의 함정, 안식처를 마련해줄것이다.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른다.

저 한손높이 쳐드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통일의 새날은 밝아오리니,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이 3천리강토우에 솟아날것이 다! 하여 원한에 사무친 인민의 피눈물에 별장계 고삭은 군사

분계선 철조망과 콘크리트장벽을 해빛 받은 얼음장처럼 녹여버리리라!

나는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섰다.

말이와 물체의 까만 눈동자가 나의 입을 지켜 본다.

그들의 눈동자에서 나는 제 주장들의 편역을 들어줄것을 간절히 바람을 알수 있었다.

특히 말이의 눈동자는 더욱 더하다 할가!

나는 천천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 얘들아, 이 아버지가 오늘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대답할수 있고 꼭 말하고싶은것은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라는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교과서에서 군사분계선이 있는 조선지도를 배우지만 멀지않는 래일 인민들은 반드시 분계선이 없는 조선지도를 그려내고야말것이다... 너희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웃음꽃을 담고 오손도손 함께 그려갈 조선지도를...》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렇다, 나는 본다.

아이들의 얼굴, 그 맑은 눈동자에 통일된 조국의 푸른 하늘이 비껴있는것을!

아니 남조선 아이들과 함께 조국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것을 본다!